

대한 국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100인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오민준 글씨문화연구소

대한 국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100인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대한국인’ 캘리그래피 전시를 열며

우리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숨결과 정신이 생생히 살아있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우리 겨레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국인’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래피 전시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희망이 없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아 만세를 외쳤고 스스로 정부를 세워 선포하였습니다. 선조들의 신념과 호국정신은 대한민국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누리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민족의 과거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사랑과 호국의지의 굳은 표현일 것입니다.

현충원에 모셔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임시정부 요인 묘소 하나하나에는 그분들의 인생과 스토리, 나라 사랑 정신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1945년 맞이한 광복 또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 재산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입니다.

임시정부수립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다양한 형태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대중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캘리그래피 전시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어록·일화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되어 현충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또 다른 소통의 장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철학, 독립정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국립서울현충원은 민족의 과거를 기억하는 가운데 영광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참병에 서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전시에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에 무궁한 발전과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 3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원장 김윤석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오로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애국열사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하고자 100명의 독립운동가의 어록을 100명의 캘리그래피 작가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작품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영면해 계신 애국의 성지이며 그분들의 거룩한 넋을 기리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의미가 깊은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생생한 말씀을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장을 열어주신 국립서울현충원 김윤석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윤동주 시인의 '서시' 중에서–

나라를 잃은 암울하고 가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한길만을 걷은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에 숙연해집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가 존재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캘리그래피는 동양예술의 근간인 서예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문자예술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발전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예술분야보다 표현의 폭이 자유롭고 일상생활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중의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선과 여백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문자 표현은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일렁이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호국전시관과 야외 설치작품으로 나누어 국립서울현충원 어디에서도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어록을 작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하여 문자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하기보다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선 하나하나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문자로써 의미전달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써 보이고 느껴지는 예술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흔쾌히 전시에 응해주시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100명의 캘리그래피 작가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 전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품된 작품들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주독립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일
신고전주의 작가 오민준

목차

안병무 [강승은]	8	이재명 [변숙연]	76	이동휘 [임시현]	144
최은식 [구지영]	10	우재룡 [변순옥]	78	연병호 [장은영]	146
권동진 [권혜숙]	12	신석구 [서영민]	80	김공집 [전미정]	148
최수봉 [김나은]	14	홍 진 [서윤정]	82	김마리아 [전선주]	150
손병희 [김대영]	16	이인영 [손희정]	84	연기우 [전 정]	152
최세윤 [김민아]	18	이상룡 [송옥진]	86	박영준 [정미숙]	154
조인제 [김상옥]	20	이인식 [송재익]	88	스코필드 [정미애]	156
서 일 [김석중]	22	심수택 [신유리]	90	박 열 [정미화]	158
채기중 [김소연]	24	강무경 [신주영]	92	신규식 [정소희]	160
노백린 [김수미]	26	이은찬 [심규정]	94	송진우 [정유진]	162
오영선 [김연주]	28	이원직 [안주희]	96	유동열 [정은정]	164
이상설 [김은옥]	30	조경한 [양서윤]	98	손승억 [정희자]	166
정찬조 [김정옥]	32	박찬익 [양승희]	100	강우규 [조선옥]	168
정서송 [김진아]	34	조소양 [오민준]	102	김학규 [조성령]	170
임국정 [김창목]	36	이 강 [원회진]	104	이범윤 [조영진]	172
이 탁 [김춘여]	38	김순애 [유미진]	106	한용운 [조정옥]	174
현 순 [김현성]	40	손정도 [유설영]	108	박재혁 [조진경]	176
안창호 [김현중]	42	이병목 [유춘화]	110	장진홍 [조혜란]	178
이종일 [김희경]	44	고이허 [유한나]	112	윤봉길 [주현정]	180
기산도 [김희정]	46	방정환 [윤경호]	114	박승환 [최동준]	182
이진룡 [남은아]	48	안중근 [윤경희]	116	신익희 [최민숙]	184
유해준 [박상규]	50	이범석 [윤유선]	118	박동완 [최선옥]	186
나석주 [박선영]	52	이명하 [이강호]	120	지청천 [최은정]	188
백용성 [박선희]	54	남자현 [이문섭]	122	이회영 [최정화]	190
유여대 [박수진]	56	권병덕 [이상우]	124	민필호 [최혜진]	192
이중언 [박순희]	58	윤세복 [이영주]	126	신돌석 [탁혜진]	194
주기철 [박시현]	60	이 기 [이영희]	128	노복선 [탄공스님]	196
김 구 [박양재]	62	유관순 [이우진]	130	박은식 [표시근]	198
김규식 [박영은]	64	오광선 [이유진]	132	남영득 [한지혜]	200
양기탁 [박진숙]	66	이강훈 [이지민]	134	송병조 [허지혜]	202
이규창 [박혜란]	68	한 훈 [이지연]	136	송학선 [홍예빈]	204
김승곤 [방은조]	70	안재홍 [이춘희]	138	이수홍 [홍지영]	206
이재현 [배연수]	72	김동삼 [이해정]	140		
이신애 [배정원]	74	조명하 [임선희]	142		

대한 독의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100인



1912.06.08-1986.05.31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92]

보라! 나라 잃은 사람은 자유가 없음을!

〈독립기념관 안병무 선생 어록비〉 중에서

평안남도 안주 출생으로, 1930년 상해(上海)로 건너가 푸탄대학(復旦大學)에 유학하던 중 1932년 1월 상해 사변이 일어났다. 안병무는 천도교청우당원으로 푸탄대학 학생의용군에 가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중국 19로군에 편입하여 대일전에 참가하였다.

상해 한인학우회에 가입해 재무위원회 선임되기도 하였다. 1937년부터 난징에서 한국국민당의 청년단에 가입하여 『역보(力報)』, 『항전일보(抗戰日報)』, 『건군반월보(建軍半月報)』 등 잡지에 독립군의 활동과 일본의 침략 사실을 폭로 게재하였다.

1940년 9월에는 『일본 제국주의 철제하의 조선(日本帝國主義鐵蹄下の朝鮮)』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한국 내의 일본 폭정을 폭로하는 등 문필로도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40년 9월부터 구이린(桂林)에 있는 중국 중앙군관학교 제6분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그 곳에서 다시 중국 제3전구(第三戰區)에 가입해 대적선전을 담당하였다.

1944년 4월부터는 임시의정원 비서에 임명되었다. 그 해 6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부 비서 및 편집위원을 겸하여 충칭(重慶)에서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한편, 안병무는 1937년 국립 광동중산대학 법학원 정치과를 졸업한 뒤 1941년 중국 장시성(江西省) 상라오(上饒)의 『첸첸일보(前綫日報)』의 편집조사부장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에는 중한문화협회의 비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주불공사의 비서를 지내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국제연합한국재건단으로 활약했고, 1955년 경제사절단 기술보좌역과 1957년 국립체신학교 부교장도 지냈다. 1966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흥국(興國)중고등학교 교장 등 10여 개 학교의 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과 종교운동에 헌신하였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문화협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천도교 중법사로도 활약하였다.

강승은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문화예술평생교육진흥회 캘리그래피지도사 1급
E : kseuni@naver.com, H : www.instagram.com/ugong_calli



최은식

1899.06.02-1960.04.29

3·1운동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7]

나는 조선 독립을 바라고 있었다. 조선인이기에 독립하기를 바랬다.

1919년 3·1운동 후 검사 신문 당시 최은식 선생의 답변

경기도 안성 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에 걸친 안성군 원곡면·양성면의 독립만세시위 주동자로서 홍창섭·이근수·이덕순·최은식·이희룡 등과 함께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 올라가 광무황제의 장례를 참관한 뒤 독립만세시위를 직접 경험하고, 고향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거사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원곡으로 돌아온 3월 28일 이시연·이시순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주민들을 원곡면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독립만세를 외쳤다. 원곡면의 만세시위는 면민들이 모여 3월 31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4월 1일 오후 8시경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1천여 명의 만세시위 군중들과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원곡면장을 끌어내 일제 기관이 있던 양성면 동항리로 행진하였다. 양성면에 도착할 무렵, 동항리에 있는 양성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해산하여 돌아가던 양성면민 1천여 명과 합류하면서 시위 군중이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10시경 양성주재소 앞에 도착하자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숙직실을 불태웠다. 다시 양성우편소로 가서 기물과 건물을 파괴·방화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점과 고리대금업자의 집을 파괴하였다. 또한 양성면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기물을 파괴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해산하였다.

다음날 새벽 4시경 원곡면으로 되돌아온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원곡면사무소의 건물을 파괴·방화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2년의 옥고를 치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구지영 심뽀글씨디자인연구소 소속 작가·제7회 캘리콘서트 '그때 그사람'전 외 다수 전시 참여·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특선 외 다수 수상
C : 010-7200-4755, E : gjy710@naver.com, H : www.instagram.com/gjy710



권동진

1861.12.15(음력)-1947.03.09(양력)
3·1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20]

인류이면 누구나 천부의 평등자유를 가졌다 보고 한가지로 그 천부의 평등 자유를 유감없이 향수(享受)할 것이라 주창하는 주의(主義)가 곧 인류주의일 것입니다.

〈개벽〉 1923년 3월호, 〈人類主義는 나의 가장 贊誦하는 理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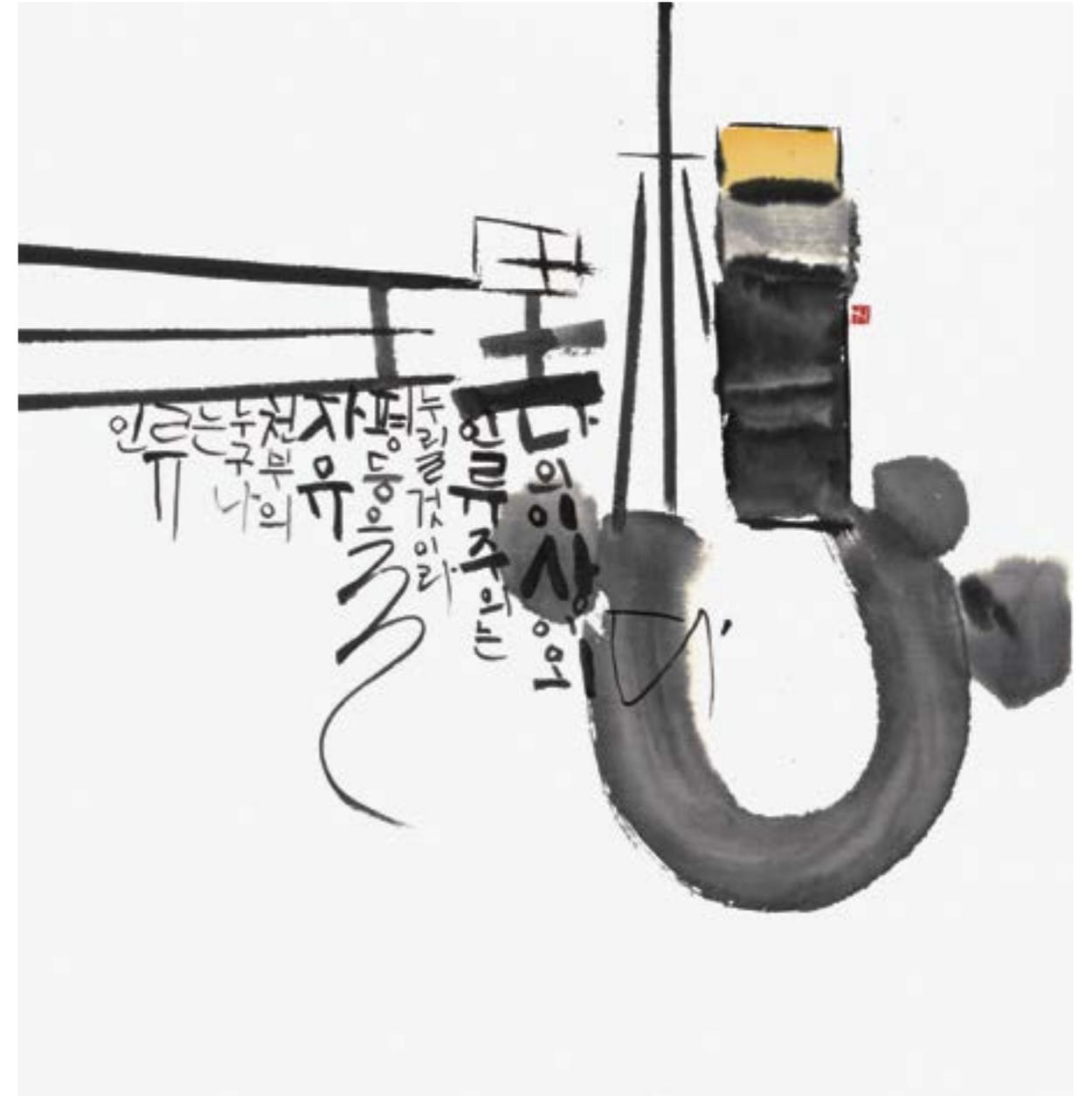
1861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다. 함안군수 및 육군 참령을 지내다 을미사변 직후 11년간 도쿄에 머물렀다. 도쿄에서 손병희를 만나 천도교에 입교하였으며 1906년 1월 5일 손병희 등과 함께 국내로 돌아온 이후 전제관장, 포덕 주임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출판사 보문관(普文館) 설립 및 대한자강회 후신인 대한협회 실업부장과 부회장을 맡으면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 나라가 강해지길 바랐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였다. 오세창과 함께 교단 내 3·1운동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손병희를 설득하여 양한목, 나용환 등을 민족대표로 추천하였다. 한편으로는 타종교와의 연합을 통해 전 민족이 참여하는 독립운동으로 확대하는데 힘썼다.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2월 22일 출옥했다.

1922년 5월 손병희 사망 후 천도교가 분열되자 권동진은 천도교 구파에 서서 일제에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6·10만세운동과 신간회로 이어지는 민족통일전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간회 본부 창립 당시 부회장, 복대표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 당시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사전 탄압으로 인해 또다시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한편, 1945년 12월 신탁통치 소식이 전해지자 신탁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한민족당을 결성하며 '자율적 통일정권 수립을 목표로 전민족의 총의와 총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1947년 3월 9일 8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권혜숙 표시근캘리그래피 기획전 2018 '사랑'전 참여·2017,2018 캘리콘서트 참여·2016-2018 의왕시 평생학습축제 전시 및 아트마켓 참여
C : 010-3786-4394, E : orangecounty@nate.com, H : www.instagram.com/basic501

최수봉

1894.03.03(음력)-1921.07.08(양력)
의열투쟁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78]

**우리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자유를 빼앗겼으니,
강토의 사용과 민족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의사로 투탄한 것이다.**

〈최경학(최수봉의 이명)선생의 고등법원 판결문〉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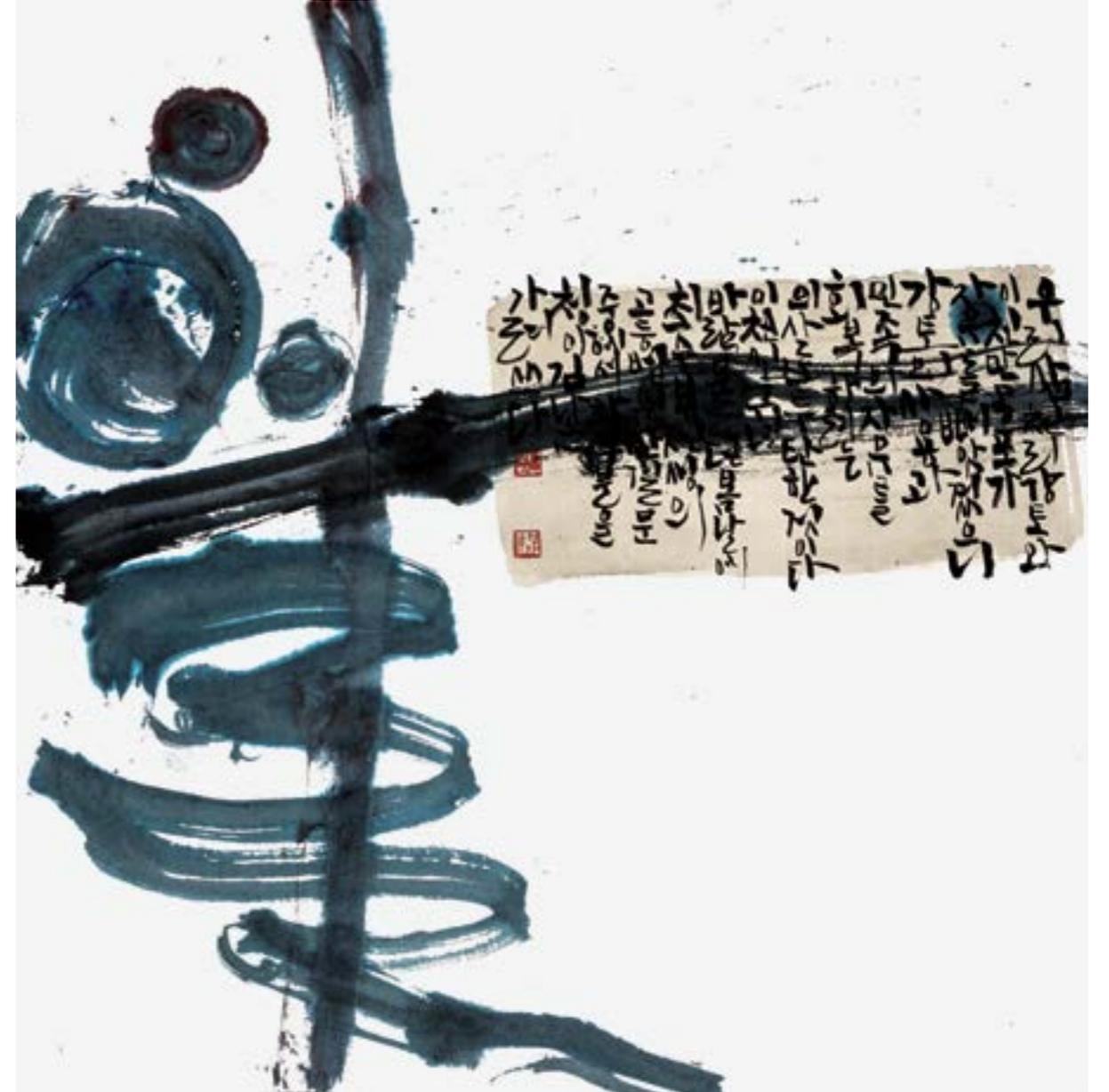
일명 경학(敬鶴). 경상남도 밀양 출신. 밀양의 사립 동화학교(同和學校)에 들어갔으나 일제의 강압으로 폐교되자, 1912년 동래 범어사 안에 있는 명정학원(明正學院)을 졸업하고 1913년 평양숭실학교(崇實學校)에서 수업하다가 중퇴하였다.

1916년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사금광에 가서 날품팔이 노동을 하다가 1919년 고향으로 돌아와 윤세주(尹世靑)·윤치형(尹致衡)과 더불어 3월 13일 밀양 장날에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만세시위로 수배를 받게 되자, 윤세주·윤치형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봉천(奉天)과 안동(安東) 사이를 다니다가 길림(吉林)으로 가서 의열단(義烈團)에 가입, 동료들로부터 폭탄제조법을 배우고 밀양으로 돌아왔다.

1920년 임태호(林泰昊)의 격려와 그 해 9월 박재혁(朴載赫)의 부산경찰서투탄사건 소식을 듣고 거사를 도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해 12월 밀양경찰서장이 경찰서 직원 19명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훈시하고 있을 때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되고 말았다. 이에 일본경찰이 추격하자 경찰서 근처의 황씨 집에 들어가서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 대구복심법원에 상소되어 1921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경기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당하고, 7월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나은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그래피그룹 묵화연 전속 작가·석봉한호선생 전국회대회 캘리그래피 부문 우수상
C : 010-8536-0010, E : rirururi@naver.com, H : www.instagram.com/cheong_a0010

손병희

1861.04.08-1922.05.19
동학·천도교지도자, 독립운동가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오.**

손병희 선생이 3·1 독립선언을 앞두고 천도교 간부들에게 다짐한 말 중에서

호 의암(義菴), 초명 응구(應九), 후명 규동(奎東), 충북 청원(淸原) 출생. 1882년(고종 19) 22세 때 동학(東學)에 입교, 3년 후 교주 최시형(崔時亨)을 만나 수제자로서 연성수도(鍊性修道)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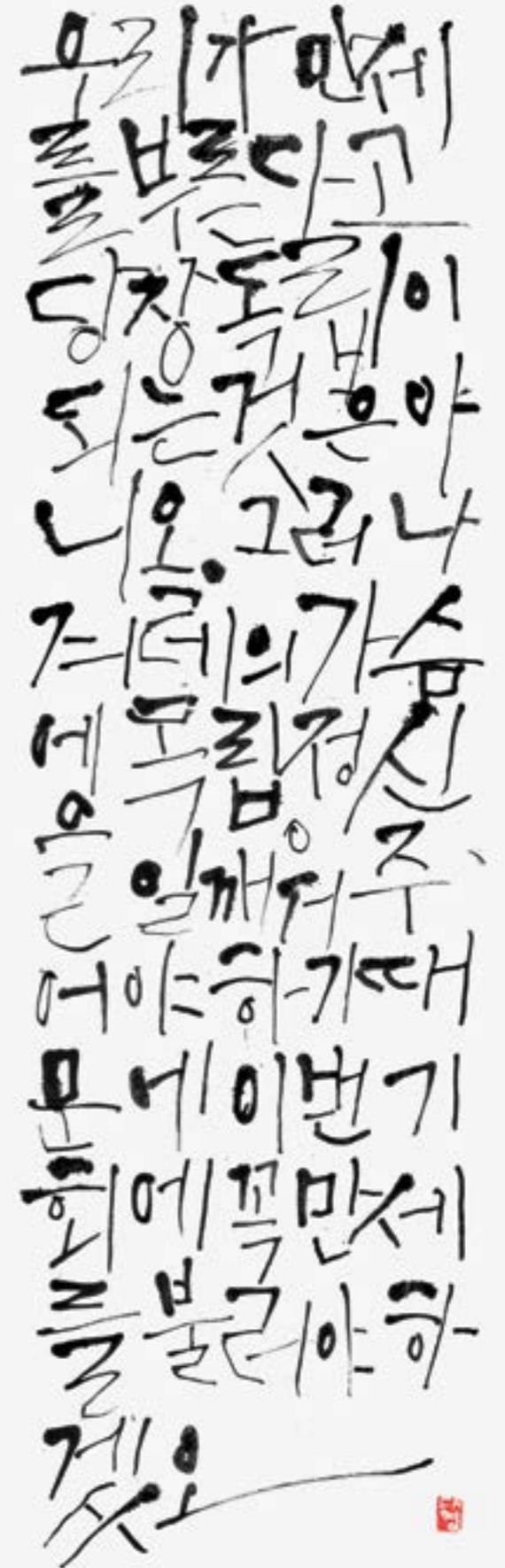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통령(統領)으로서 북접(北接)의 농민군을 이끌고 남접(南接)의 전봉준(全琫準)과 논산에서 합세, 호남·호서를 석권하고 북상하여 관군을 격파했으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원산(元山)·강계(江界) 등지로 피신하였다. 1897년부터 최시형의 뒤를 이어 3년 동안 지하에서 교세 확장에 힘쓰다가 1901년 일본을 경유,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이상헌(李祥憲)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오세창(吳世昌), 박영효(朴泳孝) 등을 만나 국내 사정을 듣고 1903년에 귀국, 두 차례에 걸쳐 청년들을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건너가 유학시켰다.

1904년 권동진(權東鎭)·오세창 등과 개혁운동을 목표로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한 후 이용구(李容九)를 파견하여 국내 조직에 착수, 경향 각지에 회원 16만 명을 확보하고 전회원에게 단발령(斷髮令)을 내리는 등 신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 이용구가 배신하여 친일단체인 유신회(維新會)와 합하여 일진회(一進會)를 만들고 을사조약에 찬동하는 성명을 내자, 즉시 귀국하여 일진회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이용구 등 친일분자 62명을 출교(黜敎)시켰다.

1906년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고 제3세 교주에 취임, 교세 확장운동을 벌이는 한편, 출판사 보성사(普成社)를 창립하고 보성(普成)·동덕(同德) 등의 학교를 인수하여 교육·문화사업에 힘썼다. 1908년 교주 자리를 박인호(朴寅浩)에게 인계하고 우이동에 은거, 수도에 힘쓰다가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이듬해 10월 병보석으로 출감 치료 중 별장 상춘원(常春園)에서 사망했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김대영 자작나무디자인스튜디오 대표·길고양이 사진 & 그림작가·2018 개인전 ‘STOP BUY, STOP BYE’
C : 010-5417-9814, E : blueanim@naver.com, H : www.instagram.com/lovefrom_cat



최세윤

1867.11.10–1916.08.09

의병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65]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거사(擧事)를 했으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천명(天命)이다. 죽음이 있을 따름이니 빨리 죽기를 원한다.

최세윤 선생이 경성감옥으로 이감될 때의 외침(山南義陣遺事)

1867년 경상북도 흥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공부했고, 20세가 되던 해부터 지방의 자제들을 모아 놓고 한문과 교양(敎養)을 가르쳤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운동에 참여하여 소모장으로 부하 3백 명을 이끌고 활약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300여 명을 이끌고 안동의병장 김도화(金道和) 의진에 합류하여 아장(亞將)에 임명되었다. 적을 공격하여 군세를 크게 떨쳤으나, 무기와 훈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적군이 대거 증원되자 후일을 기약하며 의진을 해산했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인재양성에 힘을 쏟았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던 중, 정환직(鄭煥直)과 정용기(鄭鏞基), 이한구(李韓久)가 산남의진(山南義陣)을 일으키자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신병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던 중 1908년 2월 정환직이 전사하자 의병대장을 맡게 되었다.

의병장이 된 이후 흥해와 청하, 청송, 영해, 영천, 의성 등지에서 활동하며 적을 습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고, 이에 모여든 의병이 5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의성에서 증원된 일본군과 싸우다 대패하여 의병을 해산하고 피신했지만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일본 헌병대에 압송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물속에 몸을 던졌으나 일본 헌병과 친일 주구 김영준(金永俊)이 급히 구출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11년 11월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소했으나, 공소가 기각되어 경성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수감된 뒤 형무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일체 거절하고 부인이 넣어주는 사식만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러던 중 1916년 8월 사식마저 거절하고 단식 항쟁으로 항거하다가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8년)을 추서하였다.

김민아 별바람이야기 대표·(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그래피디자인그룹 어울림 회원
C：010-3185-3505, E：byeolbaramstory@naver.com, H：blog.naver.com/byeolbaramstory



조인제

1917.03.18~1997.11.13

광복군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06]

독립운동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때 그 자리에 다시 왔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1991년 서안 광복군사령부를 다시 찾은 장소에서의 회고, 〈日帝와 싸운 先軫의 숨결 생생〉, 〈동아일보〉, 1991년 9월 5일자 27면.

1918년 경기도 양주에서 조소양(趙素昺)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망명했다.

1930년에 결성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참여했고, 1932년 1월 사천성(泗川城) 중경(重慶)의 동구대학(東丘大學)을 졸업했다. 그 뒤 낙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자 1934년 2월 입교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때부터 반성무라는 중국식 이름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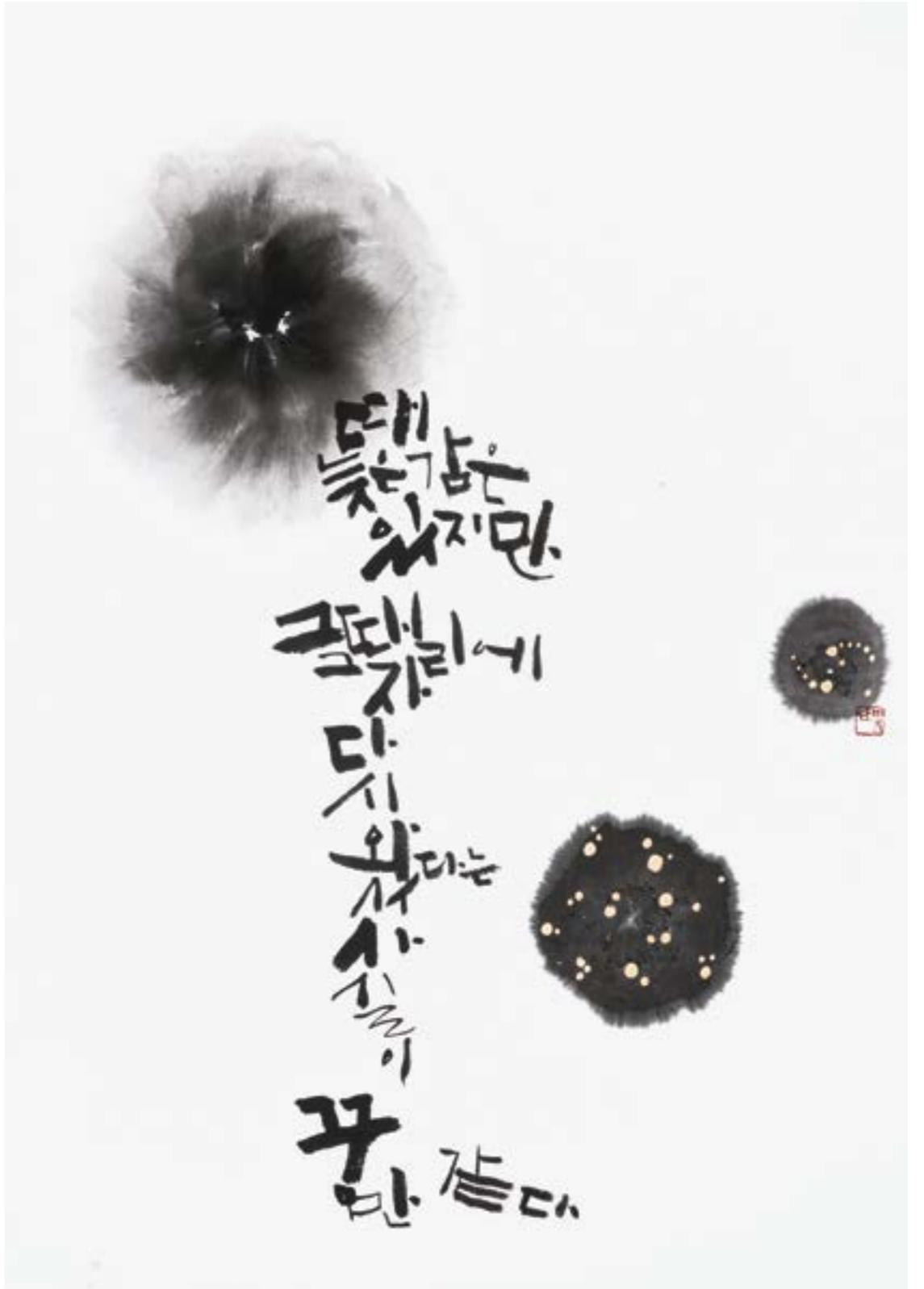
1935년부터 1938년까지 중국 중앙군관학교 낙양(洛陽) 분교 군관훈련반과 광둥(廣東) 분교 공병과에서 수학한 뒤, 1938년 중국 중앙군 제45사 대위로 임명받고 항일전쟁에 참가했다. 중국군에서 복무하던 중 삼촌 조시원(趙時元)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940년 서안(西安)에서 활동 중인 군사특파단(軍事特派團)에 합류했다. 군사특파단에 참여한 후 산서성(山西省)의 태원(太原), 임분(臨汾) 등지의 주요 도시로 나가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청년들을 모집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1940년 9월 중경(重慶)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부관(副官)에 임명되었고, 1940년 11월 광복군총사령부가 서안으로 이전한 후 지대를 편성하자 제1지대에 편성되어 간부로 활동했다.

1942년 10월 총사령부로 복귀한 후, 총사령부 서무과에 발령받았다. 이 후 인사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총사령부에서 근무했다. 1944년에는 총사령부에서 관할하고 있던 토교대(土橋隊)의 부대장에 임명되어 임시정부를 찾아온 한인청년들을 훈련하는 데 힘썼다. 1945년에는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설치한 간부훈련반을 졸업하고, 광복군 참령(參領)으로 활동했다.

1945년 해방 후 귀국한 뒤에는 광복회(光復會)에서 활동했다. 1997년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1963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김상옥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C : 010-9533-3362, E : ghk1108@naver.com



백운서원

1881.02.26-1921.08.28

대한군정서_건국훈장 독립장 [무후선열-043]

조국광복을 위해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한 동지들을 모두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살아서 조국과 동포를 대하리오. 차라리 이 목숨을 버려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1921년 8월 4세의 나이로 자진 순국하면서 남긴 유언

1881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났다. 18세까지 고향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경성의 성일(成一)사범학교를 졸업했다. 1911년 동만주 왕청현으로 망명하였다. 당시 두만강을 건너오는 의병 잔류 병력을 규합하여 중광단(重匡團)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때 무장투쟁과 함께 명동학교(明東學校)에서 청년들의 민족정신을 기르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1912년 단군을 모시는 대중교에 입교하여 3년 동안 교리 연구와 포교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젊은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켜 독립군으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1916년에는 총본사 전강(典講)으로 활동하며, 나철(羅喆)을 이어 영선(靈選)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1917년 대중교 총본사를 만주 화룡현으로 옮겨 만주와 러시아 지역 동포들의 포교활동을 펼쳤다.

1919년 여준(呂準)·유동열(柳東說)·김좌진(金佐鎭)·김동삼(金東三)·손일민(孫一民) 등 38인과 함께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때부터 계화(桂和) 등과 함께 중광단(重光團)을 근간으로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 정의단(正義團)을 조직하였다. 8월에는 현천목·김좌진·계화 등과 함께 정의단을 개편하여 군정부(軍政府)로 만들었다가 12월에 북로군정서(大韓軍政署)로 확대하여 총재에 취임하였다. 또한 왕청현 심리평에 사관양성소를 설치하여 김좌진을 소장으로 임명해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20년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일본군의 진격이 시작되자 부대를 북만주의 밀산현으로 이동시켰다.

1921년 밀산현으로 이동해 온 여러 독립군을 통합하여 3,500여명에 이르는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조직하고 총재에 추대되었다. 이해 6월 부대가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러시아군에 의해 독립군이 무장해체를 당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독립군 다수가 희생당하였다. 여기에 마적들의 습격으로 수많은 동포와 청년들이 희생당하면서 책임을 느껴 마을 뒷산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활약뿐 아니라 대중교 교리를 체계화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저서로는 『오대종지강연(五大宗旨講演)』, 『도해(圖解)』, 『신화강의(神話講義)』, 『삼문일답(三問一答)』, 『회삼경(會三經)』 등이 있다.

김석중 C : 010-2780-4689, E : careerwork97@naver.com, H : www.instagram.com/97_jjoong

조국광복을
위해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한 동지들을
모두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살아서
조국과 동포를
대하리오
차라리 이 목숨을
버려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백운서원

채기중

1873.10.07-1921.08.12
국내항일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37]

**옛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의로운 사람들과 사귀어 왔네,
죽겠노라 맹세가 하늘과 해를 뚫나니 오만가지 형벌인들 몸을 사리랴.**

채기중 선생이 옥중에서 남긴 시

1873년 경상북도 함창(咸昌)에서 채헌락(蔡獻洛)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배웠다.

1906년 풍기(豊基)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경술국치를 당했다. 이에 1913년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유창순(庾昌淳), 유장렬(柳璋烈), 한훈(韓焄) 등과 함께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을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구입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강병수(姜秉洙)와 함께 영월의 일본인 중석광(重石鑛)에 광부를 가장하고 잠입하여 자금탈취를 시도했고, 자산가를 대상으로 군자금 수합 활동을 전개했다. 이 무렵 박상진(朴尙鎭)을 만나 보다 적극적인 투쟁방법을 모색하여 친일부호의 응징과 무력적 방법에 의한 군자금 수합을 계획했다. 이에 1915년 7월 15일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조직하고 경상도 지역 책임자를 맡았다.

1916년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이 무기구입을 위해 만주로 다녀오던 중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1917년 초 김좌진(金佐鎭) 등의 주요 인사들이 만주로 망명하자 조직이 약화되었다. 이에 예산(禮山)의 김한중(金漢鍾)을 가입시켜 조직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

1917년 9월에는 강순필(姜順必), 유창순과 함께 경북 칠곡의 친일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하는 거사를 지휘하여 성공시켰다. 장승원은 구한말에 허위(許蕙)의 도움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했지만, 의병자금으로 약속한 20만원의 현금을 지키지 않은 인물로 친일행각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대한광복회는 조직이 일본경찰에게 발각되었다. 상해(上海)로 망명하기 위해 계획하던 중 대한광복회의 주요 인물들과 함께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고, 1921년 7월 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3년)을 추서하였다.

김소연 표시근 캘리그래피 기획전 2018 '사랑'전 참여·2018년 캘리콘서트 참여·국립서울현충원 '6·25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전 참여
C : 010-8960-6794, E : sawable@nate.com, H : www.instagram.com/flover6235



노백린

1875.01.10–1926.01.22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요인-9]

바람과 눈이 몰아쳐 영웅의 칼을 울리고 달과 별이 진을 친 듯 하늘이 벌려 있구나. 삼군이 한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나라의 부끄러움이 어느새 십년이 되었네. (風雲鳴確劍 月星開陣障 三軍不復起 國恥十年長)

노백린 선생의 우국시 〈國恥十年(국치십년)〉

1875년 1월 황해도 송화(松禾)군 풍해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건장한 체격과 호탕한 성격으로 무인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자랐다. 1895년 대한제국 정부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 경응의숙(慶應義塾), 성성학교(成城學校)를 졸업한 뒤 일본 육군사관학교 11기생으로 입학하여 신식 군사학을 배우게 되었다.

1900년 10월 귀국하여 육군참위에 임관한 그는 한국무관학교 보병과 교관이 되어 신식군대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후 육군무관학교장, 헌병대장, 육군 연성학교장 등을 역임했으나,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어 군복을 벗게 되었다. 이후 그는 안창호(安昌浩), 양기탁(梁起鐸)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며 구국운동의 길에 뛰어들었다.

1915년 중국 상해를 거쳐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하와이 오아후에서 박용만과 함께 국민군단을 창설하며 본격적으로 독립군 양성에 나섰다. 이후 19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시보(太平洋時報)〉를 창간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하여 한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에 선임되었다. 당시 미주에 있던 그는 서신과 인편을 통해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며 군사정책의 대강을 세워갔다. 1920년 1월 24일 공포된 「군무부포고」 제1호에서는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을 통한 광복군 육성을 공표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향후 전쟁에서 육군보다 공군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행사 양성을 계획하였다. 군무총장으로서 미주 한인들에게 신념과 계획을 설파하였고, 이에 감복한 미주 한인동포사회는 성심성의껏 그를 도왔다. 그 결과 1920년 2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방 윌로우스에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였다. 그가 창설한 비행사 양성소는 독립운동사상 최초로 공군력을 통해 독립전쟁을 준비한 것이자, 한국 역사상 첫 공군학교였다.

1921년 중국 상해에 부임한 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의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2년 임시정부가 내분으로 위기를 겪던 때에 그는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국민대표회의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줄곧 민족의 통일과 독립전쟁을 부르짖던 그는 1926년 1월 22일 자병으로 운명하였다. 이후 70여 년간 중국에 머물던 유해는 1993년 고국으로 돌아와 동작동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김수미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그래피그룹 묵화연 전속 작가·춘천 풀잎, 롯데문화센터 캘리그래피강사
C : 010-2363-2180, E : kbs60088@naver.com

오영선

1886.04.13~1939.03.10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임시정부요인-17]

하늘에 달을 만큼 큰 치욕을 국내에서는 모든 형제자매의 흘러내린 붉은 피가 얼마가 되던지 씻어낸다면 우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피를 흘려 오늘날의 국치를 씻어내기를 희망한다.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 한민학교에서 열린 기념회에서

1886년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났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일제가 1907년 8월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무관학교도 사실상 폐지되어 그는 대한제국 장교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도쿄물리학교(현 도쿄이과대학)에 입학했다. 일본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고국으로 돌아온 오영선은 당시 이동휘가 세운 개성 읍내 사립 보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비밀 결사였던 신민회에 가입하여 국권회복운동에 참가했다. 1909년 그는 이동휘의 초빙을 받아 캐나다 선교회 그리어슨(Robert Grierson) 선교사가 세운 함경북도 성진군 협신중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1911년 초 북간도로 망명했다. 그는 북간도에서 간민교육회가 1911년 3월 연결한 국자가에 세운 광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14년 2월 간도 한인의 자치기관인 간민회 의원에 선출되어 동포들의 민족의식의 고취와 단결을 강조하는 등 간도 한인의 권익 옹호에도 적극 나섰다.

1914년 연결현에서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 나자구(羅子溝)의 대전학교(大甸學校, 일명 東林武官學校)로 활동지를 옮긴 그는 교관으로서 한인 청년들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1918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대한국민의회 선전부장 이동휘의 비서로 활동했다. 그리고 이동휘가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활동하자 함께 임시정부에 투신하였다. 1920년 2월 임시의정원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되었고, 9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에 임명되어 국무총리를 보좌했다. 상해에서 그는 임시의정원과 국무원으로 활동하는 외에도 대한교민단, 대한적십자회 등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1924년 12월 박은식을 국무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조직되고 오영선은 임시의정원에서 법무총장으로 선출되어 본격적인 정국쇄신운동에 나섰다. 1926년 12월 상해에서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총진회가 결성되었을때 그는 집행위원이 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통합과 위기 수습에 힘쓴 그는 국무원 외무장, 군무장 등을 역임했다.

1931년부터 오랜 망명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상해에서 병으로 요양하다가 1939년 3월 10일 사망했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연주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캘리그래피부문 입선·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캘리그래피부문 우수상·명인명가전(인사동 한국미술관)
C : 010-4876-0212, E : musicana@naver.com



이상설

1870.12.07~1917.03.02

만주, 노령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08]

**조국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니,
내 몸과 유품을 모두 불태워 바다에 뿌리고 제사도 지내지 마라.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1917년 3월 2일 이상설 선생의 유언

본관 경주(慶州), 호 보재(溥齋), 본명 순오(舜五), 충북 진천(鎭川)군 덕산면에서 출생하였다. 동부승지였던 이용우의 양자로 입적하여 서울로 이주하였으며 양명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신학문을 접하고 영어·러시아어·법률·수학 등을 공부하였고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명석했다고 전해진다.

1894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여러 요직을 거쳐 1904년 보안회(保安會) 후신인 대한협동회(大韓協同會) 회장이 되었고, 1905년 법무협판(法部協辦)·의정부참찬(參贊)을 지냈다. 그 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趙秉世) 등과 협의, 조약의 무효를 상소하고 돌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실패에 그쳤다. 이때 이상설이 자결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김구가 『백범일지』에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국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자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1906년 이동녕(李東寧) 등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노우키에프스크[煙秋]로 이주, 원동임야회사(遠東林野會社)를 세우고, 간도(間島) 룡징촌[龍井村]으로 가서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하였다. 조선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자녀의 교육과 항일민족정신 고취에 노력하였다. 당시 룡징촌[龍井村]은 항일의식을 가진 조선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독립운동기지로 역할하였다. 이상설은 용정을 중심으로 최초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적인 인물로 활약했다.

1907년 고종의 밀지(密旨)를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李儔)·이위중(李瑋鍾)과 함께 참석하였고,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전세계에 알리려 하였으나 일본의 계략으로 참석을 거부당하였다. 이 때 이준은 자결을 단행, 세계를 놀라게 하였는데, 본국에서는 일본의 압력으로 궐석재판(謁席裁判)이 진행되고 이상설에게는 사형이, 이준과 이위중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그래서 귀국을 단념하고 영국·미국을 거쳐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유인석(柳麟錫) 등과 성명회(聲鳴會)를 조직, 국권침탈의 부당성을 통박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발송하는 등 세계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일본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 관헌에게 붙잡혀 투옥되었다. 이듬해 석방되어 이동녕 등과 권업회(勸業會)를 조직하고, 『권업보(勸業報)』, 『해조신문(海潮新聞)』 등을 발행,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김은옥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콘서트외 전시 다수 참여
C : 010-2517-7103, E : keo318@hanmail.net



정찬조

1895.04.24-1973.12.02

평남도청 투탄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53]

개인의 부귀(富貴)보다 국가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남긴 정찬조 선생의 어록

1895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정기환(鄭基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3년 평양승실중학을 졸업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시위를 주도한 뒤, 그 해 10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만주로 건너가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 가입했다.

1920년 1월 의용군 경리원 겸 소모원에 임명되어 국내로 특파되었다. 평양에서 모험단(冒險團)을 조직하고 평남도청과 평양부청, 경찰서 등을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이근수(李根洙), 강성리(康聖利), 백기환(白基煥) 등과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거사 직전인 5월 9일 정보를 탐지한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평양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중 도망쳤으나, 다시 체포되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특파원 정비장(鄭飛將)체포'라고 크게 보도되었다.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월 29일을 기하여 옥중에서 3·1절 기념 독립만세를 주도하여 불렀다. 이 일로 인하여 무수한 악형을 당했고, 이근수와 이학근(李學根)은 매 맞아 옥사했다.

1963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김정옥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캘리콘서트외 전시 다수 참여
E : hayangbyul@hanmail.net

정서승

1897.01.03~1966.09.26
3·1운동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04]

모두 힘을 모아 맨주먹을 가지고 독립을 찾자는 생각뿐이었다.
마치 의병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뭉쳐 있었다.

정서승, <쌍봉산의 의병들>, <신동아> 1965.3, 80~82쪽.

1897년 경기도 수원(지금의 화성)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차병한(車炳漢), 장제덕(張濟德), 차희식(車喜植) 등과 함께 군내 장안면, 우정면에서 대규모 만세시위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4월 3일 우정면 조암(朝巖)장터에서 2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시작하였으며,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돌며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시위 군중들을 인솔하여 화수리주재소를 습격하고 불을 질렀다. 이 때 순사부장 가와바타[川瑞豊太郎]가 시위군중에게 총을 쏘고 도주하자 차희식 등과 더불어 가와바타를 쫓아가 돌로 쳐죽이고 일본 헌병 2명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 일제 경찰 수십 명이 몰려와 주변 10여 부락에 불을 지르고, 일대를 수색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 27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후 내란죄로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경성고등법원에 기소, 송치되었으며 경성지방법원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진아 심취글씨 소속 작가 · 2013 캘리그래피 전시회 '다들 잘지내나요', '환장전' · 2014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실 캘리그래피 작가과정 이수
C : 010-5796-4096, E : hijinada@naver.com, H : www.jinada.co.kr

모두 힘을 모아 맨주먹을 가지고 독립을 찾자는 생각뿐이었다.

정서승의
맨주먹
애국심



임국정

1894.03.25(음력)-1921.08.25(양력)

군자금모집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32]

죽기를 싫어하고 살려함이 인생인데 목숨이 끊어질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익힌 것 애국 뿐이라 애국 외길 걸었네 교수대 최후 길이 그 얼마나 쓰사렸소 원하던 조국광복 이 강산도 즐기것만 북간도 망명선배 피를 뿌려 길러내신 장할사 삼의사묘 백유이며 혈죽이다 사후에 피는 민족의 꽃 길이 빛나리

도인중, 〈林國楨, 尹俊熙, 韓相浩 三義士三十八周忌에〉, 〈동아일보〉 1959.9.17.

1894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 후 북간도로 건너가 윤준희(尹俊熙), 한상호(韓相浩), 최이봉(崔以鵬) 등과 더불어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철혈광복단(鐵血光復團)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철혈광복단이 당시 남만주에 본거를 두고 있던 북로군정서에 가입하자 북로군정서의 특파원으로 윤준희, 한상호, 최이봉 등과 함께 김하석(金河錫)의 제안으로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용정출장소로 송금하는 현금을 탈취하여 군자금에 쓰기로 계획했다. 조선은행 회령지점 은행원 전홍섭(全弘燮)으로부터 1920년 1월 4~5일경 현금 15만 원을 용정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는 연락이 오자 임국정은 윤준희, 최이봉, 한상호와 함께 현금호송차에서 현금 탈취에 성공하였다. 이후 김하석과 함께 1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으로 들어가서 체코슬로바키아제 무기를 다량으로 구입해 북로군정서에 전달했다. 한편 서성권(徐成權)을 회장으로 하는 간도청년회단의 운동부장으로 강백규(姜白奎), 이광(李光) 등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1920년 12월 일제 밀정으로 일하던 엄인섭(嚴仁燮)의 밀고로 한준희, 한상호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제 헌병에 체포되어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창목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그래피그룹 묵화연 전속 작가·대한민국소품서예대전 초대작가
C : 010-8919-4281



1889.03.18(음력)~1930.05.17(양력)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85]

‘이상촌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재민한인의 경제적향상과 안정 도모로 독립운동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던 이탁 선생은 지금도 외치고 있다.
“나는 죽어도 혼은 살아서 황천에서 독립을 도울 것이니 독립을 위해서라면 두려울 것이 없도다.”

〈이탁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헌시 중에서

1889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났다. 1908년 평양 대성학교 재학 중 신민회에 가입하였다. 국치 전후 만주로 건너가 신흥강습소 설립에 참여하고, 1911년 가산을 정리하여 독립군자금으로 썼다. 1912년 신흥학교유지회(新興學校維持會)를 조직하여 신흥학교 운영기금을 모금하였으며, 1913년 일신학교(日新學校) 교장이 되어 후진을 양성하였다.

1917년 의병장 이진룡(李鎭龍)이 잡히자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독립군 부대로 편성하였다. 1919년 ‘매국 7적’ 처단을 위해 ‘27결사대’를 조직하고, 대장을 맡아 경성에 몰래 들어갔다. 3월 광무황제의 국장행렬이 지나갈 때 매국노 처단에 실패하며 ‘7적 성토문’과 격문만 배포한 뒤 만주로 돌아갔다. 이후 한족회(韓族會) 간부로 활동하였고, 11월 관전현(寬甸縣)에서 59개 독립운동단체가 모여 만든 대한청년단연합회의 교육부장이 되었다. 또한 광복군총영 참모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동삼성 외교위원부 위원장을 맡으면서 7월 미국 의원단이 조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동진(吳東振)과 협의, 3개 결사대를 국내에 보내 항일무장투쟁을 벌이게 하였다. 그러나 파견된 동지들이 일제 경찰에 붙잡히면서 궤석재판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21년 신익희(申翼熙) 등과 함께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를 조직하고 문서과 부주임이 되어 한·중 공동투쟁을 위하여 노력했다. 1922년 국민대표대회준비회(國民代表大會籌備會) 서기로서 대회를 준비하였으며, 재정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독립운동단체 대표자들로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만들어 의견 조정에 힘썼다.

1926년 만주 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개간사업을 펼치고, 만주 각지의 단체를 통합하자는 3부 통일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29년 상해 임시의정원 만주, 간도지방 대표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춘여 늘품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캘리그래피 그룹전 라운제나 참여·2017,2018 캘리콘서트 참여
C : 010-2110-7872, E : chun6406@naver.com, H : www.instagram.com/lora7872



현순

1880.02.28–1968.07.11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63]

**“내 육신이 한 줌 재가 되더라도
조국의 광복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 없다.”**

〈양로원서 숨진 호의사의 일대기〉중에서

1880년 서울에서 현제창(玄濟淸)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공부했고, 1894년에 설립된 관립영여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관립영여학교를 그만두고, 1899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 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1902년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907년 한국으로 귀국한 후 교육에 힘쓰는 한편, 1909년 목사안수를 받고 기독교계에서 활동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한편, 평화회의의 주창자인 미국 대통령 윌슨(T.W.Wilson)과 평화회의에 한국 독립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독립청원서를 보내기 위해 중국 상해(上海)로 밀파되었다.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총무로 활동했다. 그 해 4월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의결되었을 때, 외무차장으로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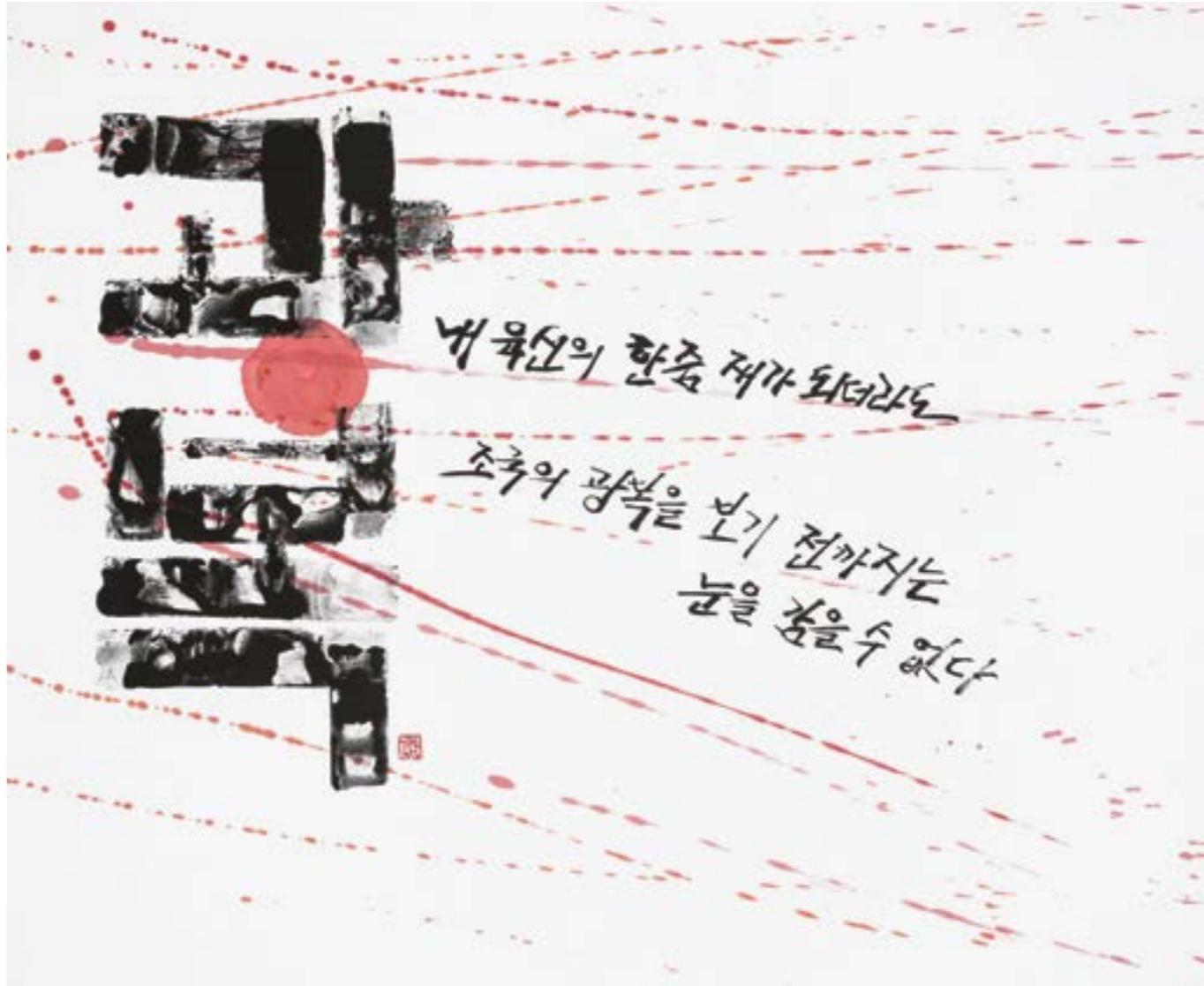
같은 해 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임명되었고, 9월에는 만주·노령 지역에 임시정부 특사로 파견되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한기독교연합회 대표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제연맹회의에 제출하고 한국의 독립을 진정하기도 했다.

1920년 4월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위원으로 안현경(安顯景)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구미위원회 위원장 서리로서 외교활동에 힘썼다. 그러나 1921년 서재필(徐載弼) 등과 임시정부의 외교대표 자격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 사임했다.

1922년 5월 임시정부가 내분에 빠지자, 상해로 돌아와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에 가입해 독립운동계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내부 대립이 심해지자 1923년 하와이로 돌아왔다.

이후 주로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임시정부 지원에 진력했다. 1940년 교회 일선에서 은퇴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1968년 LA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유해는 1975년 송환되어 서울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1963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김현성 가수 겸 작곡가·대표작곡_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KBS 아름다운 노랫말 수상
C : 010-5436-6766, E : dokdosong@hanmail.net

안창호

1878.11.09–1938.03.10

독립운동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할 작정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안창호 선생의 답

호는 도산(島山)으로 평안남도 강서(江西)에서 출생했다. 한학을 배우다가 서당 선배로부터 신식학문에 눈을 뜨고,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던 중 청일전쟁(淸日戰爭)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깨달은 바 있어 1895년 상경, 구세학당(救世學堂)에 들어가 그리스도교도가 되었다.

1897년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가입하고 평양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쾌재정(快哉亭)에서 개최하여 악관의 몸으로 많은 청중에게 감동을 안겨준 연설을 하였다. 훗날 종교가이며 교육자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승훈(李昇薰)은 이 연설에 감명을 받고 독립운동의 의지를 굳혔다고 술회할 정도였다.

190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하면서 초등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을 위해 한인공동협회(韓人共同協會)를 만들어 『공립신보(共立新報)』를 발간하였다.

그 후 을사조약(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06년 귀국, 1907년 이갑(李甲)·양기탁(梁起鐸)·신채호(申采浩) 등과 함께 항일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를 조직,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를 기관지로 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0년에는 신민회 간부들과 함께 개성헌병대에서 3개월간 곤육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1909년에 있었던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 후 시베리아를 거쳐 1911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105인사건'으로 신민회·청년학우회가 해체되자 1913년 흥사단(興士團)을 조직하였다. 3·1운동 직후 상하이[上海]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가하여 내무총장·국무총리대리·노동총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신문(獨立新聞)』을 창간하였다. 1921년 임시정부가 내부분열을 일으키자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 조직을 강화하였다.

1926년 다시 상하이로 가서 흩어진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상촌(理想村) 건설에 뜻을 두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실패하고, 1932년 윤봉길(尹奉吉)의 홍커우공원(虹口公園) 폭탄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출옥하여 휴양 중 동우회(同友會)사건으로 재투옥되고, 1938년 병으로 보석되어 휴양 중 사망하였다.

김현중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전문위원 · 한국레터링예술협회 이사 · 비주얼 스튜디오 “Stolino” 소속 작가
C : 010-3126-6871, E : lino111@naver.com, H : www.instagram.com/linoiscalligraphy



이종일

1858.11.06(음력)–1925.07.13(양력)

3·1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15]

오늘에 이르러 봉건의식을 벗어나 '신촌정신'을 특별히 강조하는 뜻은 먼저 '정신을 개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이다. (至於今世, 脫封建意識, 特立新村精神 先改精神, 則後隨物質之農盛也)

이종일, <목암비망록> 중에서

1858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났다.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한학을 공부하고, 김윤식(金允植), 이상재(李尙在) 등으로부터 개화사상을 경험하였다. 1873년(고종 10) 문과에 급제하고, 1882년 수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같은 해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에 임명되었다.

1894년 보성보통학교(普成普通學校) 교장이 된 후, 7개교 교장을 맡았다. 독립협회, 청년애국회에 관여하는 한편, 유영석(柳永錫) 등과 함께 대한제국민력회(大韓帝國民力會)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다. 이 단체는 주말마다 실학사상, 동학사상, 동학교리 등을 강의했으며, 국권수호와 이권 양여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경성신문』창간에 관여하고, 순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으로 취임했다. 『황성신문』, 『만세보』와 대한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민보』등에도 관여했으며, 필화사건으로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하였다.

1905년 12월 천도교에 입교 후에는 『천도교회월보』 월보과장 겸 천도교 직영인쇄소인 보성사(普成社)의 사장을 맡았다. 1906년 9월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평의원이자 1907년 그 후신으로 조직된 대한협회에서 회보의 편집, 발행을 담당했으며,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에서도 활동했다. 1912년에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1904년의 갑진개화운동에 이어 갑인년인 1914년에 대대적인 민중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하고, 천도교의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으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1922년 3월 1일 천도교 단독으로 제2의 3. 1운동을 계획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조선국문연구회 회장으로 한글맞춤법을 연구하는 한편 『한국독립비사』를 집필했으나 일본경찰에게 압수되었다. 1925년 숨을 거두기 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정리하여 『목암비망록』으로 남겼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김희경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캘리그래피그룹 목화연 전속 작가 · 춘천시 평생학습관 캘리그래피 강사
C : 010-8910-1110, E : hhk8910@naver.com, H : www.instagram.com/kkoldam_hhk

기산도

1878.10.16(음력)-1928.12.04(양력)
의열투쟁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74]

너희 5적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어찌 나 혼자뿐이겠는가?
내가 다만 너를 모해(謀害)하는 일이 은밀하지 못하여, 어찌 이렇게 탄로되었
는지 한스러울 뿐이다. 오직 5적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시일을
지연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 성사되고 안되는 것은 천명(天命)에 달
려 있는 것이니 어찌 물어 볼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역적들은 오늘 나를 흔쾌히 죽여라

〈梅泉野錄〉 5. 光武九年 乙巳(屬)(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1, 1971년판, p.370)

1878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다. 기삼연(奇參衍)의 종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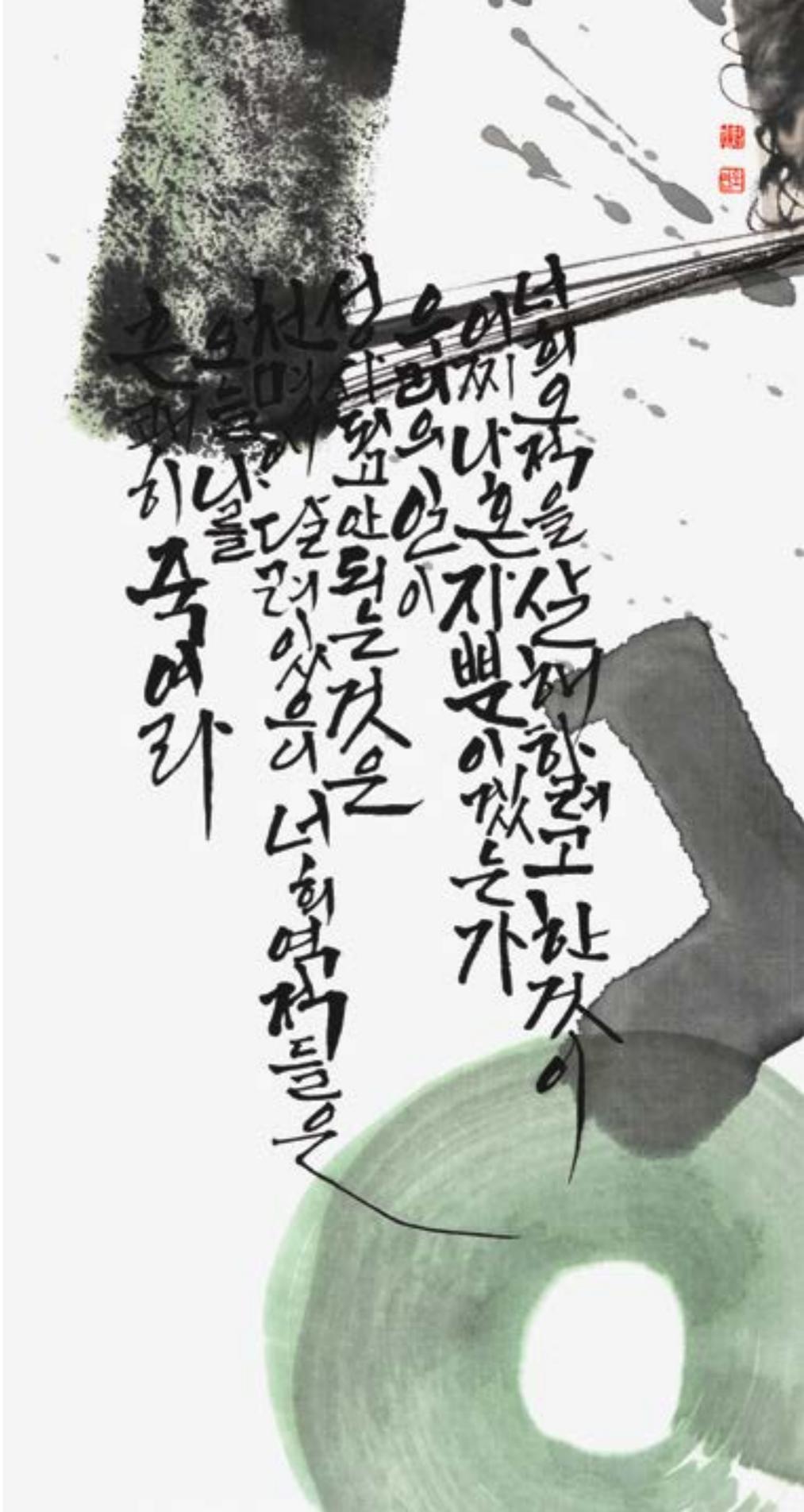
기독교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결사대 '자강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을사5적을 처단하고자 하였다. 1905년(광무 9) 11월 박종섭(朴宗燮)·박경하(朴敬夏) 등과 저격무
기를 구입한 뒤, 손성원(孫聖元)·박용현(朴鎔鉉)·김필현(金弼鉉)·이태화(李太華) 등을 파견, 적의 동정
을 살피게 하였다.

1906년 2월 16일 새벽 1시 그는 이상철 등과 함께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의 후실로 몰래 침입했다. 그리
고 이근택을 칼로 여러 번 찔렀으나, 이근택의 머슴과 경위원(警衛院) 순검(巡檢) 등이 몰려와서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러나 경무고문 마루야마(丸山重俊)의 부하가 결사대 본부인 한성모(韓聖模)의
집을 습격하여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1920년 상하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기 위한 일을 도모하다 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
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뒤 부상한 다리를 이끌고 일생을 유랑하다 전남 장흥
에서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서거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희정 화연글씨 소속·20회 강남서예문인화대전 특선·2018 대국민화합 통일을 위한 캘리그라피 대전 입선·2019 한글일일달력전 참가
C : 010-8025-6810, E : yshkim8720@naver.com



이진록

1879-1918.05.01
의병_건국훈장 독립장 [무후선열-070]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 국부를 위협하고, 우리 강토를 빼앗고, 우리 백성을 노예로 삼았으니 고금산하에 반도패리함이 너희 같은 자가 없거늘 어찌 나를 반역이라 하느냐. 왜적을 토멸하여 국권을 찾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1918년 순국 전 평양감옥에서 일본 경찰을 꾸짖으면 한 말. 독립기념관 어록비

황해도 평산 출신이다. 의암 유인석(柳麟錫)의 문인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용기가 남보다 뛰어났다.

1905년 국권회복을 위해 박정빈(朴正彬)·조맹선(趙孟善)·신준빈(申俊彬)·신정희(申貞熙)·한정만(韓貞萬)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평산에서 거의하였다. 이때 선봉장으로 평산, 경의선 계정, 예성강 연안 일대에서 치열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09년 5월 연기우(延基羽)·김수민(金秀敏)·하상태(河相兌)·한정만·이인순(李仁淳)·정용대(鄭用大)와 함께 철원·평강, 평산·백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일본군이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는 중에도 군자금 모집과 각종 무기 매입, 병력을 증강시켰다. 1910년에는 계정과 잠성 사이의 경의선 철로를 파괴하고, 평산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10명의 부하가 체포되었다. 이후 개성과 해주, 서흥 등지에서 5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100여 명의 의병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1911년 황해도 해주·평산·곡산 일대에서 5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250명의 부하가 체포당하면서 의병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조맹선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에서 박장호(朴長浩)·윤세복(尹世復)·조맹선·홍범도(洪範圖) 등과 함께 장백·무송현 등지에 근거를 두고 포수단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에 매진하였다. 1916년 9월 조맹선·황봉운(黃鳳雲)·황봉신(黃鳳信)·김원섭(金元燮)·김일(金鎰)·김효선(金孝善)·한치현(韓致賢) 등과 함께 영변군 팔원면 용성동에 잠복하여 송금마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현금마차가 아니어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복귀하였다.

1918년 1월에는 조맹선·황봉신·차도선(車道善) 등과 함께 비밀결사단체인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하였다.

1919년 만주로 망명해 오는 청년들을 규합하여 항일사상 고취와 군사훈련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만주 일대에 분산되어 있던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하여 국내침공을 감행하기 위한 대규모 기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 밀정 임곡(林谷)의 밀고로 관전현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평양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받아 평양감옥에서 순국하였다.

남은아 심뽀글씨디자인연구소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제2회 심뽀글씨 정기회원전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다'전 외 다수 전시 참여
C : 010-3880-1538, E : eanam74@naver.com, H : blog.naver.com/eanam74



유학이주

1917.12.14-1986.04.15

광복군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9]

국토통일 성업을 완수할 때가 오면 외견(外見)은 비록 노병이되 계급 불요(不要),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사랑하는 나의 1군에 복귀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싸울 각오가 돼 있습니다.

1967년 8월 유해준 소장이 1군사령부에서 말한 전역사

1917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났다. 함덕보통학교와 예산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 중국 봉천(奉天)과 상해(上海)로 망명했다.

1936년 상해에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에 가입했으나, 이듬해 탈당하고 항주(杭州)로 가서 조선독립당(朝鮮獨立黨)에 입당했다. 1937년 중국 광둥중산대학(廣東中山大學)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 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건을 위해 다시 남경으로 돌아와 한국독립당에 복귀하고, 항주 잔류인원의 후송 작업을 수행했다.

1937년 중국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성도(成都)에서 졸업했다. 그 뒤 한국독립당의 명령에 따라 중경(重慶)으로 이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복귀했다.

1940년 2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전속 부관직에 임명되어 광복군 창설작업에 참여했다. 1940년 후반 서안(西安)에 도착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의 조성환(曹成煥), 황학수(黃學秀) 등 10여 명과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 대장 나월환(羅月煥) 등과 합류하고 함께 활동했다. 1941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한국광복군 제5지대로 개편되자 광복군 전방사령부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1942년 한국광복군 제3지대 간부로 배속되어 고운기(高雲起), 지달수(池達洙) 등과 함께 수원성(綏遠省)으로 가서 초모공작활동을 전개했다.

1943년 최진방 중국 각 부대를 순방하고, 적후공작 거점이 될 신민보(新民堡) 근처의 현(縣) 정부 소재지로 이동했다. 현정부 내에 배속되어 일본의 점령지구인 포두(包頭)에 잠입하기로 하고 중국 위군(僞軍)에 위장 입대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포섭했던 최준(崔俊)이 일본 헌병대에 자수해 징모분처의 간부들과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다. 일본 큐슈로 이송된 후 고구라(小倉)재판소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육군으로 활동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77년)을 수여하였다.

박상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및 동 광고홍보대학원·(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이사·동원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C : 010-5202-8395, E : sang8395@tw.ac.kr, H : www.instagram.com/park.sangkyu8395



나석주

1892.02.04~1926.12.28

동양척식투탄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04]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1926년 12월 28일 나석주 의사가 경성 시내에서 일본 경찰들의 포위망 속에 홀로 격전을 치르며 외친 유언

1892년 황해도 재령에서 나병헌(羅秉獻)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신민회(新民會)의 서북지방 책임자인 김구(金九)가 설립한 양산학교(楊山學校)를 졸업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 해 3월 하순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의 부호 최병항(崔秉恒)의 집에 김덕영(金德永), 최호준(崔皓俊), 최세욱(崔世郁), 박정손(朴正孫), 이시태(李時泰)와 함께 군자금을 요구했다. 최병항은 복면을 쓴 무장강도단이 나석주를 비롯한 청년들임을 알아 채고, 그 뜻에 동의하여 630원을 선뜻 군자금으로 내주었다. 이후 4월에도 동지들과 함께 황해도 안악군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했다.

1920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 있던 김구를 만나 지도를 받으며 독립운동을 이어나 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원과 의정원(議政院)에서 근무했다. 1923년 하남성(河南省)의 중국 육군군 관단강습소를 졸업하고 중국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1925년 상해로 돌아왔다. 1926년 유자명(柳子明)의 소개로 천진(天津)에서 김원봉(金元鳳)을 만나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했다.

1926년 5월 천진에 체류 중이던 김창숙(金昌淑)은 김구와 함께 ‘일정기관(日政機關)과 친일부호를 박멸 하여 국내 동포의 잠자는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는 독립운동 방략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김구는 이를 실행할 인물로 그를 추천했고, 식산은행(殖産銀行)과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 폭파 거행을 실행할 이 로 결정되었다. 그 해 12월 26일 마중덕(馬中德)이란 가명의 중국인으로 위장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돌아왔다. 12월 28일 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식산은행으로 들어가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되었다. 이에 다시 동양척식회사로 가 1층에서 조선부업협회 잡지기자 고목길강(高木吉江)을 사살했다. 곧이어 2층에서 토 지개발부 기술과장실로 들어가 일본인 2명을 저격하고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되었다. 황급히 출동한 일본 경찰대와 기마대의 추격을 받고 황금정(黃金町, 지금의 을지로1가) 쪽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도주했다. 그러나 황금정 2점목에 이르러 일본 경찰들의 포위망이 완전히 좁혀지자, 운집한 군중들을 향해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고 외치고, 권총 세발알을 자신의 가슴에 쏘 고 순국했다. 12월 31일 장남 나응섭(羅應燮)이 사진으로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유해를 인도받아 안장했다.

1962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박선영 표시근캘리그래피 기획전시 2018 '사랑'전 참여· 제7회 캘리콘서트 '그때 그사람'전 참여
C : 010-8803-6471, E : san6471@naver.com



1864.05.08–1940.02.24

3·1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05]

아! 사랑은 끊어졌다. 인도(人道)는 멸망되었다. 온 인류는 지금 거짓의 탈을 쓰고 약탈의 창을 들었도다. (중략)

약육강식을 유일의 진리로 표방하고 '강권 즉 도덕'임을 공공연히 부르짖는 현세이다. 아육의 불길은 우리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살벌의 흥기는 우리 눈사에서 쇠칠뿐. 사랑이 그 무엇이며 인도가 그 어디 있으랴?

백용성, <창간사>, 《불일(佛日)》, 1924년

1864년 전라북도 장수에서 백남현의 아들로 태어났다. 속명은 상규(相奎)이며, 법명은 진종(震鍾), 법호는 용성(龍城)이다. 1870년부터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수학하고, 1877년 꿈속에서 부처를 만나고 남원 교룡산성에 있던 덕밀암(德密庵)을 찾아가 출가하려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879년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극락암으로 출가해 화월화상(華月和尙)을 은사로 불교에 입문했다. 이후 40세 남짓까지 전국의 명승 대찰(大刹)을 찾아다니며 수행하며 불법을 깨우쳤다. 1907년 9월 중국으로 건너가 약 2년 간 북경(北京) 관음사, 통주 화엄사, 숭산(崇山) 소림사 등의 불교 성지를 순례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이듬해 대중불교와 호국불교로서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잇기 위해 상경했다. 그 해 4월 대각사(大覺寺)를 개창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일본 불교의 침투로 왜색화 되고 있던 기존 불교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각교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9년 한용운(韓龍雲)의 권유로 민족대표 33인에 불교 대표로 참가해 3·1운동에 앞장섰다. 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10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3월 출옥 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불경의 한글화 작업과 각종 포교서 저술에 힘썼다.

이와 함께 사원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민족과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 선농일치(禪農一致)의 불교 운동을 전개했다. 1922년 중국 만주 연길현 명월촌과 봉년촌에 농지를 마련해 대각사 선농당(禪農堂)을 설치했다. 국내에서도 경남 함양군 백운산에 화과원(華果園)을 개설해 민족경제의 회복과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1924년 박한영 등과 함께 불교 잡지 "불일(佛日)"을 발행하고, 불교 대중화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에 힘썼다. 1926년 5월과 9월에는 조선총독부에 건백서(建白書)를 제출해 일제의 불교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불교계의 정화운동에 힘썼다. 1940년 2월 24일 77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박선희 한점그리기 소속 작가·한점그리기 회원전 '벗으로 부르는 노래'·충무공 승모 서화대전 문인화·캘리그래피 입선
E : she20708@naver.com, H : blog.naver.com/she20708



유여대

1878.11.26(음력)~1937.01.13(양력)
3·1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11]

조선민족이 자유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을 희망한다.

〈유여대 신문조서〉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2 - 3·1운동 V 에서 재인용)

187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사숙(私塾)에서 한문을 배우고, 1895년 서당을 세워 아동들을 가르쳤다. 1900년 의주에 양실학교(養實學校)를 설립했다. 1904년 의주서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휘트모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 뒤 전도사가 되어 송장면(松長面), 수진면(水鎭面) 등에서 전도활동을 했다.

1909년 장로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목사가 되어 의주동교회 담임을 맡아 활동했다. 아학을 개설하여 문명퇴치운동 등 민중계몽에 힘썼다.

1919년 2월 10일 선천(宣川)에 갔다가 이승훈(李昇薰), 김병조(金秉祚), 이명룡(李明龍) 등을 만나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서명하기로 약속하고, 이승훈에게 도장을 맡겼다. 그는 경성의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의주의 만세 시위를 담당하기로 했다. 의주로 돌아와 정명채(鄭明采), 김두칠(金斗七)에게 3·1운동에 대하여 설명한 뒤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에 대한 찬성을 얻고, 그 외 20여 명의 협조를 더 얻어 준비를 진행했다. 3월 1일 기독교 신자들과 양실학교 학생 등 700~800여 명을 모아 독립선언서를 배포,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다시 의주동교회에 시무하면서 3.1운동으로 폐교되었던 양실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며 기부금을 모집하고, 육영사업에 힘쓰다 1931년 백마교회로 옮겼다. 병으로 인해 백마교회를 사임한 후에는 글을 쓰는데 힘썼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박수진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전문위원·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캘리그래피 강사
C : 010-3342-7682, E : loveparksj@naver.com, H : www.instagram.com/wonshimpsj



이중언

1850.03.13~1910.07.24

순절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16]

한 치 흔들림 없이 빼앗긴 내 나라 위해 오직 이 한 목숨 던지노라.

독립기념관 동언 이중언 선생 어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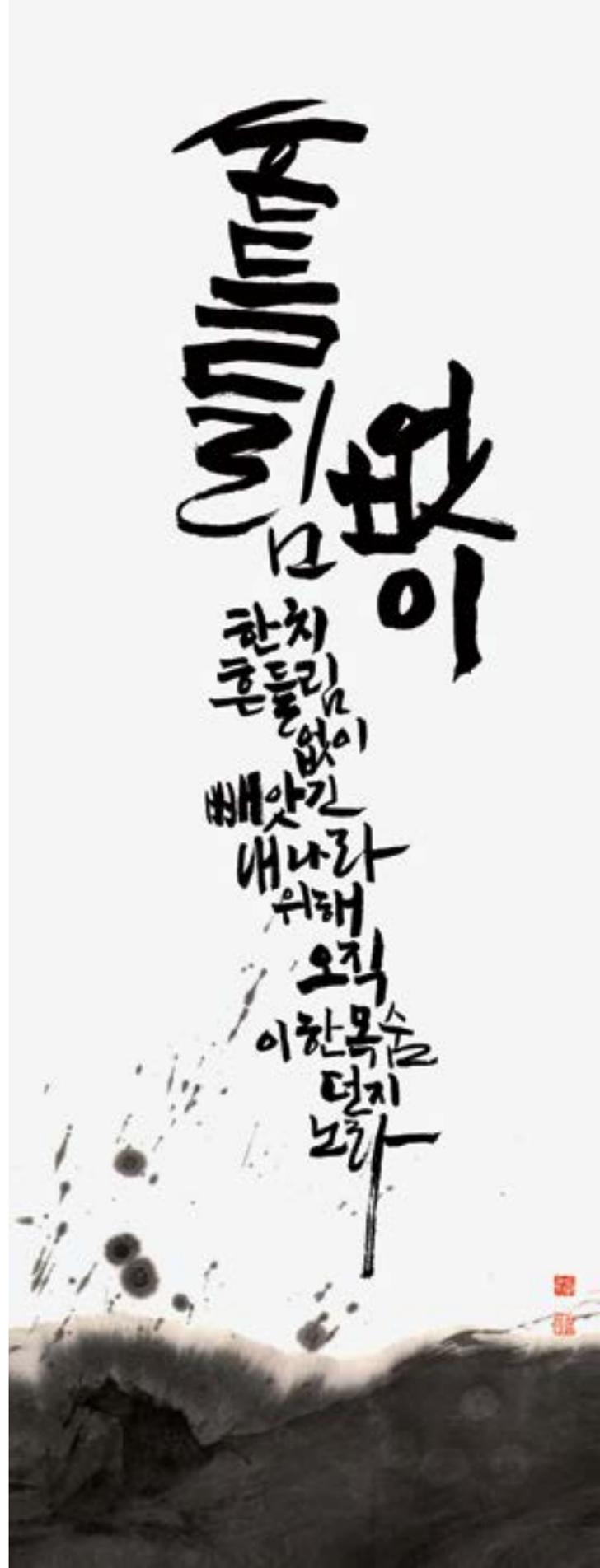
1850년 경상북도 안동 하계마을에서 퇴계 이황의 12대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퇴계 학문을 이어받아 과거 공부에 매진했고, 1879년 문과에 급제했다. 1880년 사헌부 지명으로 일하던 중 조정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조선책략』을 수용하자 이에 반대하는 '통문(通文)'의 발의자로 참여했다. 1882년 고향 주변의 봉화군 입당산 골짜기로 들어가 잠적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강행되자 그 해 12월 그는 김도현(金道鉉)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진방장으로 활약했다. 이듬해 을미의병이 해산되자 다시 신암폭포 아래 은거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자 일제침략을 규탄하고 을사늑약의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잡고 잠적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고, 숙부 이만도(李晩燾)가 단식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자 항거의 뜻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일제를 향해 '경고문'을 써서 단식순국을 결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강제로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찾아 온 일본 경찰을 꾸짖어 내쫓았다. 단식을 시작한 지 27일 만인 10월 4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박순희 월간서예대전 문인화 특선· 대한민국 서예술대전 특선· 한국문화예술대전 특선 등
C : 010-8922-4065, E : linuxyoo@naver.com



주기철

1897.11.25-1944.04.21
국내항일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63]

주님을 위하여 저야 할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서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4차 검속 전 마지막 설교 중에서(1940.2) (김인수, <예수의 양 주기철>, 흥성사, 2007, 194쪽에서 재인용)

경상남도 웅천 출신. 웅천에서 사립 개통소학교(開通小學校)를 거쳐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五山學校)에 입학. 1916년 졸업하였다. 다음 해 서울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상과에 진학하였으나 안질 때문에 곧 중퇴, 고향으로 돌아왔다. 웅천교회에서 집사로 봉직하던 어느 날 김익두(金益斗) 목사의 설교에 감동되어 성령을 받고 중생(重生)하는 체험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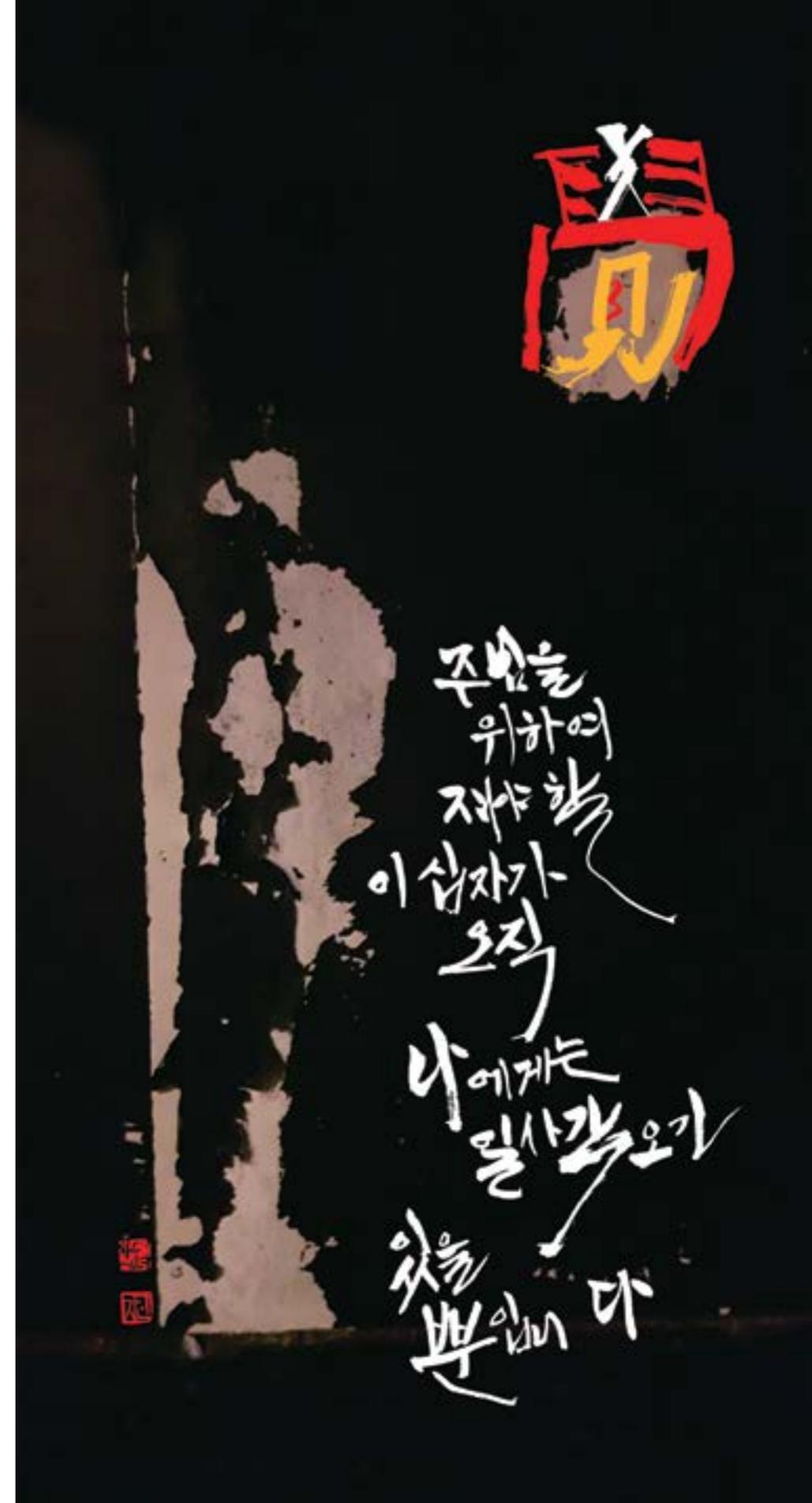
1921년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에 입학, 1926년 졸업하였다. 1926년 부산 초량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였고, 경남성경학원을 세워 후진교육에 힘썼다. 1931년 9월 마산 문창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 전국에 이름이 난 저명한 목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가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것은 1936년 여름, 송창근(宋昌根)의 후임으로서였다. 그때 그 교회에는 민족주의자 조만식(曹晩植)·유계준(劉啓俊)·오윤선(吳胤善) 등이 출석하고 있었다. 그는 도착하자 곧 교회당 건축에 착수하여 1938년 3월 헌당식을 가졌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로 헌당식 직전에 경찰에 검속되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그가 평양에 부임하기 1년 전부터 평양교회와 신학교를 괴롭혔고, 결국 평양의 숭실학교나 평양신학교는 1938년에 각각 폐쇄되었다.

신사참배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그는 1939년 7월 경상북도 의성의 농우회사건(農友會事件)에 연루되어 검속되었다가 1940년 2월에 석방되어 평양으로 돌아온 뒤, 산정현교회에서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를 최후로 교인들에게 전하였다.

이 설교 사건으로 경찰이 이를 후에 그를 검거하였고, 그때 산정현교회 목사직을 파면 당하였다. 파면은 평양노회의 결의형식이었다. 그리고 산정현교회도 동시에 폐쇄되었다.

감옥에서 5년간 고생하다가 1944년 4월 13일 병감(病監)으로 옮겨지고 4월 20일 부인 오정모와 마지막 면회를 한 뒤 4월 21일 감옥에서 병사하였다.

박시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대한민국명화서예대전 특선, 대한민국현대서예전람회 입선 외 다수 입상
2018 캘리콘서트, 임들을 잊지않겠습니다 외 다수 전시 참여
C : 010-9404-1583, E : 23678@hanmail.net



김구

1876.08.29–1949.06.26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중에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호 백범(白凡), 아명 창암(昌巖), 본명 창수(昌洙)였으나 구(九)로 개명. 법명 원종(圓宗), 초호 연하(蓮下)이다.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했다. 15세 때 한학자 정문재(鄭文哉)에게서 한학을 배웠고, 1893년 동학(東學)에 입교하여 집주(接主)가 되고 이듬해 팔봉도소접주(八峯都所接主)에 임명되어 해주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게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하여 김이언(金利彦)의 의병단에 가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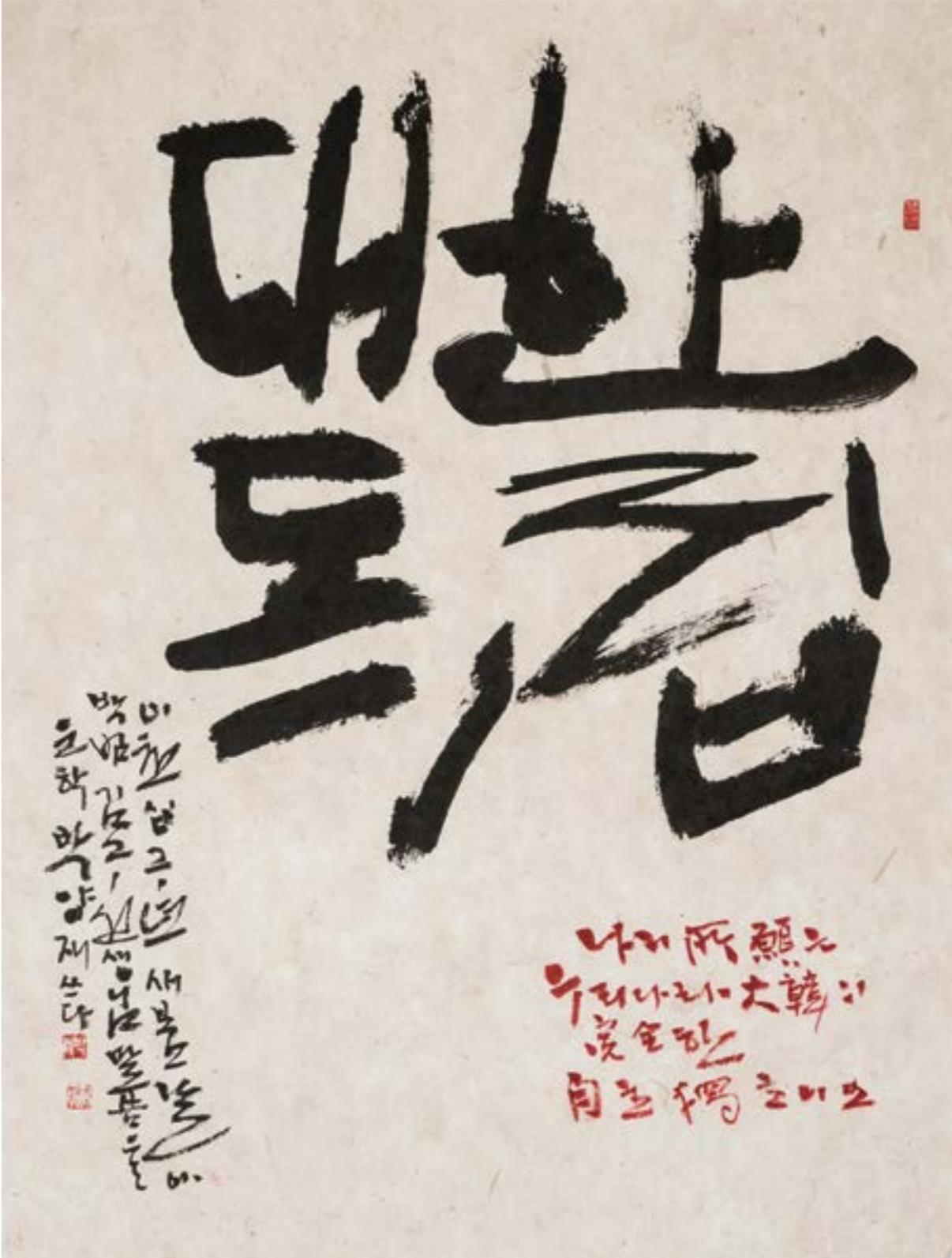
3·1운동 후 상하이(上海)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경무국장(警務局長)·내무총장·국무령(國務領)을 역임하면서, 1928년 이시영(李始榮)·이동녕(李東寧) 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 총재가 되었다. 이로부터 항일무력활동을 시작, 결사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조직, 1932년 일본왕 사쿠라다문(櫻田門) 저격사건, 상하이 홍커우(虹口)공원 일본왕 생일축하식장의 폭탄투척사건 등 이봉창(李奉昌)·윤봉길(尹奉吉) 등의 의거를 지휘하였다. 1933년 난징(南京)에서 장제스(蔣介石)를 만나 한국인 무관학교 설치와 대(對)일본전투방책을 협의하고 1935년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 1940년 민족주의자들의 단일조직인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선출되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重慶)으로 옮길 때 이를 통솔하였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설치하여 그 사령관에 지청천(池青天)을 임명하였다.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하고, 광복군 낙하산부대를 편성하여 본국 상륙훈련을 했다.

1944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다시 선임되었다. 8·15광복으로 귀국하였는데, 임시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한국독립당 위원장으로서 모스크바 3상회의 성명을 반박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의장, 민족통일총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하며 이승만(李承晩)과 함께 우익 진영을 대표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하였다. 그후 북한으로 들어가 정치회담을 열었으나 실패하였다. 그후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의 거두로 있다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京橋莊)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安斗熙)에게 암살당하였다.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으며, 저서로는 『백범일지(白凡逸志)』가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박양재 현 강남문화원 원장 · 한국서총 자문위원 · 윤학서회사랑 대표
C : 010-2203-5111, E : myungga57@hanmail.net



김구식

1881.01.29-1950.12.10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한민국장[무후선열-201]

본래 우리의 독립은 평화회의나 모종의 유력한 단체로부터 승인을 받던지, 첩지(帖紙)를 내어 주듯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최고기관으로부터 각 단체 또는 전 민족의 합심과 준비 여하에 달렸나니,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독립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파멸이 있을 따름이요, 고로 금일 우리 민족은 그 멸취(滅取)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오.

1921년 1월 상해 환영회 석상에서의 연설 중에서

1881년 부산 동래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선교사 언더우드의 보살핌으로 성장을 하였고,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897년부터 1903년까지 미국 버지니아주의 로노크대학교(Roanoke University)에서 공부하였다. 이듬해 프린스턴대학원(Princeton Academy)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191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약소민족대회 및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국민족의 주장」·「한국의 독립과 평화」 등의 민족선언서를 작성, 배포하였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위원장, 학무총장 등에 선임되었으며, 1921년 동방 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하여 상설기구를 창설하고, 1927년에 그 회장직을 맡으면서 기관지 『동방민족(東方民族)』을 창간하였다.

1935년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여 그 주석이 되었고, 1942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다. 해방된 후 한국하였고, 그 해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문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2월 민주의원 부의장, 3월 미소공동위원회 한국 대표, 5월에 좌우합작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그 해 6월부터 7월까지 '미군정 좌우합작위원회' 예비회담에 참가하였고, 12월 입법의원 의장, 1947년 10월 민족자주연맹 의장이 되었다.

1948년 1월 유엔한국위원단의 서울도착을 계기로 남북협상에 주력하였다. 2월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안에 반대하고, 김구와 연합하여 남북협상을 제안하였다. 3월 15일 김일성·김두봉의 화선에 따라 남북협상 5원칙을 제시하였다. 4월 21일에는 38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 4자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성과없이 돌아왔다.

이에 실망하여 5월 14일 북한 측의 제2차 남북협상 제의를 거절하였다. 5월 21일에는 통일독립촉성회를 결성하여 그 이전의 5·10남한단독총선거에 '불반대·불참가'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건국기초작업에 대한 그의 정치활동에 중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북되었고, 그 해 12월 10일 만포진 근처에서 사망하였다.



박영은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캘리그래피그룹 목화연 전속 작가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캘리그래피강사
C : 010-5371-2324, E : streetno2@naver.com, H : www.instagram.com/tami_calli

양기탁

1871.04.02-1938.04.19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요인-7]

무릇 천하의 일은 다 사상(思想)에 있나니, 아무쪼록 조선의 사정을 잘 아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 먼저 조선이라는 사상으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여러 외국문물을 알지어다.

독립기념관의 양기탁 선생 어록비

1871년 평남 평양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아버지를 따라 유림의 명망가들을 만나게 되어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학은 물론 영어를 익혀 개화파 청년이 되었다.

1896년부터 독립협회에 참여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하였다.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는 외세의 부당한 국권 침탈에 반대하며 언론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 성과로 1904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창간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 데일리 뉴스의 임시특파원인 배설 [裴說](Ernest T. Bethell)을 사장으로, 양기탁을 총무로 출범했다. 한편으로는 1907년부터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영문판에 번역 게재하여 세계에 알렸으며, 1907년 1월 16일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한 광무황제의 친서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거를 호외로 보도한 것도 대한매일신보였다. 이에 일제는 소위 신문지법을 통해 한국을 강점하자마자 대한매일신보를 폐간시켜 버렸다. 언론활동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그는 1907년 안창호 등과 함께 비밀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新民會)를 창립하였다. 신민회는 철저한 비밀활동으로 회원을 모아가며 국외 독립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갔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일제의 극렬한 탄압으로 1911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어 일제는 소위 데라우치 총독암살음모사건을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105인을 투옥시켰다.

1916년 평안남도에서 유배를 당하던 중 탈출하여,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 등에서 활동하였으나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이처럼 그는 끊임없이 일제의 감시와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주로 탈출하여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성단(義成團)을 조직하고, 1922년 통의부(統義府)를 창설하는데도 기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쉬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에는 안창호가 주창한 민족유일당운동에 동참하여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운동을 추진하였다. 윤봉길 의거 이후 피난생활을 이어가던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 1934년 국무령에 선출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는 정당 통합운동에 온 힘을 쏟았으나 연로한 탓에 건강이 크게 나빠져 1938년 4월 숨을 거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박진숙 심뽀글씨디자인연구소 소속 작가 · 제2회 심뽀글씨 정기회원전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다'전 참여 ·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특선
C : 010-8433-1949, E: inbaragi@naver.com, H : www.instagram.com/ssuguripark

이규창

1913.03.28~2005.08.02
주중일국공사주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15]

나는 항상 강조하지만 독립운동 한다는 그 정신이 최일각(最一刻)까지 변심하지 않고 실천한다는 것이 위대한 것 아니겠는가?

이규창, 〈運命의 餘燼〉, 1992.

1913년 중국 만주지역 통화현(通化縣) 삼원보(三源堡)에서 이회영(李會榮)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920년 아버지 이회영과 함께 북경으로 이주한 후, 천진남개학교(天津南開學校)에서 공부했다. 이 시기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채호(申采浩), 이을규(李乙奎), 유자명(柳子明) 등을 만나면서 무정부주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아버지를 따라 상해(上海)로 간 후, 화랑청년단(花郎靑年團)과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에 가입해 백정기(白貞基), 엄순봉(嚴舜奉) 이강훈(李康勳) 등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 때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기관지인 『남화통신(南華通信)』 발간작업을 돕는 한편, 이회영의 활동을 도왔다. 1932년 11월 부친 이회영의 순국 이후, 이듬해 3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행동 단체인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을 조직했다. 동지들과 함께 상해 홍구(虹口)에서 중국 주재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有吉明]를 암살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군자금 모금에 힘쓰는 한편, 1935년 3월에는 엄순봉과 함께 상해 조선인거류민회 부회장과 고문을 지낸 친일 앞잡이 이용로(李容魯)를 사살했다. 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된 뒤, 1936년 4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엄순봉은 사형언도, 그리고 그는 징역 1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수감 중이던 1939년 4월 감옥에서 알게 된 사회주의자 박세영과 함께 일제의 중국침략을 규탄하고 일제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선전문을 발행해 감옥 내외에 배포했다. 이 일로 형기가 추가되고 광주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해방으로 출감했다. 1947년에는 남화한인총연맹의 동지였던 김지을(金芝乙)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대한 응징 활동을 했다.

1968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박혜란 화연글씨 소속·20회 강남서예문화대전 입선·2018 대국민 화합과 통일을 위한 캘리그래피 입선
C : 010-9515-9023, E : yjohjo@naver.com, H : blog.naver.com/joel5030



김승곤

1915.01.07~2008.02.24

광복군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13]

나라가 있고서야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승곤, <원로의 한마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북한>, 1995년 8월호

1915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났다.

1933년 5월 중국 남경(南京)으로 망명한 뒤, 그 해 9월 조선의열단 제2기 간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듬해 하남성(河南省) 낙양육군사관학교(洛陽陸軍士官學校)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고 1935년 졸업했다. 그 해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에 가입하고 남경에서 석문룡(石文龍), 최성장(崔成章)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 특무부 간부가 되어 일본 밀정을 조사·보고하는 정보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각국의 외교관과 신문기자에게 한국의 독립을 역설하기도 했다.

1938년 10월 민족혁명당 산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창설에 참여했다. 그 후 제구대를 이끌고 장사(長沙)의 중국 제9전구 지역으로 이동해 제1차 장사대회전(長沙大會戰)에 참전했다. 그 후 구룡산(九龍山), 오동산(梧桐山) 전투에서 유격전을 전개해 많은 전과를 올리며 활발하게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소환되어 국무위원회 비서로 근무했고, 그 해 12월 광복군에 입대했다. 광복군 제1지대 본부 부관주임 겸 본부구대장으로 활동했으며, 1945년 6월에는 총사령부 정훈처 선전과에서 근무했다.

1977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방은조 은조캘리대표·(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센터 소속 작가·광주전남캘리그래피그룹 글연 소속 작가
C : 010-3939-3421, E : dmswh8723@naver.com, H : www.eunjo.me



이재현

1917.02.02-1997.02.24

광복군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05]

조국은 목숨을 바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투사는 지분을 요구하면 안되는 법이다.

아들 이형진씨와의 대화 중에서, <항일무장투쟁 발자취를 따라서-이재현 열사 아들의 '망부歌'>, <경향신문>, 2006년 8월 14일자 / 안양시 이재천·이재현 지사 공적비 어록

이명(異名)은 해평(海平)·재두(在斗)이다. 경기도 시흥(始興)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5년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훈련소에서 정치훈련을 받고 다음해 김구(金九)의 장남인 김인(金仁) 등과 함께 광저우[廣州]에 파견되어 지하공작대원으로 활동하였다. 1938년에는 홍콩[香港]에 파견되어 상해지구공작대를 지원하였고, 1939년 충칭[重慶]에서 김인·나월환(羅月煥)·이하유(李何有)·박기성(朴基成)·김동수(金東洙) 등과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를 조직, 선전조장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겨울, 공작대가 시안[西安]으로 이주하자 김동수·김천성(金天成) 등 대원 8명과 함께 적 후방인 산시성[山西省] 등지로 파견되어 정보수집·적정탐색·초모공작·유격전 등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일본군 제36사단 사령부 이도순(李道淳) 및 중대동역 고여순(高如順) 등 20여 명을 포섭하여 시안으로 후송하는 한편, 제36사단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본군 와해공작(瓦解工作)을 수행하였다. 1940년 9월 충칭에 광복군이 창설되자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된 후 간부로 임명되어 장병들을 훈련하고 허난성[河南省]·허베이성[河北省] 등지에서 초모·선전·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광복군이 재편됨에 따라 광복군 제2지대에 편입되어 백정현(白正鉉)·문응국(文應國)·이병곤(李炳坤)·장덕기(張德祺) 등 애국청년 50여 명을 초모하였다.

1944년 4월 한미합작훈련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 조교로 본 토낙하대(本土落下隊)를 조직하고, 제2조장으로 임명되어 국내 침투공작 활동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5년 10월에 한국광복군 국내정진군 제2지대 제3조장으로 임명되어 베이징[北京]으로 가서 주북경판사처(駐北京辦事處) 주임으로서 교포보호 및 한적사병(韓籍士兵) 접수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귀국 후 주한미군정청외무서 외무관, 민족청년당 서무과장 등을 지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배연수 스페이스반건축사사무소 소장·인하대 겸임교수·경기도건축사뉴스 기자·윤경희글씨작업터 소속 작가
C : 010-8706-3211, E : ysbae@spaceban.com, H : www.spaceban.com



이신애

1891.01.20-1982.09.27
독립운동_건국훈장 독립장

망국의 한 – 이신애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혈성부인회 간부로서 임시정부의 군자금모금에 힘쓰고 독립대동단에 입단해 의친왕의 상해 망명계획을 주선하다가 체포되었다. 복역중 유관순과 함께 3·1 운동 일주년기념 만세운동을 전개하여 이로인해 잔혹한 고문과 함께 삼년 팔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뒤에도 계속 항일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후 충남 공주에서 한국 부인회를 조직해 부녀계몽운동을 펼쳤다.

본관은 전주(全州), 이명(異名)은 자경(慈卿)으로, 1891년(고종 28) 평안북도 구성(龜城)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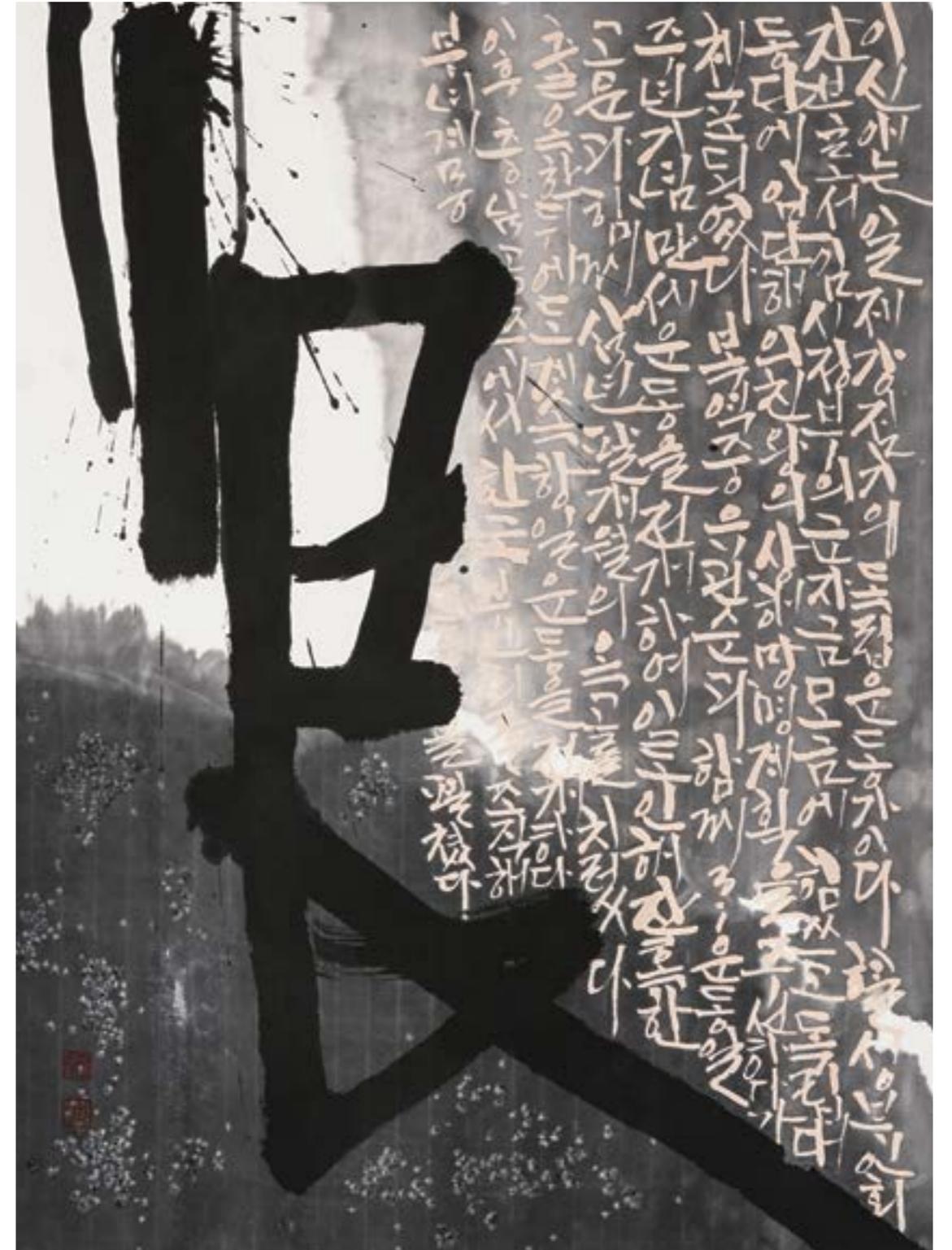
1919년 결핵으로 인해 호수돈여학교(好壽敦女學校) 3년을 중퇴한 뒤, 이듬해 원산성경학교(元山聖經學校)를 졸업하였다. 이후 원산 루씨여학교(樓氏女學校) 두산리분교(斗山里分校) 교사로 있다가, 1918년 독립운동가 손정도(孫貞道) 목사의 지도를 받아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서울 지역 3·1운동에 참여한 뒤, 같은 해 5월 혈성부인회(血誠婦人會) 간부로 임명되어 상하이 [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에 힘썼다. 이어 10월에는 독립대동단(獨立大同團·대동단)에 입단해 기관지 『대동신보(大同申報)』의 간행을 돕는 한편, 11월에는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堉)의 상하이 망명을 주선하였으나 의친왕 일행이 만주 안동역[安東驛]에서 체포되면서 그 해 12월 동지 4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체포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미결수로 복역 중이던 1920년 3월 유관순(柳寬順)과 함께 3·1운동 1주년기념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방이 파열되는 잔혹한 고문과 함께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8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뒤에도 계속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고, 1945년에는 충남 공주(公州)에서 한국부인회를 조직해 1947년부터 11년간 부녀 계몽운동을 펼쳤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배정원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한국서예연구회, 강남서예문화대전 등 초대작가·화연글씨 대표
C : 010-7414-0318, E : won604won87@gmail.com, H : www.instagram.com/baejung_calli



이재명

1887.10.16~1910.09.30

친일파제거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010]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마는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된 혼과 의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할 것이니, 한 번 죽음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恨)을 기어이 설욕(雪辱) 신장(伸張) 하리라.

1910년 5월 18일 사형선고를 받은 뒤 이재명 선생의 최후 진술 중에서

1887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의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졸업하고, 1904년 미국 노동 이민회사의 모집에 응해 하와이로 건너갔다. 1906년 3월에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고, 이 때 안창호(安昌浩)를 중심으로 설립된 공립협회(共立協會)에 가입해 활동했다.

1907년 6월 일제가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 하자 공립협회는 공동회를 개최했다. 공동회에서는 매국노 숙청을 결의했고, 이 때 실행자로 선발되었다. 이에 그 해 10월 일본을 거쳐 귀국했다.

1909년 1월 용희황제(순종)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평안도 순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토를 처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토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용희황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이에 안창호가 황제의 안전을 위해 계획을 만류해 실패했다. 이후 김병록(金丙錄)과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다시 이토를 사살하려 기회를 엿보던 중, 안중근(安重根)이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

1909년 11월 친일단체인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주창하는 성명서를 공포하자, 평양 경흥학교(慶興學校) 내에 위치한 서적중람소(書籍縱覽所)와 야학당(夜學堂)에서 동지들과 매국노 처단 방법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12월 7일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일진회의 이용구(李容九) 처단할 것을 결의하고 동지들 간에 역할 분담을 확정했다. 12월 22일 이완용이 종현 천주교당(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당 문밖에서 군법장수로 변장 후 대기했다. 이완용이 인력거를 타고 앞으로 지나갈 때 비수를 들고 이완용에게 달려들어 제지하려는 차부를 찌르고 그의 허리를 찔렀다. 이에 이완용이 도망하려 하자 다시 어깨 등 3곳을 더 찔렀다.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중, 경호하던 일본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안병찬(安秉瓚)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9월 30일 사형 집행으로 순국했다.

1962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변숙연 글향공방 대표·평택대학교초대전, 국립현충원초대전, 은평구청초대전 외 다수·호국보훈의달 우수작가상, 대전MBC엽서전입선
C : 010-6795-4050, E : gracepyon905@gmail.com, H : 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2480594011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마는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된 혼과 의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할 것이니, 한 번 죽음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恨)을 기어이 설욕(雪辱) 신장(伸張) 하리라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마는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된 혼과 의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할 것이니, 한 번 죽음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恨)을 기어이 설욕(雪辱) 신장(伸張) 하리라

변숙연

우재룡

1884.01.03(음력)–1955.03.03(양력)
광복단·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46]

가능하다든가,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한 일이 없다. 조선인으로서 국권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컨대 일을 도모함은 하늘에 있고,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건 신문조사〉(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 - 독립군자금모집 I 에서 재인용)

본관은 단양(丹陽), 일명 김경옥(金景玉)·김재수(金在洙)·김재서(金在瑞)·김상호(金尙浩)·김한조(金漢朝), 자는 이견(利見), 호는 백산(白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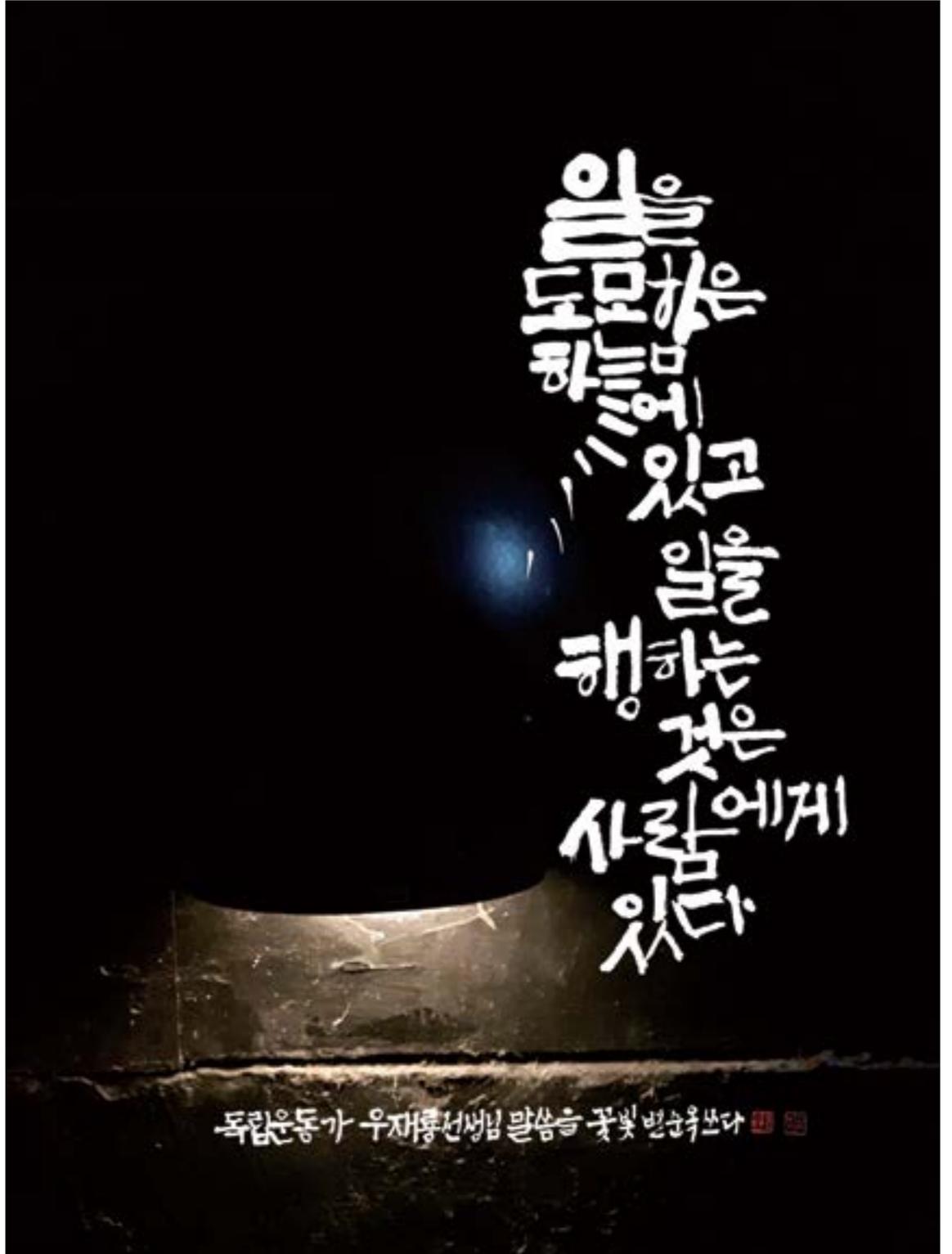
1903년 대한제국 육군에 입대하여 참교(參校)로 근무하던 중 1906년 의병이 되기 위해 탈영, 영천의 정용기(鄭龍基)와 함께 산남의진(山南義陣)을 일으킨 뒤 연습장(練習將)으로 활약하면서 영일의 입암전투(立巖戰鬪)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정용기가 죽은 뒤에는 그를 계승한 그의 아버지 정환직(鄭煥直) 진영의 선봉장으로서 영일·경주·청송·영천·대구 근방에서 용맹을 떨쳤다.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朴尙鎭)·채기중(蔡基中)과 함께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경상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황해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뻗어나가 1910년대 독립운동을 하는 국내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로 발전하였다. 이때 국내와 국외의 연락책임을 맡아 국내에서는 광주·목포 등지에서 독립군 연락기지 건설과 군자금 모금을 위하여 활약하였고, 만주에서는 안동에 상주하면서 대한광복회와 재만독립군기지인 서간도의 부민단(扶民團), 신흥학교와의 연락업무를 맡았다. 또한 국내로 보내는 무기 조달과 격문 발송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1917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송달되어 화제가 되었던 대한광복회 격문은 거의 그의 주선에 의하여 배포된 것이다. 또 1917년 11월에 처단된 칠곡의 친일 부호 장승원(張承遠)과 1918년 1월에 처단된 아산의 친일파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에 대한 암살 투쟁과 무기 공급 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1918년 대한광복회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거의 파괴당하자, 남아 있는 한훈(韓薰)·권영만(權寧萬)과 함께 대한광복회의 조직 회복에 주력하였다. 1920년 군산에서 일본 경찰에 잡혀 무기징역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 뒤 감형되어 1937년 풀려나왔다. 출옥 후 옥중에서 얻은 병이 깊어 권영만 등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그 뒤 권영만·이관구(李觀求·일명 李海量) 등과 함께 대한광복회를 재건하여 독립운동 유적지를 정화하는 사업에 전념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변순옥 고려서예연구회 상임이사



신석구

1875.05.03(음력)–1950.10.10(양력)

3·1운동, 신사참배 거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49]

사천 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내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수천 혹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독립정신을 심을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찾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함께 읽는 독립운동가 신석구<출이독립> :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보존위원회 기획, 이덕주 지음

본관은 평산(平山), 호는 은재(殷哉), 신재기(申在綺)의 2남이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33세 때 개성 남부감리교회에서 미국선교사 왕영덕(王永德)의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서울 서대문 밖의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에서 3년간 수학하고 감리교목사가 되었다. 그 뒤 서울·개성·춘천·원산·남포 등지에서 목회하였다. 3·1운동 때에는 오화영(吳華英)·이필주(李弼柱)·박희도(朴熙道)·최성모(崔聖模)·이승훈(李昇薰)·박동완(朴東完)·김창준(金昌俊)·이갑성(李甲成)·함태영(咸台永) 등과 회합,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불잡혀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신석구는 재판 도중 조선인의 행복과 자유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조선 사람으로서는(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해도 그러한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사람으로 하 여금 조선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피고는 조선의 국민성을 잃지 않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조선독립을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대답하였다. 출옥 후에도 감리교 목사로서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감리교단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를 행하던 분위기 속에서도 천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검거, 투옥되었다. 석방된 뒤에는 신사가 없는 지역인 평안남도 용강군 신유리 교회에 가서 시무하다가, 1945년 2월 이른바 전승기원예배(戰勝祈願禮拜)를 거부해 용강경찰서에 3개월 간 구금되었다.

광복 후에는 북한에서 공산당과 대결, 3·1절기념방송사건과 기독교민주당(基督教民主黨) 비밀결사사건 등으로 다시 투옥되었다. 1949년에는 진남포에서 반동비밀결사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는 죄목으로 피검,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공산군에게 총살당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서영민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캘리그래피그룹 목화연 전속 작가 ·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캘리그래피 강사
C : 010-5238-7671, E : kakii190@naver.com, H : www.instagram.com/invictus1920

홍진

1877.08.27-1946.09.09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임시정부요인-3]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문화가 발달하여 인심이 고상하고, 2천여 만의 단일민족으로서 이루어졌다. 10여년을 와신상담(臥薪嘗膽)하여 왔음은 독립 자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확신때문이었다.

1921년 태평양회의의 각국 대표에게 보낸 독립요구서에서

1877년 8월 27일 서울의 가난한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898년 법관양성소를 마친 후 한성평리원(漢城平理院) 법관이 되었다. 1910년 충청북도 충주(忠州)재판소의 검사로 재직하던 중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검 사직을 사직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참여한 후, 나아가 국내 임시정부인 한성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한성 임시정부를 출범시킨 후,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9년 4월 8일 한성 정부의 조직표와 조각 명단을 들고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국내 임시정부 수립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때 임시의정원 의원으 로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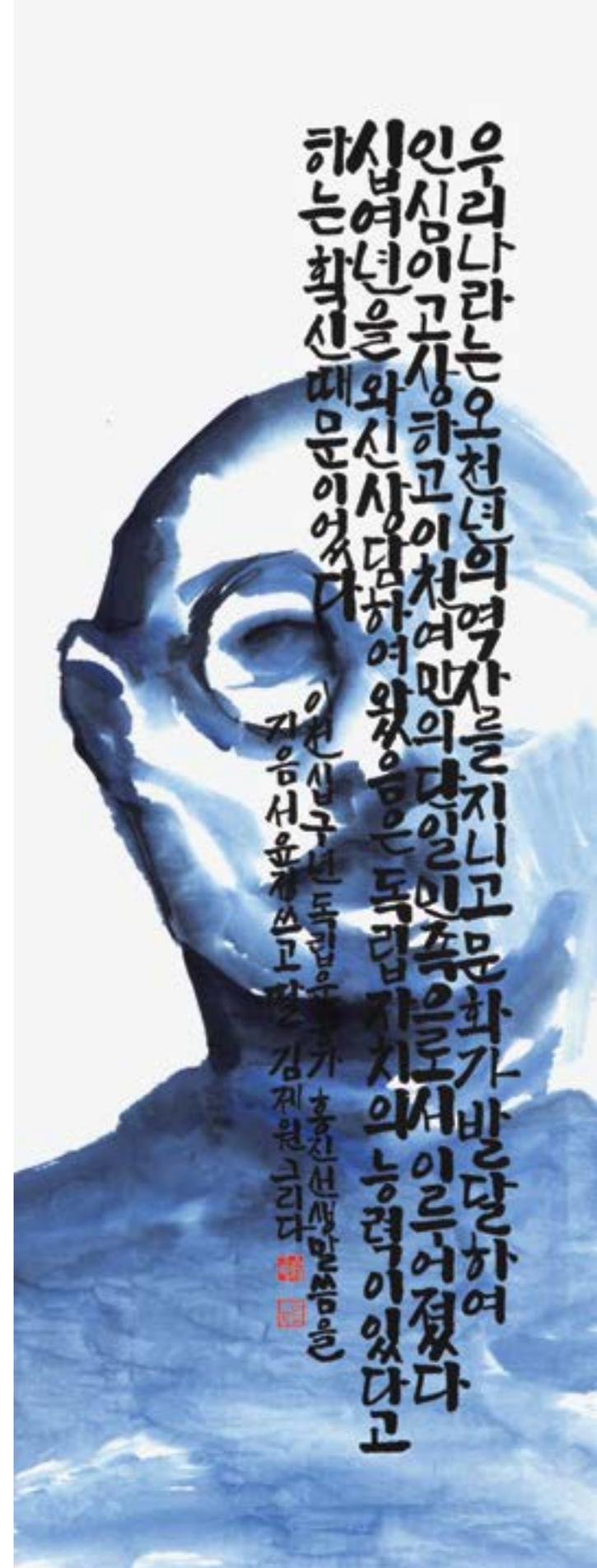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법제위원장이 되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근대적 법률제도를 갖추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 한편으로는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 러시아에 있는 국민의화정부를 통합하는데 도 크게 기여하였다.

1921년 5월 그는 제3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데도 적극적이었으며, 1922년부터 국민대표회의 문제로 임시정부에 갈등이 일어나 자, 이를 봉합하기 위해 안창호, 이시영 등과 힘을 합하기도 했다. 1925년 임시정부가 내각책임제 체제로 전환된 후, 이듬해 7월 제4대 국무령에 올랐다. 이때 그는 비타협적 자주 독립운동 전개, 전민족적 대당 건립, 피압박민족과의 연대를 천명하는 〈시정 방침 3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좌우연합을 위해 노력하던 그는 1939년 다시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어 한국광복 군이 창설되는데도 기여하였다. 1942년 임시의정원이 좌우익을 망라한 통합의회를 구성했을 때, 다시 한 번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3번이나 의장을 역임한 그는 '의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에 온 힘을 쏟았다. 1946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자주국가 건설에 매진하던 중 9월 9일 서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서윤정 화연글씨 소속·20회 강남서예문인화대전 입선·2018 대국민화합 통일을 위한 캘리그라피대전 입선·2019 한글일일달력전(참가)
C : 010-5449-5929, E : hb5929@gmail.com



이인영

1868.09.23(음력)–1909.09.21(양력)
의병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68]

용병(用兵)의 요결은 고독(孤獨)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 데 있는 즉 각도의 병을 통일하여 궤제지세(潰堤之勢)로 경기(京畿)로 범입(犯入)하면 온 천하는 우리 물건이 안 되는 것이 없고, 한국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이인영의 격문 중에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970, 504쪽에서 재인용)

1868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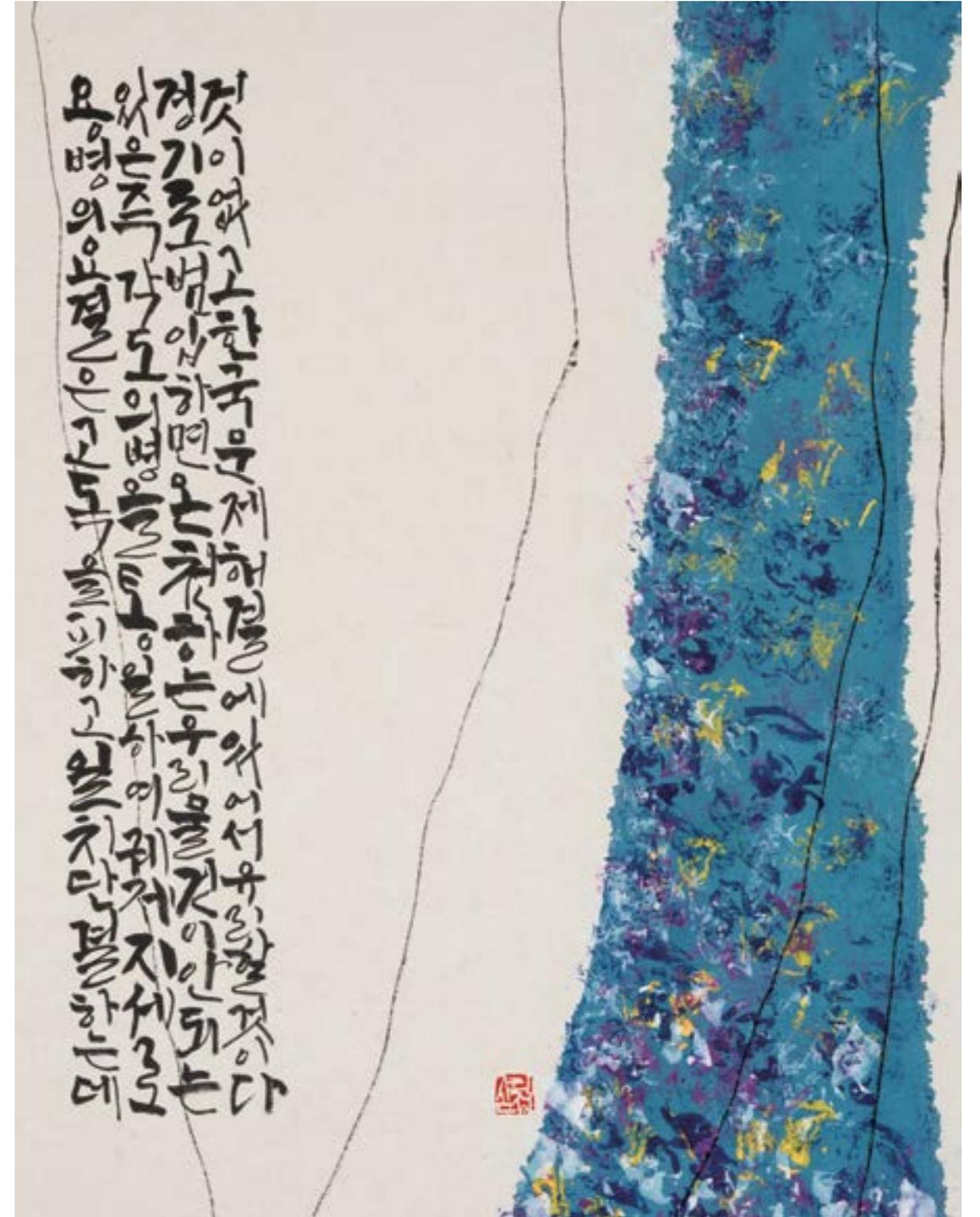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인석(柳麟錫), 이강년(李康年) 등과 의병을 일으켜 춘천, 제천 등에서 활동했다. 고종의 선유(宣諭)로 의병을 해산하였으나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이 재기하였을 때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원주에 의병원수부(義兵元帥府)를 설치하고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에 오른 뒤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식량과 활동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서울의 각국 영사관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순수한 애국단체로 의병을 국제법상의 전쟁단체로 열강들이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 각지에 의병규합에 노력하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각 도에 격문을 보내 경기도 양주로 집합할 것을 촉구하자, 11월에 약 1만 명의 의병이 집결했다. 이후 원주, 철원 등 강원 지역에서 38차례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각지의 의병진들은 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여 서울로 진격하고자 하였다. 이에 13도의병 연합부대를 편성하였는데, 이 때 13도의병 총대장에 추대되었다. 군사장(軍師長)에 허위(許蔭), 관동총대장에 민금호(閔肯鎬), 호서창의대장에 이강년, 호남창의대장에 문태수(文泰洙), 영남창의대장에 박정빈(朴正斌), 경기황해창의대장에 권중희(權重熙), 관서창의대장에 방인관(方仁寬), 관북창의대장에 정봉준(鄭鳳俊)을 선정하였다. 각 도 대장에게 정한 날짜에 동대문 밖으로 진군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2,000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에 진주하여 각 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가던 중 여주에서 일본군과 마주쳐 전투에 나섰으나 패했다.

이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문경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으며, 다시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시영(時榮)이라는 가명으로 상주에서 은거하다가 충청북도 황간으로 옮겨 거주하던 중 1909년 일본 헌병에게 잡혀 경성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손희정 늘품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민주평통서예대전 입선·캘리그래피 그룹전 라온제나 총6회 참여
C : 010-2878-0502, E : hjson@doojinpolymer.com, H : www.instagram.com/hjimgirl



이상룡

1858.11.24~1932.05.12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임시정부요인-2]

**칼날보다 날카로운 식풍이 차갑게 내 살을 도려내네,
이 머리는 차라리 자를 수 있지만 이 무릎을 꿇어 종이 될 수는 없도다.
누구를 위해 머뭇거릴 것인가. 호연히 나는 가리라.**

1911년 1월 망명길에서 압록강을 건너던 이상룡이 남긴 시 '도강(渡江)'

1858년 경상북도 안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임청각의 장손으로서, 영남학계의 거유인 김흥락(金興洛)에게 사사한 정통 유학자로서 안동을 대표하는 유림으로 역할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침탈되자 본격적으로 구국운동의 길에 접어들었다.

안동의 대표적인 혁신유림인 유인식, 김동삼 등과 협동학교를 세워 근대교육을 실시하였고, 1908년에는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여 애국강연, 회보발간 등을 통한 자강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던 중 대한협회 중앙본부가 점차 친일적으로 전향해가자 이를 비판하며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략을 찾아나섰다.

1911년 중국 망명 후, 간도의 유하현 삼원보(柳河縣 三源堡)에 터를 잡고, 이회영, 이시영 등과 함께 독립군 기지개척을 시작하였다. 경학사(耕學社)를 통해 한인들의 경제토대 구축에 나서고, 신흥강습소를 세워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경학사는 부민단과 한족회로 발전하였고,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거듭났다. 1919년 한족회를 통해 군사기구인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조직하고 군정서 독판을 맡으며 만주 무장항일투쟁을 선봉에서 지휘하였다.

그는 독립 달성을 위한 군사조직 결성과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1920년 초에는 북경에서 조직된 군사통일촉성회에 참가하여 군사기구 통합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922년 6월에는 중국 동삼성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시도하여 통의부(統義府)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 전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를 거치며 분열의 위기에 봉착하자, 이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탰다. 1925년 임시정부의 지도체제가 국무령제로 바뀐 후, 첫 국무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만주지역 독립운동세력의 지도자로 역할하던 그는 국무령에 취임한 후, 임시정부의 분열을 막고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1926년 만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정의부(正義府)·신민부(新民府)·참의부(參議府)를 비롯한 만주 지역 광복 단체의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5월 12일 중국 길림성 서란현(舒蘭縣)에서 "외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목적을 관철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거하였다. 만주땅에 묻혀있던 그의 유해는 광복 45년만인 1990년에 봉환되었다. 대전 국립묘지에 임시안장되어 있던 유해는 1993년 현충원에 임시정부 묘역이 조성됨에 따라 이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송옥진 글씨그리다 대표·(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그래피그룹 목화연 전속 작가
C : 010-7468-0327, E : calli-draw@naver.com, H : callidraw.com

이인식

1901.10.12-1963.03.25
군자금모집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5]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인생의 후배들아,
책을 가까이 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바란다.

임피중학교 이인식 선생 석상 어록

호는 춘교(春巢). 전라북도 옥구 출생. 서울 보성중학교를 졸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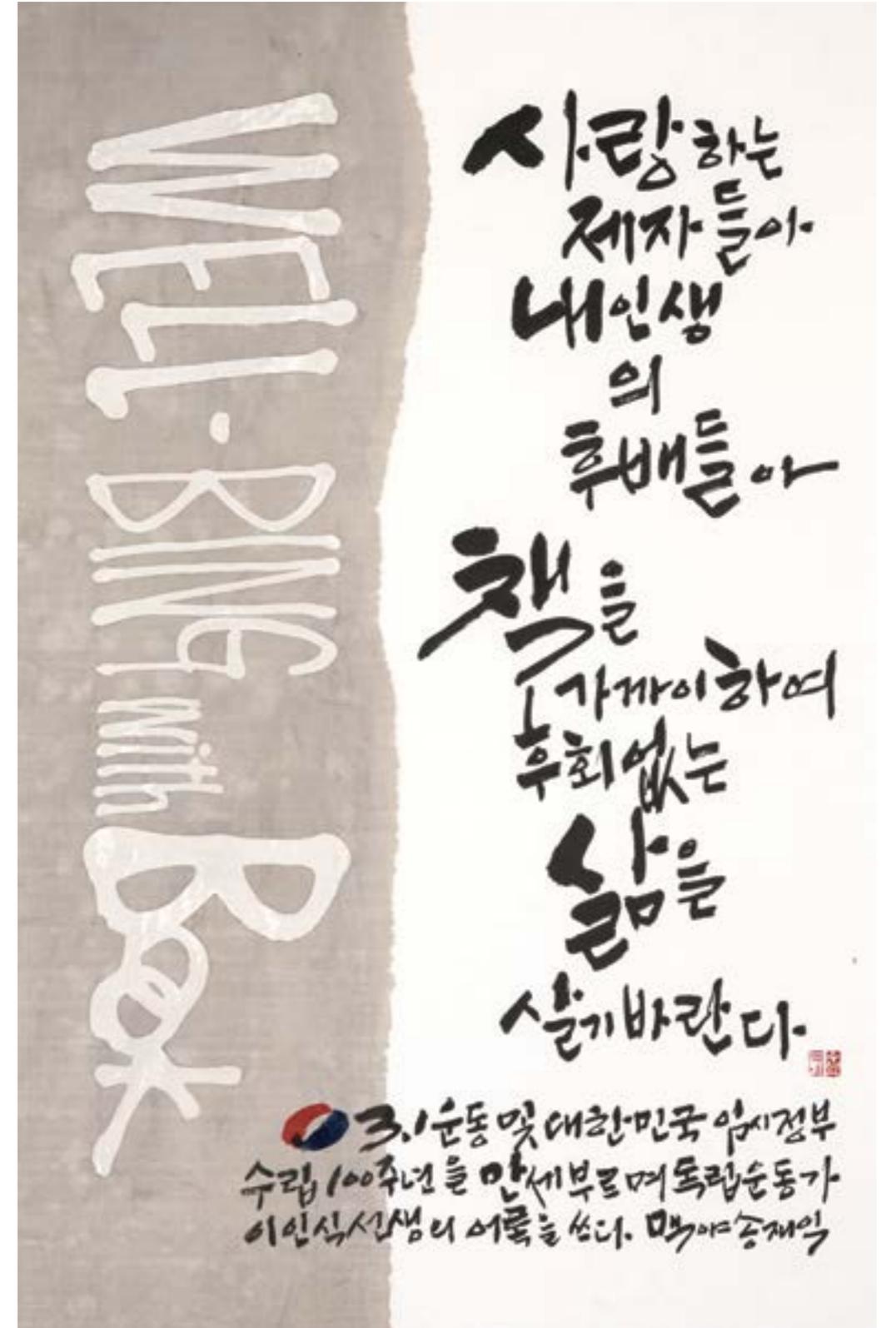
1919년 2월 28일 정동 예배당 구내의 이필주(李弼柱)목사 집에서 중학생 대표들이 모여 독립운동의 실행을 계획하였는데, 보성중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때 백절불굴의 투지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으로 학생들을 참석하게 하고 선언서를 배포하여 시위운동을 주도하며 미국 영사관과의 연락 책임을 지고 활동하였다.

3월 5일 오전 9시 서울역광장에서 군중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다가 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였다. 출옥하자마자 전재산을 방매하여 동삼성으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에게 8,000원의 군자금을 주고 군자금모집원이 되어 계속 투쟁하였다. 그뒤 일본 도요대학[東洋大學] 철학과를 졸업하고 8·15광복 이후 고향에 임피중학교를 설립, 교장이 되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선임되었다.

1962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송재익 2014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외 다수 공모전 수상·2018 개인전 '비오는날의 동행'·현 (주)박스밸리 자문역
C : 010-4012-7924, E : boxvalley@hanmail.net



심수택

1871.02.10(음력)-1910.10.04(양력)
의병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8]

초야의 서생이 갑옷을 펼쳐 입고 말을 타고 남도를 바람처럼 달리리 만약에 왜놈을 소탕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모래밭에 죽어 돌아오지 않으리

1907년 의병으로 나서면서 지은 시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남일(南一), 호는 덕홍(德弘). 전라남도 함평 출신. 일찍이 면장·향교장의(鄕校掌議)·도의사(道議事), 서당의 훈장을 지낸 향반(鄕班)이었다.

1905년 소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의병장 김윤(金鈞)의 부장이 되어 장성·영광·함평·남원·보성·장흥 등지에서 항일전을 전개해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7년 8월 한국군이 강제 해산된 뒤 호남 일대에서 의진이 구성되자, 강무경(姜武景)과 협의하고 의병을 훈련한 뒤 11월 1일 함평군 신광면에서 거의(擧義),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선봉장에 강무경·임만선(任萬善)·장인보(張仁甫), 중군장에 안천재(安贊在)·박사화(朴士化), 후군장에 노병우(盧炳友)·나성화(羅聖化)·최우평(崔友平)·김성재(金聖載) 등이었다. 그 밖에 도통장(都統將)·통장·군량장·호군장·기군장(起軍將)·서기 겸 모사(書記兼謀事)·도포(都砲)·도집사·모사 등으로 의진을 구성하고, 군기를 엄하게 하였다.

1908년 3월 7일 강진군 오치동에서 일본군 수십명을 살상하고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4월 15일 장흥의 일본군이 습격해오자 관암(觀巖) 밑에 잠복해 적 3명을 사살하였다. 6월 19일 판촌(坂村)에 유진 중 후군장 노병우가 노구두(老狗頭)로 나아가 일본군을 기습해 적 5명을 사살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7월 30일 영암 사촌(沙村)에서 적장 이하 10여 명을 사살하였다. 그 뒤 장흥의 대치(大峙)와 해남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병으로 인해 통수권을 부장에게 넘겼다. 1909년 3월 다시 의병을 일으켜 남평·풍치(風峙)일대에서 크게 접전했으나 전세가 불리해 후퇴하였다.

5월 12일 보성석호산(石虎山)에서 의병장 안규홍(安圭洪)과 의진 연합을 모색하는 한편, 내습해 오는 적 5명을 사살하였다. 그 뒤 의병을 해산하라는 조칙을 받고 7월 21일 해산하였다. 그 뒤 능주(綾州)에서 강무경과 신병치료 중 함께 잡혀 강무경은 곧 총살되고, 심수택은 12월에 대구감옥으로 이감되어 다음 해 7월 교수형을 당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신유리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하유글씨문화연구실 소속 작가 · 캘리그래피그룹 하연 소속 작가
C : 010-2052-6248, E : shinyuri@nate.com, H : www.instagram.com/doha_shinyuri

강무경

1878.03.03-1910.09.01
의병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24]

꿈에서조차 그리던 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철천지원수의 총칼에 흠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오호 애재라! 내 혼백과 육신의 혈흔이라도 이승의 청강석이 되어 못 다한 천추의 한을 풀리라.

사형직전 강무경 선생의 유언

1878년 전북 무장군 풍면 설천에서 출생했다.

전라북도 무장 출신. 필묵상을 경영하던 중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1906년 심남일(沈南一, 또는 沈守澤)로부터 의병을 일으키자는 서신을 받고 기삼연(奇參衍)·김준(金準)·김율(金聿) 등과 협의하여 김율의 의진에 입대. 심남일과 더불어 부장으로 활약하였다. 김율이 전사하자, 심남일을 통수로 추대하고 전군장(前軍將)이 되어 의병을 거느리고 전라남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1907년 8월 한국군 강제해산 후 심남일과 협의하여 11월 1일함평군 신광면에서 의거하여 심남일의 선봉장이 되었다. 심남일 의진은 1908년 2월 13일 신광면을 떠나 남평으로 행군. 3월 7일강진군 오치동에서 접전하여 적 수십명을 살상하고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4월 15일에는 장흥 관암(觀巖)에서 적 3명을 사살하고, 6월 11일에는 남평 장담원(長淡院)의 접전에서 적 5명을 사살하였으며, 25일 반촌(坂村)에서 머무르던 중 접전하여 적 5명을 살상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7월 그름에는 적장 고토(琴平山)의 부대와 접전하여 적장 이하 10여 명을 사살하고 당산촌(堂山村)으로 후퇴하였다. 그뒤 장흥의 대치·해남 등지에서 접전하여 많은 전공을 올렸다. 1909년 3월 능주 일대에서 적과 크게 접전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두문(杜門)으로 후퇴하였다. 5월 12일 석호산(石虎山) 일대에서 의병전의 효과적 전개를 위하여 의병장 안규홍(安圭洪)과 연합전선구축을 기획하였으나, 의병을 해산하라는 조칙을 받고 7월 21일 영암에서 부득이 해산하였다. 그뒤 의병장 심남일과 능주로 잠행하여 풍치(風峙)의 바위굴에서 은신하던 중 10월 9일에 붙잡혀 총살되었다.

1962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신주영 글씨공방쓰담대표

C : 010-9646-5523, E : seolsongssi@naver.com, H : www.instagram.com/seolsonggeulssi

꿈에서조차
그리던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철천지원수의
총칼에
흠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오호 / 애재라
내 혼백과
육신의 혈흔이라도
이승의
청강석이 되어
못다한
천추의 한을
풀리라

사형직전 강무경선생의 유언
설송 신주영쓰다

이은찬

1878-1909.06.27
의병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106]

리린영의 부하 리은찬은 순국하기 전 옥동에서 시를 지어 같오되 '한 가지 오
야나무로 배를 만들어 창야생을 건지려고 바다에 띄웠고나 혼공을 못 이루고
이 몸이 만져 빠져 동양의 만년지략 그 누가 헤아리랴

〈신한민보〉 1935.5.2, 〈리은찬의 유서〉

본관은 전주(全州), 일명 언찬(諤瓚)·헌찬(憲瓚), 강원도 원주 출신이다.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각지에서 의병이 다시 일어나자, 그 해 9월 이구재(李九載)와 더불어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해산군인 80명을 포함한 500명의 의병을 소모(召募)한 뒤, 문경의 이인영(李麟榮)을 총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그 뒤 원주를 떠나 황성·지평(砥平)·춘천 등지를 전전하며, 의병규합에 진력하는 한편,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격문을 띄워 양주로 집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양주로 집결한 의병들로 13도의병연합부대를 편성, 이인영을 원수부심삼도총대장(元帥府十三道總大將)으로 추대하고 중군이 되었다. 의병연합부대는 곧 진격을 개시하여 일거에 서울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때마침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여 문경으로 돌아가면서, 작전계획에 차질이 초래되어 서울침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같은 해 12월 소속부대를 거느리고 양근·포천 방면으로 이동하여 임진강유역에서 허위(許蕤)와 손을 잡고 재차 임진강의병연합부대를 편성한 뒤, 허위를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이 방면에서 크게 위세를 떨쳤다.

1908년 말 허위와 김수민(金秀敏)이 일본군에게 잡혀 순국하자, 의병부대는 수가 적은 곳은 수십 명, 많은 곳은 200명 내외 규모로 나누어져, 양주·포천·영평·연천·삭녕·금천·배천·연안을 잇는 선내 및 해상도서에서 유격전술을 펼쳐 전과를 거뒀다.

1909년 2월 27일 3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양주군 석우리 북방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큰 타격을 입혔으나 의병 또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래서 간도로 들어가 정병을 양성한 뒤 보다 적극적인 항전을 계속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박노천(朴魯天)과 신좌균(申左均) 등이 이와 같은 계획을 탐지하고 군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미끼로 서울로 유인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고 3월 31일 서울에 잠입하여 용산역에 나타났다가, 잠복하고 있던 일본경찰에 잡혀 1909년 경성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심규정 2017 한글 사랑 서예대전 특선·2018 남도문인화대전 특별상·캘리콘서트 4, 5, 6, 7회 참여
C : 010-9355-6468, E : swimblue@naver.com, H :www.instagram.com/shim_kyu_jung



이원직

1871.09.21~1945.05.03

교통국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52]

누구나 조선인으로서 독립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인도 일본인도 하나의 사람이다.
그런데 매우 차별대우를 하므로 나는 조선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1920년 7월 15일 이원직 신문조서 중에서

187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공부하고,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시위에 앞장서서 활약했다. 그 해 11월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대
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평생을 조국독립에 헌신할 것을 안창호(安昌浩) 앞에서 맹세하고 교통국의
국내교통연락원이 되었다.

김청풍(金淸風), 정의도(丁義道)와 함께 황해도 사리원과 서울에 각각 교통국을 설치하고 이기하(李起夏)
와 함께 서울 교통국 참사(參事)를 맡아 『독립신문(獨立新聞)』과 임시정부 공보(公報) 등을 비밀리에 국
내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독립공채를 통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썼다.

1920년 6월 경 활동내용이 일본경찰에게 탐지되어 체포되었고, 1921년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
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3년 가출옥한 후 꾸준히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던 중 1944년 12월
용산헌병대에 체포되어 미결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옥사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3년)을 추서하였다.



조경환

1900.07.13-1993.01.07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임시정부요인-13]

순진한 사랑의 설움, 감격의 눈물이다. 하마트면 다시 밟지 못할 이 흙을 밟게 됨은 황천이 주신 선물인가? 국조 단군님의 돌아보심인가?

광복 후 고국 땅을 밟으며 조경환이 남긴 소회(백강회고록, 376쪽)

1900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단(獨立團)에 가입하고 국내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 만주에서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와 배신학교(倍新學校)를 설립하는 한편, 여준(呂準) 등과 함께 정의부(正義府) 교민교과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북만주에서 이청천(李靑天)·유동열(柳東說)·김학규(金學奎)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창당에 참여하여 선전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육군군관학교 내에 한인특별반이 편성되자, 오광선(吳光鮮)과 함께 교관으로서 한인 청년들을 가르쳤다.

1935년 7월에는 중국 남경(南京)에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창당에 참여하였고, 이후 이청천과 함께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을 창당하여 중앙상무위원 및 조직부장으로 활약하였다. 1937년부터 좌우연합을 추구하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임시의정원 의원과 임시정부 군사학편찬위원이 되었다. 임시정부의 핵심 정당인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이 되었으며, 한국광복군 창설되었을 때 주계장(主計長)에 임명되었다.

1941년 12월에는 중국국민당의 전시간부훈련단(戰時幹部訓練團)에 광복군 장교훈련소가 설치되자 송호성(宋虎聲)·나월환(羅月煥) 등과 함께 훈련책임을 맡았다. 1942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 정훈조장(政訓組長)으로 활동하였고, 1943년 한국독립당 중앙조직부장, 1945년 임시정부 국무위원, 한국독립당 중앙비서부장, 국무위원회 비서장 등을 지냈다.

광복 후에는 정치가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임정기념사업회장·독립유공자협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양서윤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연우캘리 대표·자유학기제 강사
C : 010-5472-5857, E : yeonwoo-art@naver.com, H : facebook.com/yeonwoo0429



박찬익

1884.01.02~1926.01.22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요인-12]

대의에 사는 사람은 항상 소비(小秘)나 소의(小義)나 소이(小利)나 소국(小局)에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더구나 명리를 쫓아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우리는 공명심을 버리고 조국 독립에 무명의 전사가 되자.

독립기념관에 있는 박찬익 어록비문

박찬익 어록비문

1884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1904년부터 서울에 상경하여 농상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일본인 교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학교를 중퇴했다. 이듬해 이듬해 고향 파주로 가서 교편을 잡다가 1908년 다시 상경하여 공업전습소 역직과를 마쳤다. 이 무렵 그는 대중교에 입교했다. 이후 이는 단군 신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던 대중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하게 된다.

1910년 2월 만주로 망명한 후 서일이 이끄는 대중교계 무장단체 중광단에 참여하였는데, 이때부터 중국 측과 교섭하여 무기를 구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는 능통한 중국어로 많은 인사와 교우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한중우호관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19년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에서 박은식, 신채호 등과 함께 18명의 평정관(評政官)이 되었다. 1921년부터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921년 4월 경기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으며, 7월에는 외무부 외사국장 겸 외무차장 대리로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외교 실무를 도맡았다. 그는 손문(孫文) 등과 교우하고 있던 외무총장 신규식을 도와 한중 외교의 최일선에 섰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 임시정부가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중국 측에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추적을 받고 있던 김구를 피신시키고 임시정부가 이동하는 일 등도 성사시켰다. 1933년 중국 국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김구와 장개석(蔣介石) 회담도 그가 이룬 성과였다. 이 회담을 통해 중국 육군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이 신설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중경 안착, 한국광복군 창설, 임시정부의 차관 교섭 등 거의 모든 대중 외교업무가 그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광복 후 중국에 남아 2백만명 이상의 한인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 임시정부가 세운 대중국 외교기구인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단장을 맡으며 임시정부의 마지막 외교활동까지 책임졌다. 1948년 고령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김구가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 귀국했다. 이듬해인 19949년 3월 9일 고국에서 숨을 거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양승희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캘리그래피그룹 묵화연 전속 작가 · 강원은빛실버 예술제 최우수상
C : 010-6384-2329, E : eyounho@naver.com

조소앙

1887.04.10–1958.09.10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무후선열-202]

정치·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個人)과 개인(個人), 민족(民族)과 민족(民族), 국가(國家)와 국가(國家) 간의 호혜평등(互惠平等)으로 민주국가 건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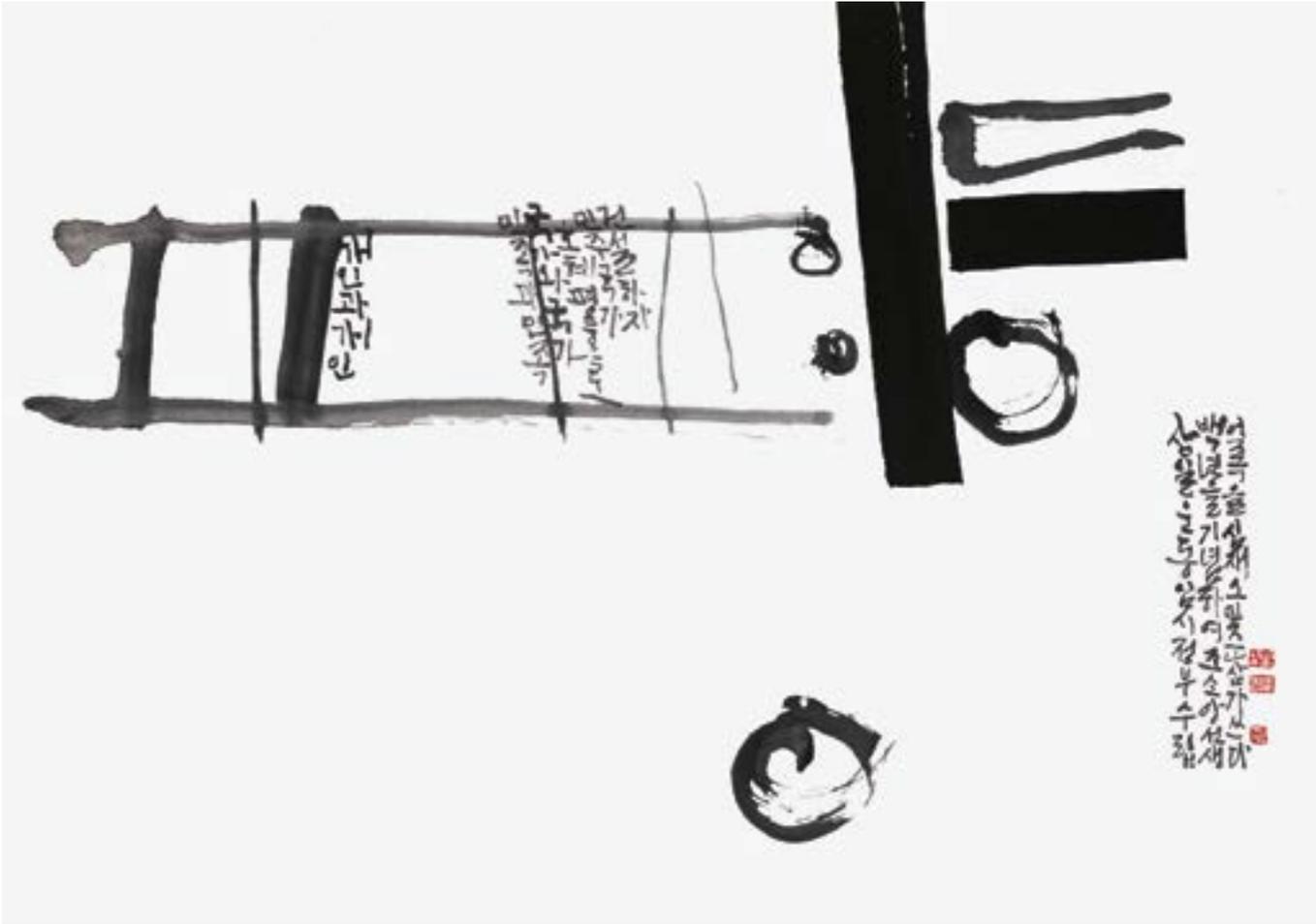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1887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6세부터 통정대부인 할아버지 조성룡(趙成龍)으로부터 한문을 수학, 1902년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같은 해 이하영(李夏榮) 등의 매국음모를 막기 위하여 성균관에서 신채호(申采浩) 등과 성토문을 만들어 항의하였다.

1904년 성균관을 수료하고, 황실유학생에 선발되어 일본 동경부립 제1 중학에 들어갔다. 1906년 동경유학생 친목단체인 공수학회(共修學會)를 조직, 회보를 발간하면서 주필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며, 1909년 동경에 있는 조선인의 각 단체를 통합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를 창립하여 회지 『대한흥학회보』의 주필이 되었다. 경술국치 때는 '한일합방 성토문'을 작성하고 비상대회 소집을 꾀하려다 발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1911년 조선유학생친목회를 창립하고 회장이 되었다. 1912년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경신학교, 양정의숙, 대동법률전문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3년 중국에 망명하였다. 1919년 봄 만주 길림(吉林)에서 무장항쟁노선이 집약된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독립운동 지도급 인사 39인의 공동서명으로 발표하였다. 대한독립선언서는 국내외에 그 영향력을 크게 떨쳤다.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조직하고 부주석에 선출되었다. 한성정부(漢城政府)에서는 교통부장에 추대되었다.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정부헌법·의정원법(議政院法)의 기초위원과 심사위원을 거쳐 초대 국무원 비서장을 역임한 뒤 국무위원에 선임되었다. 6월에는 파리에 도착하여 김규식(金奎植)과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30–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삼균주의를 국시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기초하였으며, 1945년에는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 되었다.

해방 후에 임시정부요인들과 귀국하여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고수를 주장하였다. 1948년 4월에는 남북협상차 평양에 다녀왔고, 12월에는 사회당을 창당하여 당수가 되었다. 1950년 5·30총선에서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여 34,000여 표를 받아 전국최고득표자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초기 서울에서 납북되었다. 1958년 9월 10일 국제간첩으로 몰려 투옥되었다가 사망하였다.



오민준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대전대학교 서예디자인학과 교수·저서:‘오민준, 캘리그래피를 다시쓰다’ 이가출판사, 2018 C：010-8745-7486, E：minjunart@naver.com

이강

1878.04.18–1964.10.13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임시정부요인-19]

나라사랑은 겨레사랑이며 겨레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이강이 즐겨 하던 말(머느리 황춘자 회고)

1878년 평안북도 용강에서 태어났다. 1902년 미주개발회사(美洲開發會社)에서 모집한 이민에 합류, 하와이로 건너가 1년간 영어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1903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다. 이때 안창호(安昌浩)를 만나 안창호의 권고로 학업을 단념하고 안창호·정재관(鄭在寬) 등 동지들과 함께 1904년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창립, 1905년 11월 기관지 『공립신문(共立新聞)』을 창간해 주필이 되었다.

1907년 초에 안창호와 신민회(新民會)를 창립하기로 하여 먼저 안창호를 귀국시키고 뒤이어 귀국하였다. 양기탁(梁起鐸)을 중심으로 국내동지들과 함께 1907년 4월 서울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몇 달 뒤에 바로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서 정재관과 함께 신민회 블라디보스토크지회를 설립하였다. 1909년 2월 신민회의 합법적 외곽단체로서 미주에서 종래의 공립협회를 확대, 개편하여 재미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Korean National Association)가 조직되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정재관과 함께 재로대한인국민회(在露大韓人國民會)를 조직해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지들과 함께 『해조신문(海潮新聞)』을 창간하여 편집·논설기자로 활동하고, 『대동공보(大東共報)』로 제호를 고친 뒤에 편집책임을 맡았다.

1909년 10월 이토[伊藤博文] 처단계획이 대동공보사에서 수립될 때 참석하였다. 안중근(安重根)이 이토 포살의 특공대로 자원해 하얼빈에 갔을 때 안중근과 대동공보사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안중근의 의거가 성공한 뒤에는 안중근을 위한 영국인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북경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대동공보』가 일본영사관의 압력으로 정간되자 시베리아의 치타로 가서 『정교보(正教報)』라는 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1919년 9월 러시아령에서 파견한 강우규(姜宇奎)의 일본총독 사이토[齋藤]에 대한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자 그 연루자로 지목되어 일본의 파견경찰에 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50일간 투옥당한 뒤 석방되었다.

1919년 말 석방되자 바로 상해로 탈출해 안창호를 만나서 임시정부에 참여, 의정원(議政院) 의원·부의장·의장을 역임하였다. 안창호가 중심이 된 흥사단 운동에도 참가해 흥사단 원동지방위원회(遠東地方委員會)를 설치하였고 중국 일대에서 강연을 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원회진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10주년 회원전 참여 · 대한민국영남서예대전 캘리그래피부문 입선
C : 010-2000-2211, E : dragoncalli@naver.com, H : www.instagram.com/dragon_calli



독립운동가 이강선생의 어록을 쓴다. 

김수애

1889.05.12~1976
독립운동, 교육, 건국훈장

교육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다. 교육이 있으면 살고 교육이 없으면 죽는다.

1920년 9월에 전개된 민족교육기금 조성운동

황해도 장연 출신. 아버지는 김성승(金聖勝)이며, 어머니는 김성은(金聖恩)이다.

송천학교를 마치고 상경.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 초량소학교 교사로 부임. 민족정신을 일깨우고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를 몰래 가르쳤다.

이 일로 여러 번 단속을 당하고, 붙잡힐 기미가 보이자 1911년 만주 통화현(通化縣)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남경에서 중화명덕여자학원(中華明德女子學院)을 다녔다. 1919년 1월에 김규식(金奎植)과 결혼하고 상해로 이주. 김규식·신석우(申錫雨)·선우혁(鮮于爌)·장덕수(張德秀)·여운형(呂運亨) 등과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여 이사로 취임. 국내외 만주를 내왕하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같은 해 7월 상해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 이사로 취임하고 다음 해에 부속간호학교를 설립하였다.

1920년 1월에 역시 상해에서 손정도(孫貞道)·김철(金徹)·김립(金立)·윤현진(尹顯振)·김구(金九) 등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배부하여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또한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며 일본 정부 대신 및 친일 한국인을 처단할 목적으로 대의용단(大義勇團, 또는 의용단)을 조직하였다. 같은 해 11월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23년에는 부인회 대표로 국민대표대회에 참석하였다.

1934년에는 상해 한인여자청년동맹의 간부로 활약하였다. 1943년 2월에는 충칭(重慶)에 있는 각계 각파 부인 50여 명과 함께 한국애국부인회재건대회를 개최하여 주석으로 선출되고, 국내외 부녀는 총단 결하여 전민족해방운동과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해 분투하자는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해에 영국과 미국의 원수가 워싱턴 회담에서 전후 한국을 독립시키기 전에 국제감시보호하에 두기로 하였다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에 분노해, 같은 해 5월 중국에 있는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무정부주의연맹·한국청년회와 함께 재중국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애국부인회 대표 자격으로 주석단(主席團)의 일원으로 선출된 뒤, 한국은 완전 독립되어야 하며 전후에 어떠한 국가의 공동관리나 보호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 광복 후인 1946년 모교인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1948년 평이사로 있다가 1962년 사임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유미진 심뽀글씨디자인연구소 대표·(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부산지회장·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C : 010-5125-2158, E : sim_bbo@naver.com, H : www.sim-bbo.com



손정도

1882.07.26~1931.02.19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임시정부요인-18]

나는 제 몸으로 더러움을 닦아내는 길레 같은 삶을 살겠다.

손정도 선생의 길레 철학

도산 안창호와 함께 평안남도 강서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다. 전통적인 유림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10년에 선교사로 동상성에 파견되었을 때 독립운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1912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활동과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자금모금을 하던 중 일제 예비검속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상해로 망명하였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부의장에 선출되었다가 이동녕이 사임으로 의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국내의 동포와의 연락을 책임지는 교통총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교통국은 임시정부의 문서를 국내 동포에게 전달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걷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부서였다. 이처럼 그는 초기 임시정부의 수립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해에서 활동하면서도 한성 임시정부의 평정관(評定官)으로도 선임될만큼 국내외에서 큰 신망을 받고 있었다. 1922년에는 김구(金九)·여운형(呂運亨) 등과 함께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조직하였다. 아울러 상해 교민들을 돕기위해 학교와 교회를 건립하여 구심점이 되도록 했다.

1921년부터 그는 만주에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길림지역에 한인교회와 유치원, 공민학교 등을 설립하여 한인 2세들의 교육, 특히 민족교육에 전력을 기울여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오랜 망명생활과 일제의 감시로 건강이 악화되어 1931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그의 유해는 서거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장례비가 없어 길림 동문 밖 봉천인(奉天人)의 임시 장지에 봉안되어 있다가, 9월이 되어서야 길림성 북문 밖 북산(北山)에 있는 중국인 토지에 안장되었다. 한편 일본 경찰은 그의 죽음을 추도하는 많은 인파들이 모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여 그의 장례식도 성대히 치르지 못하도록 견제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선생의 묘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중국문화대혁명 때 묘소를 전부 파헤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의 동생 필도 씨가 선생의 묘소를 밀산으로 이장하였고, 조카 손원진씨가 관리해 오던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1996년 9월 11일 국내로 그 유해를 봉환하였고,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임정요인 묘역에 안장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유설영 E : dsacb@naver.com, H : www.instagram.com/just_handwriting



이병목

1900.08.14~1931.02.26

만주방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57]

**나도 조선 민족의 일원이므로 대화(大和) 민족의 지배하에 예속되는 것은 뜻
뜻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독립을 희망한다.**

경성지방법원, <이병목 신문조서 (제2회)>, 1929.3.15.(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0 - 독립
군자금모집 9, 1999, 212쪽)

서울중앙학교(中央學校)에 다닐 때 이미 만주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친형 이병욱(李丙旭)과 연락
하며 국내 항일운동상황 연락임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실이 일본경찰에 탐지되자 3학년을 중퇴하고 만
주로 가서 윤세웅 휘하에 들어갔다.

그 뒤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에 가입하여 환인(桓仁)·흥경(興京)지방 총관소(總管所) 총관으로 있으면
서 소학교를 설립하고 교포자녀들의 육영사업에 힘썼다.

한편, 독립군을 압록강변의 초산·벽동 등지에 파견하여 한민국경지대의 일제 수비초소를 습격하게 하고
일본경찰 살상, 기관파괴, 무기탈취, 망명항일투사의 길안내, 군자금모금 등 각 방면으로 활동하여 상해임
시정부의 경비조달과 환인현일대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에 노력하였다.

1927년 신민부(新民府) 중앙집행위원장 김좌진(金佐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의 일본고관 및 친일분
자의 암살, 중요시설의 폭파, 군자금모금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현규(申鉉圭, 일명 錫巖)·손허(孫訐)
·손봉현(孫鳳鉉)·윤창선(尹昌善) 등과 더불어 권총과 폭탄을 휴대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국내 애국동지
5, 6명을 규합한 다음 경상남북도에서 활약하다가 1928년 대구에서 동지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잡혔다.
1929년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 중 취조 때 당한 극심한 고문과 옥
고로 옥사하였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유춘화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공서트 외 그룹전 다수
E : realregina@hanmail.net H : www.instagram.com/calli_queen

고이허

1902.09.05–1937.02.17

국민부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86]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 일본 침략세력을 박멸하고 4천년을 독립하여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국민 전체 생활의 평등을 확보하며, 나아가 세계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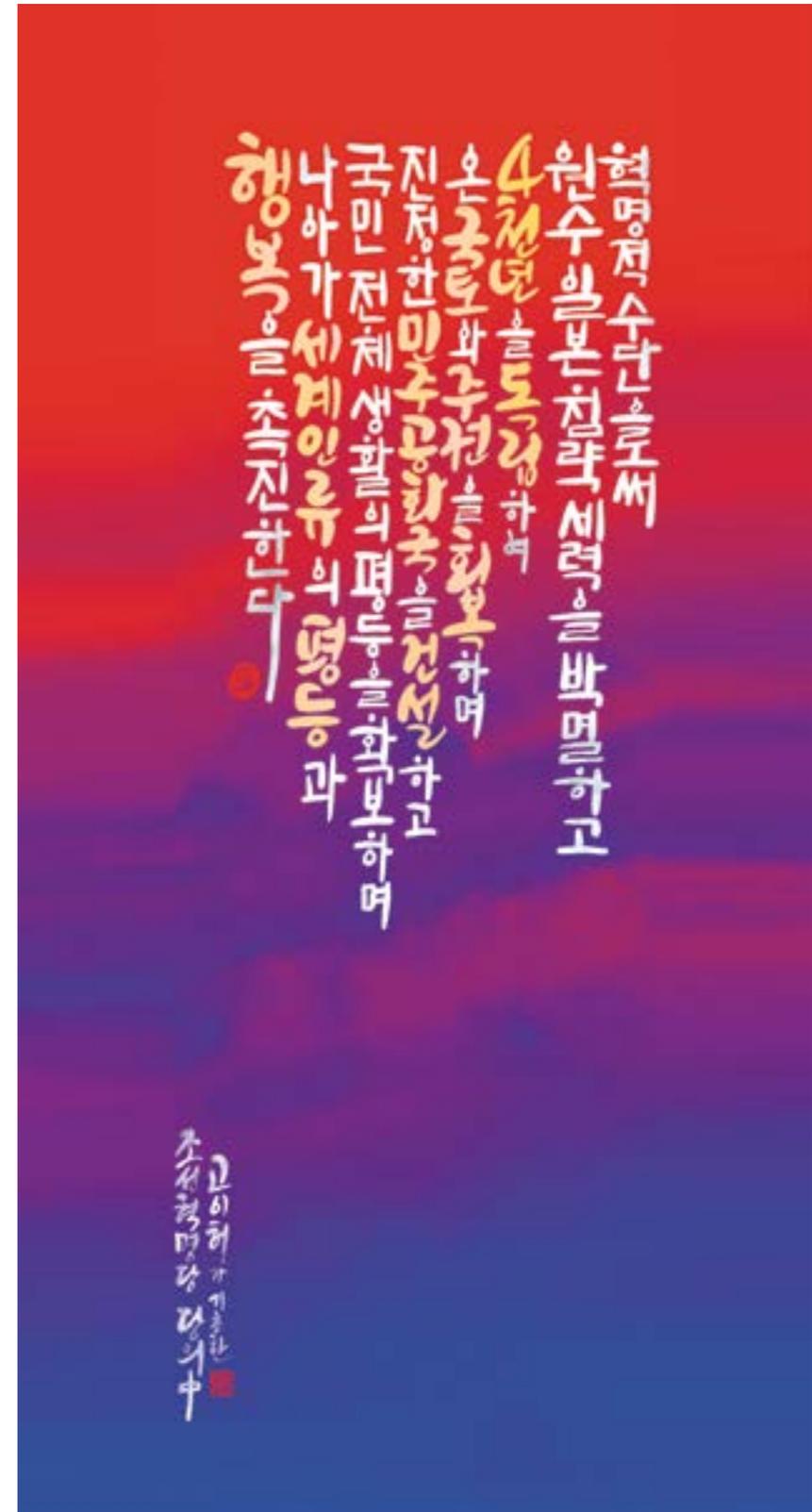
고이허가 기초한 <조선혁명당 당의> 중에서

본명은 최용성. 황해도 수안 출신. 배재학교(培材學校)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을 전개하였다. 만주 망명 도중 창춘[長春]에서 김영석(金永錫)의 소개로 김진호(金鎭浩)·변창근(邊昌根)을 만나 회덕헌농우회(懷德縣農友會)에서 활동하다가 그 후 정의부(正義府)에 참가하였다.

1928년 11월 정의부 재무부집행위원으로 정의부소속 대대에 군복을 구입, 공여하였다. 1929년에는 국민부(國民府)의 교육위원장 및 조선혁명당의 중앙위원 겸 조직부책임자로 활약하였다. 같은 해 9월 27일 국민부의 외무집행위원이 되었다. 그 해 11월에는 남만한인청년총동맹중앙간부(南滿韓人靑年總同盟中央幹部)로 피선되었다. 1930년 동성조선인농민총동맹상무집행위원(東省朝鮮人農民總同盟常務執行委員)으로 활동하였다.

1932년 1월 흥경(興京) 교외에서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장 이호원(李浩源), 총사령관 김관웅(金寬雄) 및 이종건(李鍾建)·장세용(張世湧)·이규성(李奎星) 등 10여 명의 간부들이 일본경찰에 붙잡히자, 중앙집행위원장대리로서 조선혁명당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만여 명의 군대를 맹훈련하는 한편, 중국의용군 총사령 이춘윤(李春潤)과 합작해 한중연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1934년 8월(음력)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梁世奉)마저 순국하였다. 이에 전력 준비를 위해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을 통합한 조직 조선혁명군정부를 출범하였으며 중앙집행위원회장을 맡아 전신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수사망이 집중되어 조선혁명군의 위세는 점차 약화되었다. 고군분투하던 중 일본관동군의 대토벌대가 흥경현 일대를 석권하면서 조선혁명군정부의 근거지를 포위공격하자 대항, 교전하였다. 그러나 부하들은 하나씩 전사하고 실탄마저 떨어지자 권총을 가슴에 대고 자결하고자 했으나 탄환이 다 떨어져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의 포로가 되었다. 환인(桓仁)·봉천(奉天) 등지로 압송되면서 일본군의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1936년 봉천에서 순국하였다.

유한나 꽃필글씨 디자인연구소 대표·한국폼테리어협회 지부장·캘리그래피 작가들의 모임 운영진
C : 010-4678-2558, E : withupop@naver.com, H : www.instagram.com/kkotpil



방정환

1899.11.09-1931.07.23
아동문학가, 교육_건국훈장 애국장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돌이서 눈물 흘린다

방정환 선생의 동요 <형제별>

호는 소파(小波)이며 서울 출생이다. 선린상업학교를 중퇴하고 17세에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취직했다가 곧 사직하였다. 이후 천도교청년회, 개벽사, 천도교소년회 등과 관련을 맺었다. 1917년 손병희의 딸 손용희와 결혼하여 손병희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청년문학단체인 '청년구락부'를 조직하면서 어린이운동에 관심을 보였고, 이어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 입학했다. 1920년 일본 도쿄의 도요[東洋]대학에서 철학과에 입학,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연구했다. 1921년 서울로 돌아와 천도교소년회를 만들고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또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늑은이, 젊은이와 대등하게 격상시켰으며, 어린이 동화집도 냈다.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1923)를 창간하고 최초의 아동문화운동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여 그 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다. 또한 『신청년(新靑年)』, 『신여성(新女性)』, 『학생(學生)』 등의 잡지를 편집·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동화구연대회, 소년문제 강연회, 아동예술 강습회, 소년지도자대회 등을 주재하여 계몽운동과 아동문화운동에 앞장섰다. 창작동화뿐만 아니라 많은 번역·번안 동화와 수필과 평론을 통해 아동문학의 보급과 아동보호운동을 하였다.

저서로는 『사랑의 선물』과 사후에 발간된 『소파전집(小波全集)』(박문출판사, 1940), 『소파동화독본』(조선아동문학협회, 1947), 『방정환아동문학독본』(을유문화사, 1962), 『칠칠단의 비밀』(글벗집, 1962), 『동생을 찾으러』(글벗집, 1962), 『소파아동문학전』(문천사, 1974) 등이 있다. 한편 1957년 새싹회에서는 '소파상(小波賞)'을 제정하여 해마다 수여하고 있다.



윤경호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캘리콘서트 '그때 그사람'전 외 다수 전시참여 · 대국민화합 통일을 위한 캘리그래피대전 특선
C : 010-4297-1101, E : ttashan@naver.com, H : www.instagram.com/_ttadi

안중근

1879.09.02-1910.03.26

독립운동, 교육가, 의병장, 의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나는 개인자격으로 남을 죽인 범죄인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의병참모총장(大韓國 義兵參謀中將)의 의무로 소임을 띠고 하얼빈에 이르러 전쟁을 일으켜 습격한 뒤에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다. 여순지방재판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즉,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써 판결하는 것이 옳다.

안중근의사의 최후진술 중에서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태어났다. 동학운동이 일어나자 아버지 안태훈이 사병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가담하였으며, 1895년 아버지를 따라 가톨릭교에 입교하여 신식 학문을 접하고 가톨릭 신부에게 프랑스어를 배웠으며, 도마[Thomas, 多默]라는 세례명을 얻었다.

1904년 홀로 평양에 나와 석탄상을 경영하고 이듬해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는 것을 보자 상점을 팔아 1906년 그 돈으로 삼흥학교[三興學校; 후에 오학교(五學校)로 개칭]를 세우고, 이어 남포(南浦)의 돈의학교(敦義學校)를 인수하여 인재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국운(國運)이 극도로 기울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7년 연해주(沿海州)로 가서 의병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전제덕(全濟德)의 휘하에서 대한의군참모총장(大韓義軍參謀中將) 겸 특파독립대장(特派獨立大將) 및 아령지구(俄領地區) 사령관의 자격으로 엄인섭(嚴仁燮)과 함께 1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침투, 일군(日軍)과 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퇴하였다.

1909년 동지 11명과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고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였다. 그 해 10월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러시아 재무상(財務相)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하여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동지 우덕순(禹德淳)과 함께 거사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동지 조도선(曹道先)과 통역 유동하(劉東河)와 함께 이강(李岡)의 후원을 받아 행동에 나섰다.

1909년 10월 26일 일본인으로 가장 하얼빈 역에 잠입하여 역 플랫폼에서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이토를 사살하고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타이지로[森泰二郎], 만철 이사(滿鐵理事) 다나카 세이타로[田中清太郎]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일본 관헌에게 넘겨져 뤼순[旅順]의 일본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듬해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3월 26일 형이 집행되었다. 옥중에서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집필하였으며, 서예에도 뛰어나 옥중에서 휘호한 많은 유묵(遺墨)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고, 1970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47번지에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윤경희 윤경희글씨작업터 대표·전)신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사무국장·2018 개인전 '당신과의 시간'
C : 010-3203-0545, E : scalley@naver.com, H : www.instagram.com/collie_graphy

이범석

1900.10.20-1972.05.11

독립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조국!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말이고, 또 생각 없이 불리며 일컬어지는 단어다. 그러나 조국이라는 이 두 글자처럼 온 인류, 각 민족에게 제각기 강력한 작용과 위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다시 없으리라 본다. 아니 그렇게 믿는다. 믿는 것이 옳은 내 견해이고, 내 체험의 소산인 것이다.

이범석 장군의 회고록 <우등불> 중에서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철기(鐵驥). 서울 출생.

1910년 사립 장훈학교(長薰學校)에 들어갔고, 1913년 이천공립보통학교 거쳐서 경기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915년 여운형(呂運亨)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1916년 항조유체육학교에서 6개월간 수학하였으며, 원난강무학교(雲南講武學校)를 수석으로 졸업하자 구대장 서가기(徐家驥)가 자기의 기(驥)에 철(鐵)을 덧붙여 '철기'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그 뒤 건해자(乾海子) 기병연대 견습사관이 되었으며, 1919년 신흥무관학교 교관,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교관, 1920년 사관연성소(士官練成所) 교수부장이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청산리대첩에서 총사령관 김좌진(金佐鎭)을 도와 제2제대(第二梯隊) 지휘관으로 크게 활약하였고, 1923년에는 김규식(金圭植) 등과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을 창설하여 기병대장을 맡기도 했다.

1925년에는 소련합동민족군의 수분지구(綏芬地區) 지휘관으로서 소련혁명전에 참가하였으며, 그 뒤 중국항일군의 흑룡강성군(黑龍江省軍) 작전과장, 중국군 유럽군사시찰단원을 역임하였고, 1934년 뤼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 한적군관대장(韓籍軍官隊長)을 지냈다. 중국육군 제3로군 참의급(參議級) 고급참모(중국군 소장), 중국군 제3집단군 55군 군단참모처장, 1940년에는 중국군 중앙훈련단 중대장을 거쳤다.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 뒤에는 제2지대장으로서 미국군과 합동작전에 참가하였고, 1945년에는 광복군의 참모장(중장)이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겸임하였고, 1950년에는 주중국대사, 같은 해에 내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51년 12월 이승만의 지시로 이기붕 등과 자유당을 창당했으며, 1952년에는 원외 자유당 부당수로 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패하였으며, 1953년 이승만의 축청계 숙청으로 자유당에서 제명당했다. 1956년에는 무소속으로 다시 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고, 1960년 자유연맹을 바탕으로 참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63년에는 '국민의 당' 결성에 참여하여 최고 의원이 되기도 하였고, 1967년 1월에는 윤보선·유진오·백낙준과 함께 4자회담을 성사시켜 통합야당 신민당 출범에 이바지하였다. 1972년 5월 11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196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았다. 유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윤유선 늘품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캘리그래피 그룹전 라온제나 총3회 참여
C : 010-2589-7329, E : lemon-shake@hanmil.net



이명희

1878.01.23~1921.03.03
만주방면_건국훈장 독립장[애국지사-012]

남아가 이미 신하된 몸으로 나라의 원수를 아직 갚지 못하고, 백성의 원한을 갚지 못하였으니, 살기도 사는 것이 아니며 죽어도 한이 남는지라 풀려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니 속히 죽여 달라.

선생의 공술 중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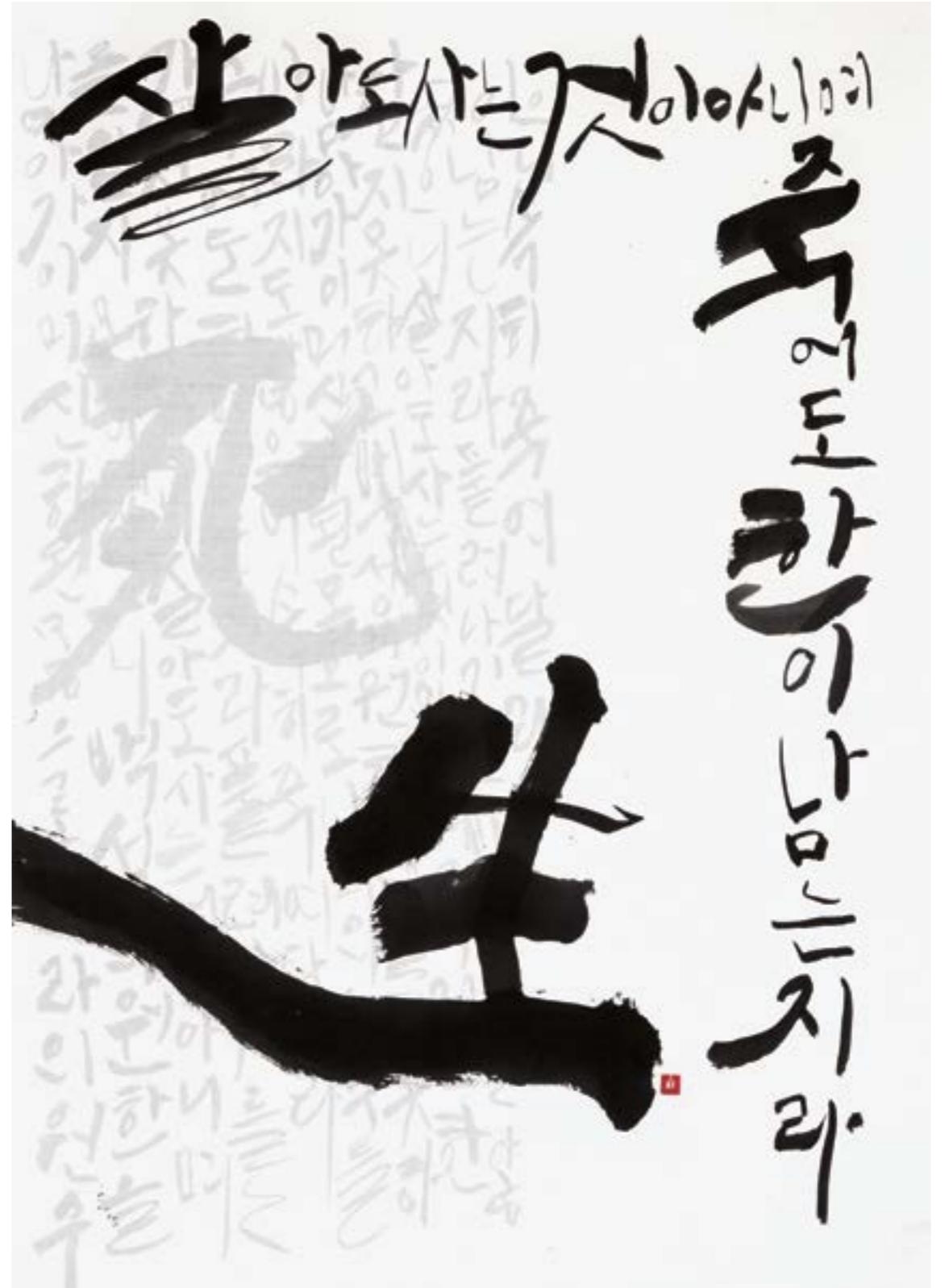
1878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유인석(柳麟錫)의 문인으로 1891년 성균관 진사, 1902년 제천군 주사를 지냈으며 1896년 유인석을 도와 의병을 일으켰다. 1905년 황학수(黃學秀) 등과 함께 제천에 동명학교(東明學校)를 설립했다. 1907년에는 친일파인 청풍(淸風), 단양(丹陽), 영춘(永春) 군수를 처단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만주로 건너가 대한독립단 지휘 하에 있는 남만주 제1사단 제3중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일본인 오카무라[岡村]와 고노[河野]등을 살해하였다. 그 해 안동[安東]현 신탄오거우[三道溝]에 있는 중국인의 집에서 머물던 중 평북 제3부 일본경찰대 30여 명의 습격을 받아 교전하다가 안용봉(安龍鳳), 박완식(朴完植), 안중석(安重錫), 정인복(鄭仁福), 백학원(白學源), 김근배(金根培) 등 동숙하던 일행 15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이강호 표시근 캘리그래피 기획전 2018 '사랑'전 참여 · 2017년, 2018년 캘리콘서트 참여 · 국립서울현충원 '6·25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전 참여
C : 010-2735-0434, E : 01027350434a@gmail.com, H : www.instagram.com/calli_khlee



남자현

1872.12.07(음력)~1933.08.22(양력)
서로군정서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41]

만일 너의 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의 자손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남자현 선생의 유언 중에서

본관은 영양(英陽), 경상북도 안동 출신. 남정현(南廷漢)의 딸이다. 19세 때 김영주(金永周)와 결혼하였
다. 6년 후인 1895년 남편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자, 3대 독자인 유복자를 기르면서
시부모를 모셨다.

1919년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활약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와 군
사기관, 농어촌을 순회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동만주 12곳에 교회와 예배당을 세워 전도하였으
며, 10여 곳에 여자교육회를 설립해 여성을 계몽하는 데도 힘썼다.

또한, 남만주 각지를 순회하면서 동포간의 단합과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활약하였다. 1924년 채찬(蔡
燦)·이청산(李靑山) 등과 총독 사이토[齋藤實]를 암살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다시 만주
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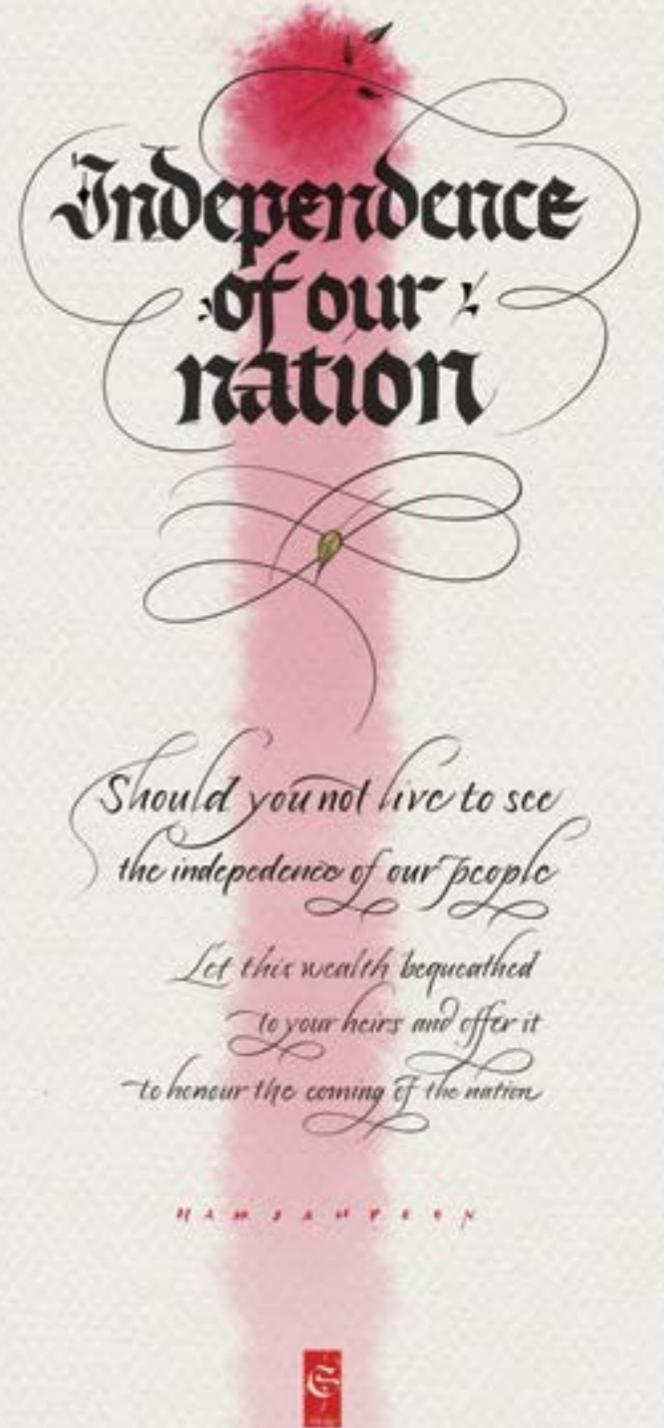
마침 그때 길림(吉林)주민회장 이규동(李圭東), 의성단장(義成團長) 편강렬(片康烈)·양기탁(梁起鐸)·손일
민(孫一民) 등이 주동이 되어 재만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발기하자 이에 적극 참가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1928년 길림에서 김동삼(金東三)·안창호(安昌浩) 등 47명이 중국 경찰에 검거되자 지성으로 간호하며 석
방운동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31년 김동삼이 하얼빈[哈爾濱]에서 붙잡히자 그를 탈출시키려고 온갖 노
력을 다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1932년 국제연맹 리트조사단이 하얼빈에 오자, 흰 수건에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이라는 혈서를 써서
조사단에 보내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1933년 이규동 등과 주만일본대사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
를 죽이기로 하고, 동지와의 연락 및 무기운반 등의 임무를 띠고 결연노파 차림으로 하얼빈 교외 정양가
(正陽街)를 지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6개월 동안 갖은 혹형을 받다가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
지느니라."라는 말을 남기고 하얼빈에서 세상을 떠났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이문섭 한국레터링예술협회 부회장·비주얼스튜디오 "Stolino" 소속 작가·Calligraphy Masters Crew 멤버
C : 010-4991-1411, E : lilmoon8089@gmail.com, H : www.instagram.com/slo.leecalli



권병덕

1868.04.25(음력)~1943.07.13(양력)

3·1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17]

나는 차라리 계림의 개와 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권병덕, <조선총사(朝鮮總史) 中 (미간행본, 『朝鮮出版警察月報』 第117號, 1938.5.11, 40쪽
(한국사데이터베이스-경성지법 검사국 문서)에서 재인용)중에서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청암(淸菴)·정암(貞菴)·우운(又雲). 충청북도 청원 출신. 18세에 동학교인이 되었다.

1894년 동학운동 때 손병희(孫秉熙)와 함께 6만명의 교도를 이끌고 호응했으나, 관군에 의해 진압당한 뒤 전국 각지를 방랑하였다. 1908년 일본에서 귀국한 손병희가 천도교를 일으키자 입교했다. 이후 천도교의 전제관장(典制觀長)·이문관장대리(理文觀長代理)·금융관장(金融觀長)·보문관장(普文館長) 등을 역임하였다.

1919년 2월 25일경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 보고와 국장 참배를 위하여 상경했을 때 손병희·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에게, 3·1운동 계획을 들었다. 이에 찬동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 달 27일에 최린(崔麟)·오세창·임예환(林禮煥)·나인협(羅仁協)·홍기조(洪基兆)·김완규(金完圭)·나용환(羅龍煥)·홍병기(洪秉箕)·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 등과 함께 김상규(金相奎)의 집에 모여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였고, 이들과 함께 민족대표로서 성명을 열거하고 날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는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한 사람 중에서 29인이 모였다. 이 때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 만세삼창을 외치고 일본경찰에 자진해 붙잡혀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천도교 종리원(宗理院)의 서무와 주임을 거쳐, 중앙교회 심계원장·감사원장·선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조선총사(朝鮮總史)』, 『이조전란사(李朝戰亂史)』, 『궁중비사(宮中秘史)』 등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이상우 '담은' 캘리그래피 디자인 대표·익산캘리그래피 연구회 '익산글링' 대표·'(사)한국레터링예술협회' 아티스트
C : 010-4191-3330, E : lsw10968@naver.com, H : www.instagram.com/soram_calli



윤세복

1881.03.29(음력)–1960.02.13(양력)

만주방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58]

이 몸이 옥사한 뒤 유해를 출송(出送)거든 원컨대 동지들아 그 당시 화장하야 목단강 흐르는 물에 남은 재를 던져주 또 만일 출옥되면 갈 곳이 어디메뇨 아 백두산 기슭에 한 줌 흙이 되었다가 천진전(天真殿) 신 건축할 제기와 받침 하오리

윤세복 선생의 옥중 시(1944) 중에서

1881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다.

1910년 12월 서울에 올라와 대종교에 입교하였다. 다음 해 정월 시교사(施教師)로 선임되자, 가산 수천 석을 정리하여 남만주로 옮긴 뒤 사재를 들여 환인현(桓仁縣)에 교당을 설립하여 시교에 힘쓰는 한편, 환인현에 동창학교(東昌學校), 무송현(撫松縣)에 백산학교(白山學校), 북만주 밀산당벽진(密山當壁鎭)에 대흥학교(大興學校), 영안현(寧安縣)동경성(東京城)에 대종학원(大衆學園)을 설립 또는 경영하며 5년 동안 교육에 진력하였다.

1916년 무송현 등 여러 곳에 교당을 설립하여 7,000여 명의 교인을 새로이 모으는 한편, 흥업단(興業團)·광정단(光正團)·독립단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1924년 선종사(先宗師)인 무원종사(茂園宗師金敎獻)의 유명을 받고 영안현 남관(南關)에서 교통(敎統)을 이어 제3대 도사교[教主]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취임 후 4년 만인 1928년에 일본군부의 압력에 놀려 장쥘린(張作霖)이 체결한 이른바 삼시조약(三矢條約)의 부대조항에 의하여 대종교 금지령이 내려지자, 부득이 총본사를 밀산 당벽진으로 옮기는 수난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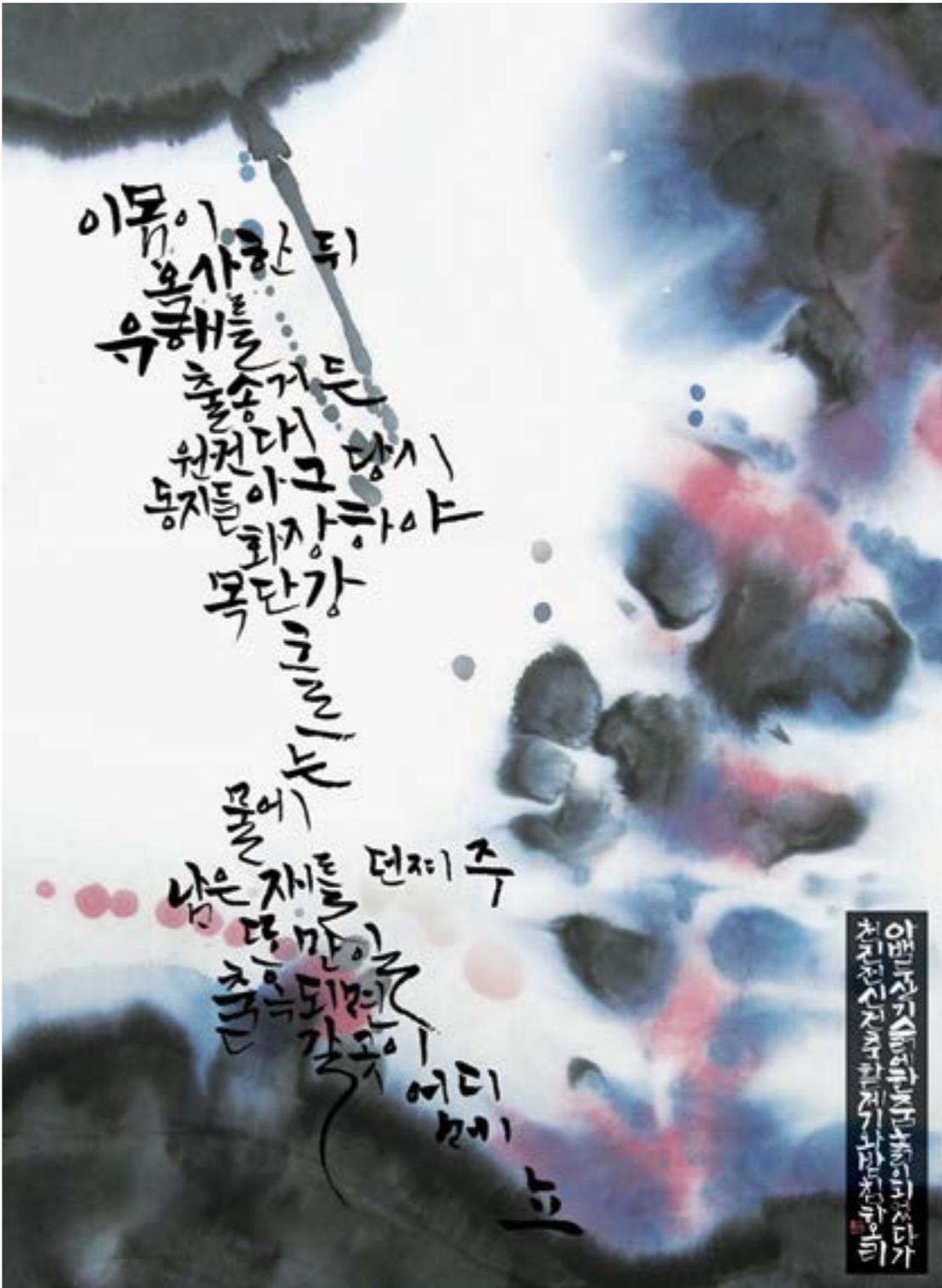
1931년부터 일본군의 만주침략이 격심해지면서 교단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동·서·북 3개의 도본사(道本司)가 해체되었고, 1930년에는 서울에 있는 남도본사(南道本司)마저 폐쇄되는 등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34년 영안현 동경성으로 총본사를 옮겨 단군영정을 모신 천진전(天真殿)을 세웠다. 또한 대종학원을 설립하고 하얼빈에 선도회(宣道會)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교적간행사업(敎籍刊行事業)을 추진하면서 단군천진궁의 건축을 서둘렀다. 1942년 교단간부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붙잡혀 무기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을 교단내에서는 임오교변이라고 부른다.

광복과 더불어 출옥하여 이듬해인 1946년 귀국, 서울에 총본사를 설치하였다. 그뒤 교세확장을 위한 교당의 설치, 교단조직의 정비강화, 단군전의 봉안, 교적간행, 인재양성을 위한 흥익대학의 설립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교단체제를 민주화하여 전통적인 교통전수제(敎統傳授制)를 선거에 의한 총전교선임제(總典敎選任制)로 바꾸고, 현대사회에 맞는 조직체제로 정비, 강화하여 초대 총전교에 취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이영주 심뽀글씨디자인연구소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제2회 심뽀글씨 정기회원전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다'전 외 다수 전시 참여
C : 010-9644-1375



이영희

1848.06.05-1909.03.25

오적주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59]

사람이 태어나면 몸이 있고, 몸이 있으면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나라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라를 버릴 수 없는 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월보의 표지에 그려진 대한지도〉중에서 《해학유서(海鶴遺書)》卷3.

1848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한학(漢學)을 수학하고 과거를 준비하는 한편, 시재(詩才)로써 호남지방에서 이름을 날렸다.

1895년 동학농민운동을 겪은 뒤 농민생활의 안정과 국권 회복에 토지개혁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중앙에 진출하고, 극도로 문란해진 전제(田制)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1896년 경상좌도관찰사 이남규(李南珪)의 막료로 초빙되어 모병과 조련(調練) 등 지방의 치안유지에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이남규가 사직하자 파직되었다.

1898년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되자 양지위원에 임명되어 아산지방에서 관계 시안(試案)을 실시, 지적(地籍)과 세정(稅政)을 바로잡기 위해 힘썼다.

1904년 고종에게 상소하여 시국에 관한 소신을 개진했는데, 특히 4차례에 걸친 『논일인소구진황지소(論日人所求陳荒地疏)』를 통해 황무지개척권 강요의 부당성과 대책을 진언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자 나인영(羅寅永)과 함께 회담장소인 미국으로 건너가 일본의 침략을 호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정계요인들에게 한국의 보호국화를 취소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청년들을 교육시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의 교관이 되어 교육에 힘썼다. 1906년에는 장지연(張志淵), 박은식(朴殷植) 등과 함께 애국계몽단체인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를 조직하고 그 회보와 『호남학보(湖南學報)』, 『조양보(朝陽報)』 등에 서문과 논설을 기고하며 국민계몽운동을 펼쳐 나갔다.

한편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자신회(自新會)를 조직하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준비했다. 1907년 2월 거사에 착수하여 권중현(權重顯)을 저격했으나 실패하고, 박제순(朴齊純) 등에 대한 살해계획도 실패했다. 이에 스스로 거사 사실을 밝히면서 매국노를 제거하려 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그 해 겨울에 풀려났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호남학회의 간부로서 계몽적 글들을 발표하며 애국계몽운동에 힘썼다. 1909년 단교를 창립하는 데 참여했고, 그 해 7월 서울의 여사(旅舍)에서 숨을 거두었다.

1968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영희 표시근캘리그래피 기획전시 2018 사랑'전 참여·2018년 캘리콘서트 참여·2016, 2017, 2018 의왕시 평생학습축제 전시 및 아트마켓 참여
C : 010-8777-6309, E : pcyoung200@hanmail.net

유관순

1902.12.16~1920.09.28

3·1운동_건국훈장 독립장 [무후선열-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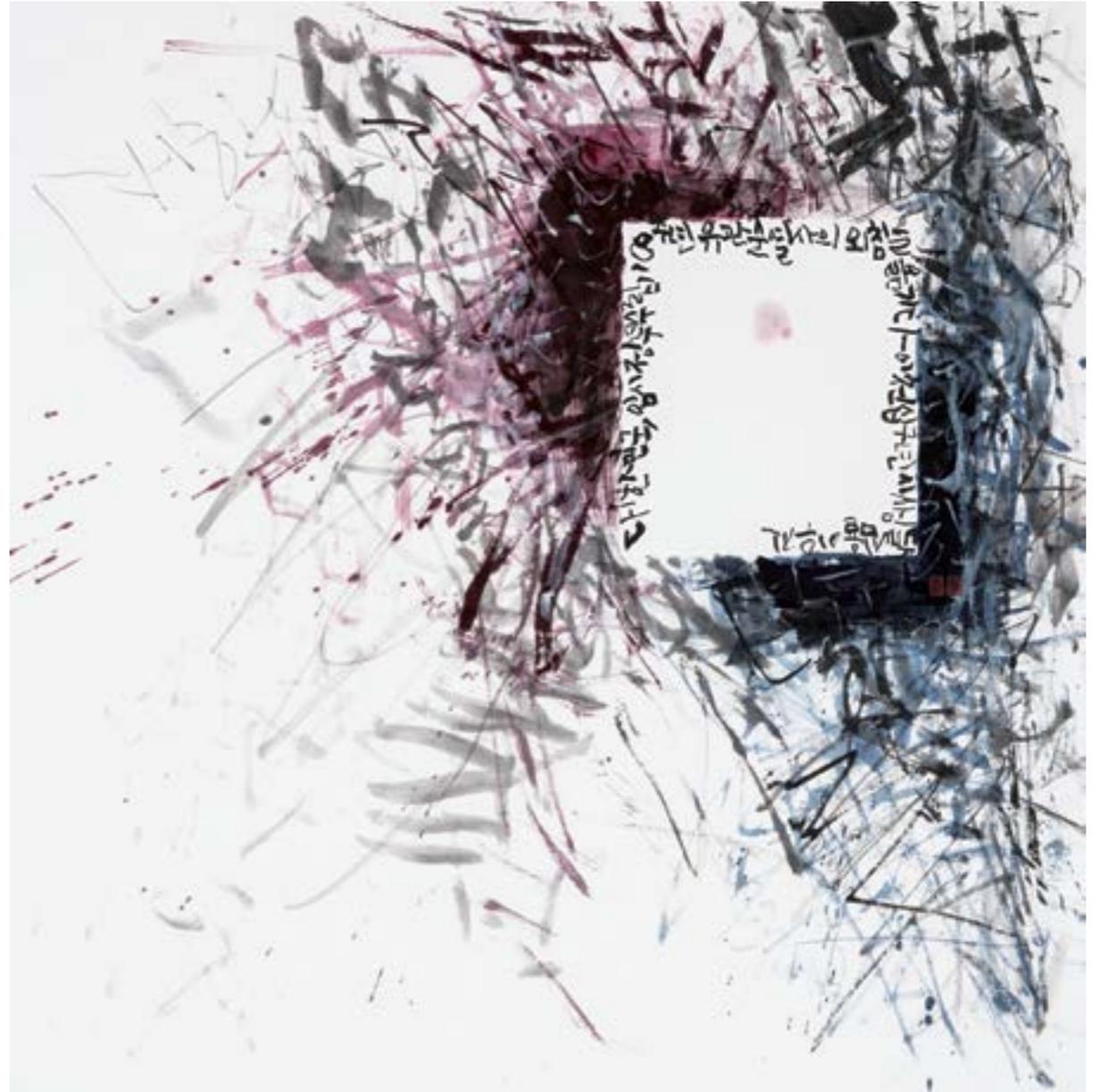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친구들이 기차소리를 듣고, ‘동전 한 푼, 동전 한 푼’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자 유관순이 “대한 독립, 대한 독립”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다. 조부 때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다.

1916년 충청남도 공주 영명여자학교(永明女學校)에서 수학하고, 감리교회 충청도교구의 미국 여성교사의 추천을 받아 이화학당 보통과에 교비 장학생으로 편입하였다. 1918년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과 함께 ‘5인의 결사대’를 결성하여 소복을 입고 대한문 앞에서 곡을 한 뒤 남대문으로 향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3월 5일 학생 연합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3월 10일 일제에 의해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부친 유중권과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병천 시장에서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4월 1일 오전부터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며,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날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하여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는 주동자로 체포되어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받아 상고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에서 더 이상 상고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기해 이신애,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수감되어 있던 독립투사들이 함께 만세를 외쳤으며, 만세 소리가 형무소 밖으로까지 퍼져나가 주변으로 인파가 몰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수감자들과 함께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1920년 4월 영친왕 결혼 기념 특사령으로 1년 6개월로 형기가 단축되었으나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9월 28일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당시 이화학당은 시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형무소에서 거부당하였다. 이에 이화학당 교장이 세계 여론에 알리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해외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장례를 조용히 치러야 하는 조건을 걸고 시신을 인도하였다.

10월 12일 이화학당에서 시신은 인수하여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 뒤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이후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개발하면서 묘가 미아리로 이장되었으나 유골은 수습되지 못했다.



이우진 심울글씨문화연구실 운영·(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전문위원·2018 개인전 '심울, 별을 꿈꾸다'
C : 010-4720-6947, E : anti_mature@naver.com, H : www.instagram.com/simyul_art

오광선

1896.05.14-1967.05.03
서로군정서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36]

그의 본명은 오성묵이며 훗날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조선을 광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상으로 “光鮮”이라고 개명하여 쓰기 시작한 이래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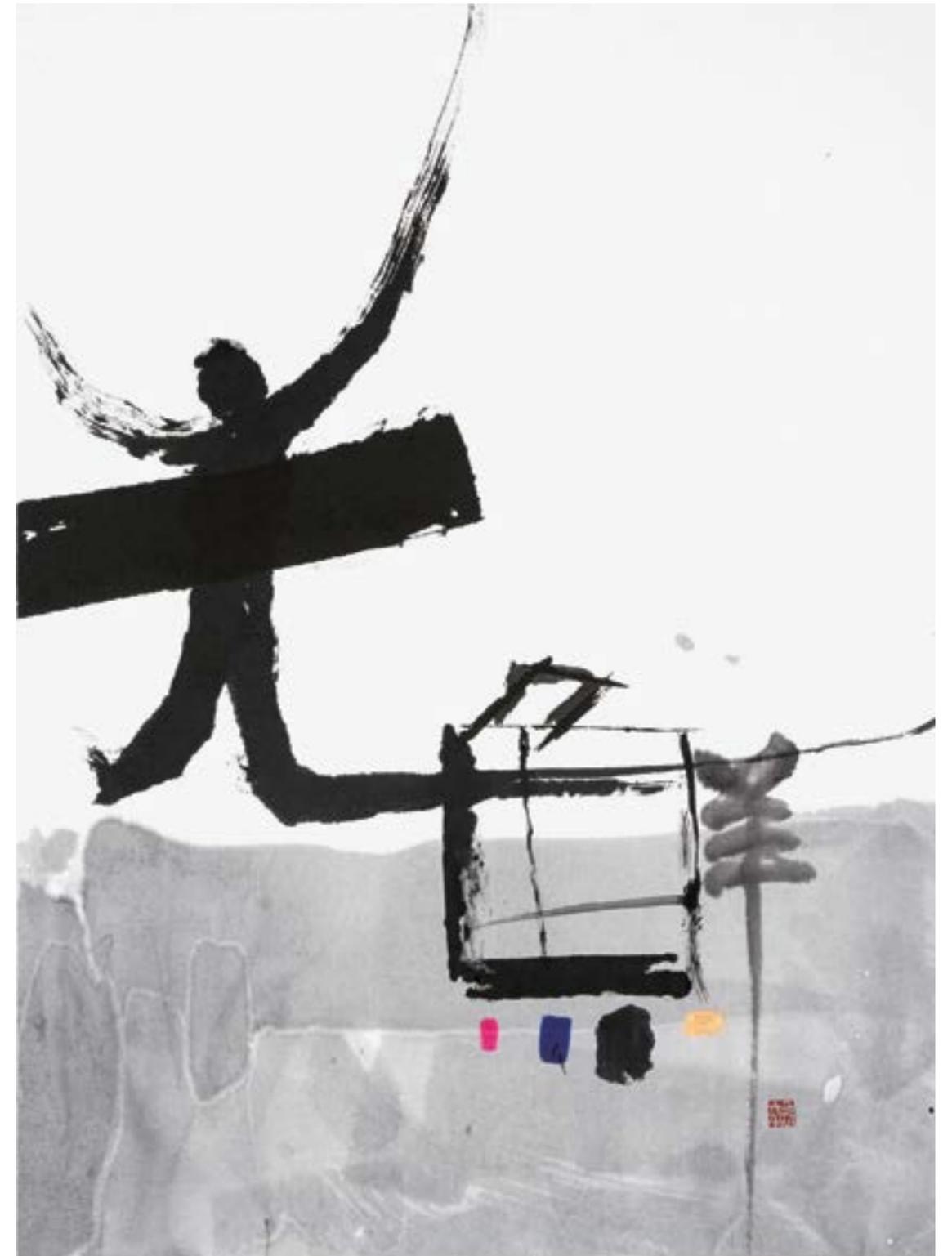
〈경향신문〉 1987.5.27. 〈청년운동반세기(29)-광복청년회 1: 오광선 장군 광복군 지대로 조직〉

1896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1918년 남만주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졸업하고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제1대대 중대장,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거쳐 서로군정서의 별동대장, 경비대장 등을 지냈다. 1920년 홍범도(洪範圖), 지청천(池青天), 김좌진(金佐鎭) 등이 밀산에서 만주 독립군을 통일하여 조직한 대한독립군단의 중대장에 임명되었다. 1930년 일제의 만주 침략에 대비해 한국독립군이 편성되자 의용군 중대장으로 활약했으며, 1931년 12월에는 한중연합군을 구성할 목적으로 중국 호로군사령관 정초(丁超)를 방문한 사령관 지청천을 수행했다. 1933년 7월 대전자령 전투를 통해 대규모의 일본군을 처단하였다.

1933년 김구(金九)가 중국 측과 교섭해 뤼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에 한국독립군을 위한 특별반을 설치할 수 있게 되자 조경한(趙擎韓), 윤경천(尹敬天) 등과 함께 교관으로 초청되어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1940년 1월 베이징(北京)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3년간 복역한 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광복 직후 귀국해 광복군 국내지대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가 대령으로 임관되었다가 준장으로 예편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이유진 하유글씨문화연구소 실 소속 작가·캘리그래피그룹 하연 소속 작가·캘리몬서트 참여 작가
C : 010-8817-0390, E : pj3hw2@naver.com

이강훈

1903.06.03-2003.11.12

주중일국공사주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16]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해서도 안됩니다. 자주독립의 정신을 확실히 가지고 다른 자에게 의지하는 일 없이 독립독보의 정신을 가진다면 혼자서도 조선민족의 국가적 독립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1942년 구마모토형무소 수감 당시 이강훈 선생의 예방구금사건 결정서 중에서(국가보훈처, <일본 사법성 형사국 思想月報>)

1903년 강원도 김화에서 김화군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고향에서 한학(漢學)을 배우고 1917년 철원군 공립보통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하고, 1920년 2월 중국 용정(龍井)을 거쳐 상해(上海)로 건너갔다. 이동휘(李東輝)의 집에 머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실에서 비서로 근무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의 상황에 실망하고 1921년 9월 용정으로 돌아갔다. 용정으로 돌아온 후 국자가(局子街)의 사범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1924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신민부(新民府)에 가입했다. 1926년 김좌진(金佐鎭)의 지시로 안도현(安圖縣) 삼인방(三人坊)에 있는 신창학교(新章學校)에서 근무하며 인재양성에 힘썼다. 1928년 신민부를 탈퇴하고, 길림성 밀산현(密山縣)에 보신학교(普新學校)를 설립하고 교육에 힘썼다. 이듬해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에 가입한 후, 그 해 12월 해림(海林)에서 북만민립중학기성회(北滿民立中學期成會)를 개최하고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이지산(李之山), 김야운(金野雲) 등과 함께 민립중학을 설립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데 노력했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이듬해 상해로 건너가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青年聯盟)에 가입했다. 1933년 3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을 조직해 백정기(白貞基)와 함께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有吉明]를 암살하려다 체포되었다. 일본으로 압송되어 1933년 11월 나가사키(長崎)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한 뒤, 재일한국거류민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박열(朴烈)과 함께 윤봉길(尹奉吉) 의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데 힘썼다.

1977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이지민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 캘리콘서트의 전시 다수 참여
C : 010-8910-2179, E : ejmin75@naver.com



한훈

1889.03.27(음력)–1950.09.10(양력)
의열투쟁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87]

세우자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

독립기념관 한훈 시어록비 중에서

본관은 청주(淸州). 본명은 한우석(韓禹錫). 자는 성초(聖初), 호는 송촌(松村). 충청남도 청양 출생.

1906년 홍주(洪州)에서 민종식(閔宗植)이 항일의병을 일으켰을 때 참가. 소모장(召募將)으로 홍주성 공격작전에 참전해 홍주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각지에서 의병을 소모해 1,000여 명의 대부대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뒤에 일본군의 공격으로 홍주성을 상실하고 일본군의 체포망을 피해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1년 주권상실 후 귀국해 임병찬(林炳瓚)과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를 조직,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13년에는 채기중(蔡基中)·유장렬(柳璋烈)·김상옥(金相玉) 등과 함께 비밀항일결사 광복단(光復團)을 조직, 활동하였다. 1915년 박상진(朴尙鎭)·우재룡(禹在龍) 등과 합류해 광복단을 광복회로 개편, 강화해서 군대식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그 후 항일전을 전개하고 친일파 숙청활동을 하던 중 조직이 발각되자 재차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중국 상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해로 가서 정부요인과 협의한 뒤 권총·폭탄 등 무기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하였다. 1920년 국내에서 결성된 비밀항일결사인 암살단(暗殺團)과 합류하였다. 김상옥·김동순(金東淳) 등과 함께 당시 미국 국회의원단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일본 총독을 암살하고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해 우리 민족의 독립열의를 세계에 알리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22일 김상옥에게 무기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도중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8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의병에 가입했던 사실이 탄로나 형이 가형되어 19년 6개월간의 복역생활을 하다가 출옥하였다. 6·25사변 때 공산군에게 연행되어 학살당하였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이지연 심울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
C : 010-9554-7935, E : duckduck723@naver.com, H : www.instagram.com/pullmool



이준희

1891.12.30-1965.03.01

3·1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208]

역사의 등을 타고 견잡을 수 없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조국을 구해낼 것인지... 시대는 어둡고 밝음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냉정하고 엄격하게 그가 지나간 자취를 어김없이 역사에 기록할 뿐이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에게 무책임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의 비극을 역사 속에서 더듬어 보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시대를 개척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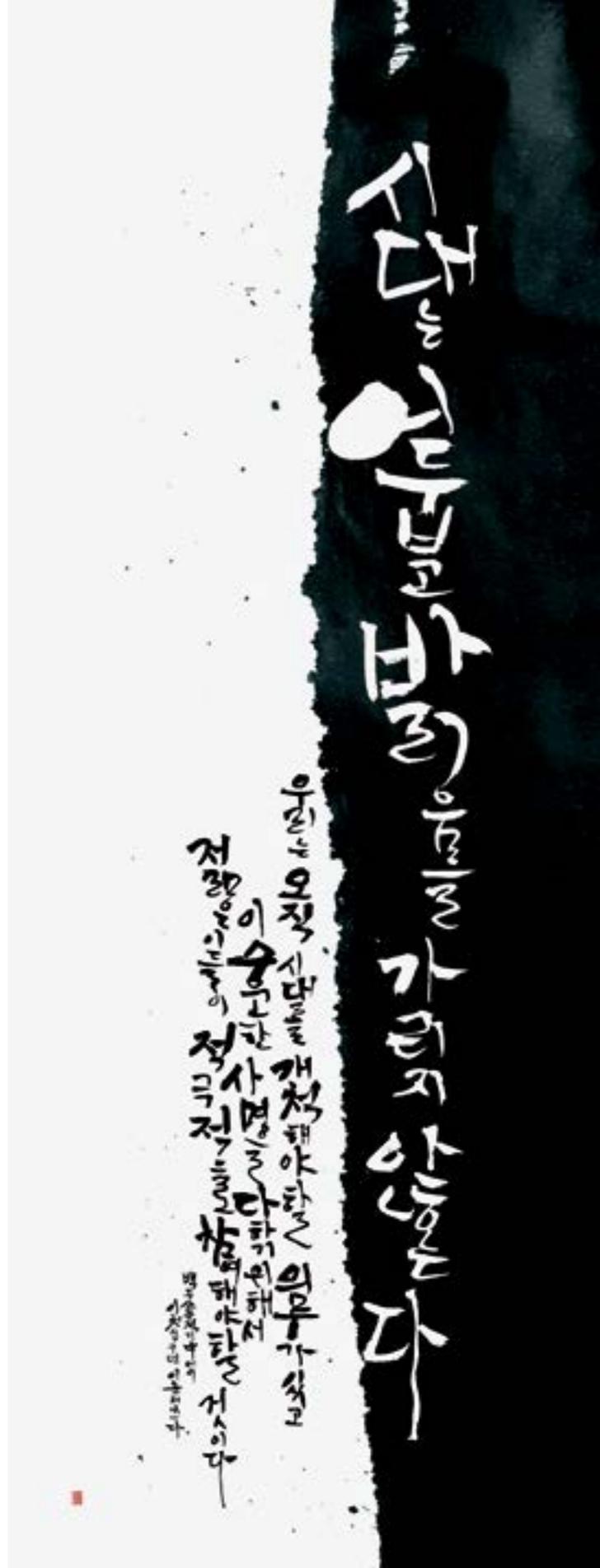
〈백두산등적기(白頭山登陟記) 1930〉 중에서

1891년 평택에서 태어났다. 1907년 상경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 중학부에 들어갔다. 1910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조선인유학생학우회를 조직하였다. 1914년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1915년 귀국하여 언론계에 종사하였다. 1916년 상해로 망명하여 동제사(同濟社)에서 활약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1915년부터 1917년까지 중앙고등보통학교 교감직을 역임하고, 그 해부터 조선 중앙기독교청년회 교육부 간사를 지냈다. 1919년 3·1운동 만세시위를 지도하는 한편,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담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연통부(聯統府) 역할을 수행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3년 『시대일보(時代日報) 창간에 참여하여 이사와 논설위원을 지냈고, 1924년에는 『조선일보』 주필을 거쳐 부사장·사장을 역임하면서 10년 동안 언론계에 몸담았다. 1927년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약하다가 잡혀 8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같은 해 재만주동포옹호동맹(在滿洲同胞擁護同盟) 위원장, 1929년 생활개선운동·귀향학생문자보급운동을 벌이면서 광주학생사건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주관하였다. 1932년에는 만주동포조선문제협회의회의 조사·선전부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시절에 겪은 일들은 글로 옮겨져 사설 980편, 시평 470편이 게재되었다. 이후 『여유당전집(與猶堂全集)』의 간행 등 조선실학연구에 몰두하였다. 1936년 임시정부와의 긴밀한 활동이 탄로나 2년 동안 복역하였고,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다시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독자적으로 국민당을 결성하고 당수가 되었다. 1946년한성일보사(漢城日報社) 창립 사장·비상국민회의 의원·민주의원 의원·좌우합작위원회 의원 등으로 활약하였다. 1947년 과도입법의원 의원이 되고, 미군정청 민정장관(民政長官)이 되어 한인체계에 의한 행정기반을 굳혔다. 정부수립 후 평택군에서 무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다.

이준희 제14회 대한민국아카데미 미술대전 캘리그래피 부문 동상외 다수 수상·희망글씨, 한글누리, 2016덕담, 캘리콘서트, 2015 한일캘리그래피교류전 '8월의 인연'展 외 다수 전시 참여
C : 010-9423-8541, E : chuni81lee@naver.com, H : chuni81lee.blog.me



김동삼

1878.06.23-1937.04.13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요인-11]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 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왜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 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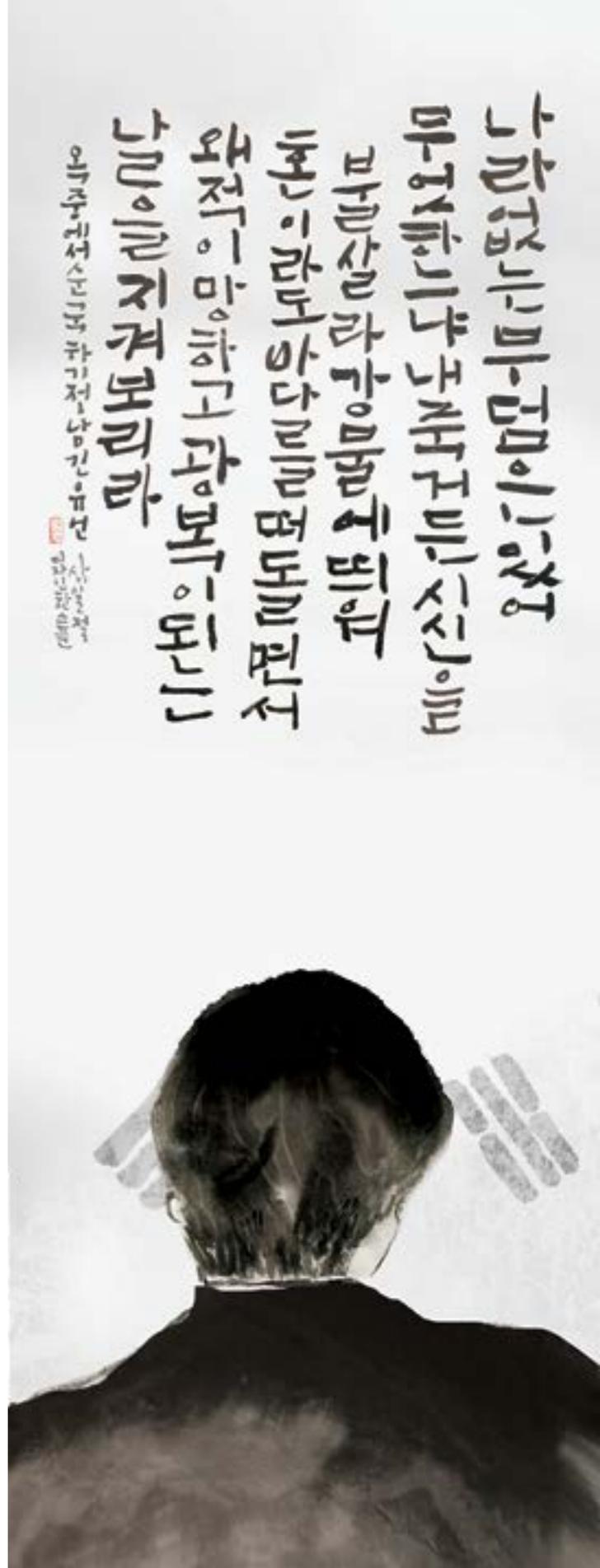
육중에서 순국하기 전 남긴 유언

1878년 6월 23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천전마을은 퇴계 이황의 학명은 이은 명문집안 의성 김씨의 집성촌이었다. 그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로부터 이어져 오는 퇴계학맥을 이으며, 안동의병의 최고지도자였던 김흥락(金興洛)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다. 서울에서 격변하는 세상을 지켜본 후 1907년 고향으로 내려와 혁신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유인식(柳寅植)과 협동학교(協東學校)를 세웠다. 한편으로는 비밀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와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서울과 대구, 그리고 안동을 오가며 애국계몽운동과 비밀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1911년 1월에 남만주 유하현 삼원포에서 신흥학교(新興學校)를 설립하고 경학사(耕學社) 결성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부터는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만주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심하고, 중국 동삼성(東三省)의 호칭을 따서 동삼(東三)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는 백서농장(白西農庄)을 건립하고, 신흥학교 졸업생들을 인솔하여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1919년 2월에는 길림(吉林)에서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발표에 참여하였다. 이후 서간도 독립운동 진영 통합 개편될 때에 한족회 서무사장(庶務司長)과 서로군정서 참모장을 맡게 되었다. 만주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된 그는 수백명의 독립군을 지휘하며 청산리대첩에도 기여하였다. 일본군은 전투에서 패하자 한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피의 보복을 시작했다. 그는 무너진 동포사회를 다시 일으키고, 러시아 한인사회와도 연계하여 국민대표회의 의장이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갈등을 병합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으나, 이건의 총돌로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결국 만주로 돌아간 그는 1924년 만주지역 3대 조직 중 하나인 정의부(正義府)를 탄생시켰다. 1920년대 후반 독립운동세력의 대통합을 다시 한 번 모색한 그는 민족유일당운동에 참여하며 1930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창당에 참여하였다. 1931년 일본군의 만주침공 직후에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끝내 국내로 압송되었다. 평양감옥을 거쳐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그는 고문의 후유증과 옥고로 고통받다가 1937년 4월 13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이해정 디자인한스폰 대표·(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2015 개인展 '마음을 쓰다'
C : 010-3370-4533, E : letter001@naver.com, H : www.instagram.com/designspoon



조명하

1905.04.18(음력)-1928.10.10(양력)
중국방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13]

나는 삼한(三韓)의 원수를 갚았노라. 아무 할 말은 없다. 죽음의 이 순간을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다만 조국 광복을 못 본채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저 세상에 가서도 독립운동은 계속 하리라.

조명하 선생의 유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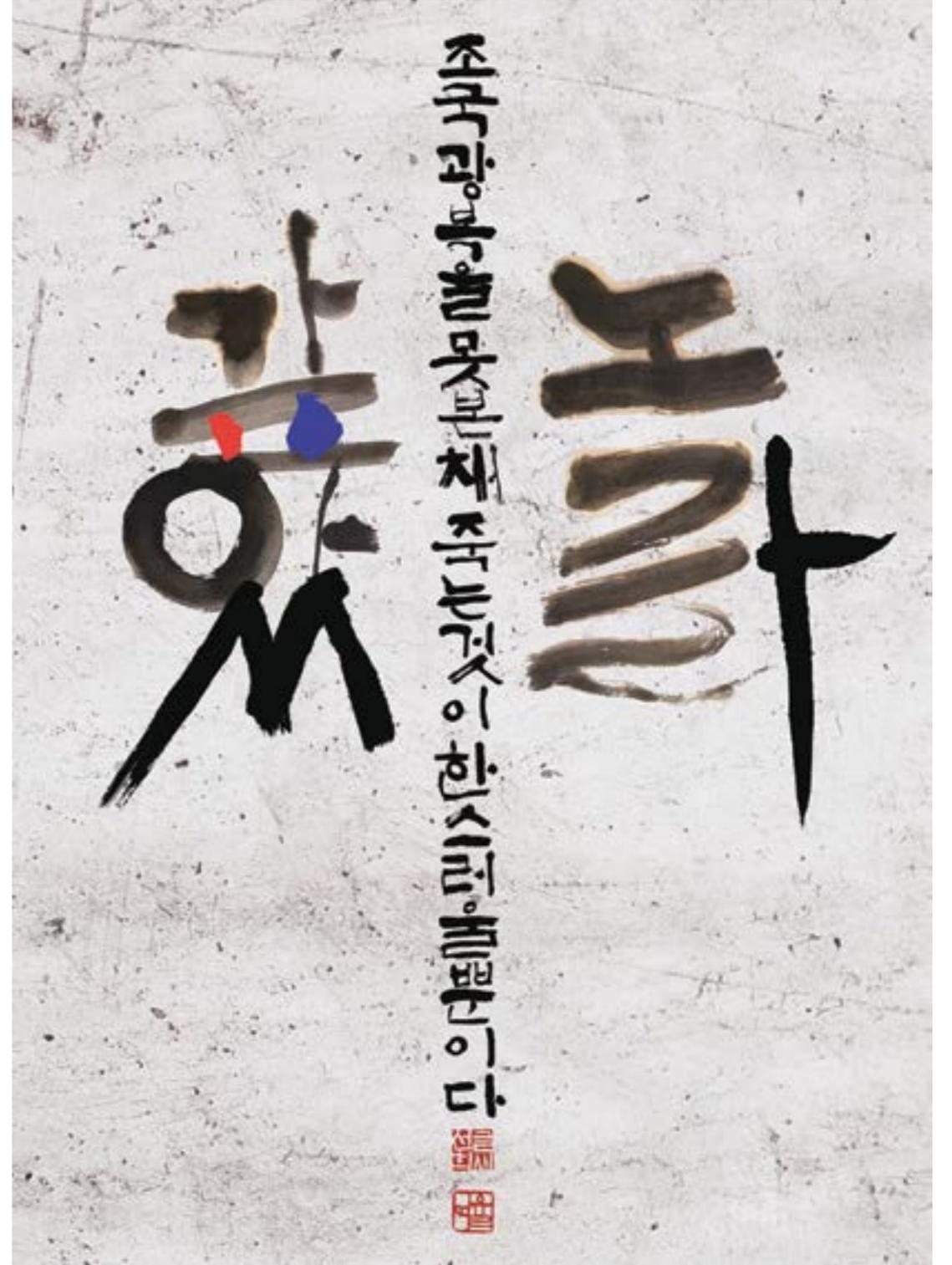
1905년 황해도 송화(松禾)에서 태어났다. 1926년 3월 군정서기로 신천군청에 근무하던 중 6.10만세운동과 송학선, 나석주 의거 소식을 들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다. "큰 불일이 있어 멀리 떠나야겠습니다"라며 갓 태어난 아이와 부인, 그리고 어머니를 두고 떠났던 것이다. 이후 여중구(呂仲九) 등 친구들이 모아준 여비를 받아 '항일을 위해서는 우선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는 아키가와 도미오(明河豊雄)라는 가명을 쓰면서 오사카[大阪]에서 공장 노동자, 상점원 등으로 일하며, 밤에는 상공전문학교(商工專門學校)를 다녔다. 그러나 일본에서 기회가 오지 않자, 상해 임시정부를 거쳐 1927년 11월 타이완에 도착했다. 이후 타이중[臺中]에서 일본인 이케다[池田正秀]가 경영하는 차 농장에서 일하며 타이완총독인 아마가미[山上]를 처단할 것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1928년 5월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장인인 구니노미야[久邇宮邦彦王] 육군대장이 타이완 주둔 일본군을 검열하기 위해 타이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5월 14일 타이중 시 다이쇼정[大正町] 도서관 앞의 환영인파 속에서 기다리던 중 구미노미야가 탄 차에 뛰어올라 그를 칼로 찔렀다. 거사 후 당황하는 중국 군중을 향해 "당신들은 놀라지 말라. 나는 대한을 위해 복수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 군경에 체포당하였다. 구미노미야는 온 몸에 독이 퍼져 6개월쯤 앓다가 별세하였다.

같은 해 7월 18일 타이완 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린 소위 '황족위해죄(皇族危害罪)와 불경사건(不敬事件)'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타이페이 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임선희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 ·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문화예술평생교육진흥회 캘리그래피 지도사 1급
E : waterlim61@naver.com



이동휘

1873.06.20-1935.01.31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060]

**이천만 동포는 다 최후의 일인(一人)이 필사(畢死)하기까지
최후의 일인(一人)의 혈점(血點)이 필적(畢滴)하기까지
독립을 필성(必成)코야 말 줄로 확신하노라.**

〈혁신공보 革新公報〉 1919년 12월 25일자, 이동휘 선생의 인터뷰 중에서

1873년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났다.

1895년 한성무관학교(漢城武官學校)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육군 참위(參尉)에 임명되었다.

1905년 3월 군직을 사임하고, 보창학교(普昌學校)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1907년 신민회 조직에 참여하였고, 서북학회를 창립하기도 하였다. 이해 7월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광무황제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강화도의 전등사에서 군민들과 함께 합성친목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봉기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 간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13년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권업회(勸業會)에 참여하여 한인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는 활동을 펼쳤다. 1914년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고 중국 왕청현 나자구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1917년 2월 불세비키혁명이 일어나자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불세비키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7월 초 독일의 밀정 혐의로 러시아헌병대에 피체되어 수감되었다가 10월 혁명으로 석방되었다. 1918년 5월 하바로브스크에서 김알렉드라, 유동열, 김립, 오성묵 등과 함께 최초의 한인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창당하였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임시정부 내외의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 불신임운동과 불세비키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한인사회당에서 유용한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1921년 상해임시정부를 탈퇴하고 러시아로 이동하였다. 1926년 3월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등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민족해방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1927-1929년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혁명운동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국제혁명운동희생자구원회인 모프르(mopr)의 위원이 되었다. 1930-1935년까지 변강국제혁명자후원회 간부로 활약하면서 원동 변강의 한인 거주 지역에 국제혁명자후원회 지부를 조직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로 1932년 10월 12일 하바로브스크에서 열린 원동 변강 모플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1935년 1월 31일 모플 활동을 위해 스찬 지방을 방문했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는 도중 독감으로 서거하였다.



임시현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 ·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2014-2018 캘리콘서트 참여외 다수 전시 참여
C : 010-7212-3301, E : bluesky3317@naver.com, H : www.instagram.com/bluesky317

여신일투

1894.11.22-1963.02.26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67]

우리는 멈칫거리며, 비스비스 지체할 것이 아니라 참 성력(誠力)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길이란 무엇인가? 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독립운동에 각자 영웅적 사심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나의 몸을 멸망시키려는 왜적들의 철망 안에서 벗어나 살려고 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형제들의 몸을 묵묵히 찢어 바쳐야 될 것이다.

연병호, <獨立記念日의 말>, <獨立新聞> 1920년 3월 30일자

1894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13년 고향에서 중명학교를 마치고 복간도 용정으로 건너가 중학과정인 창동학원을 다녔다. 그러나 1년 남짓 만에 병을 얻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1915년 서울로 올라와 경성기독교청년회관(YMCA) 영어과에 들어갔고, 이곳에서 교육부 간사 안재홍(安在鴻), 조소앙(趙素昂)의 동생 조용주(趙鏞周) 등과 교류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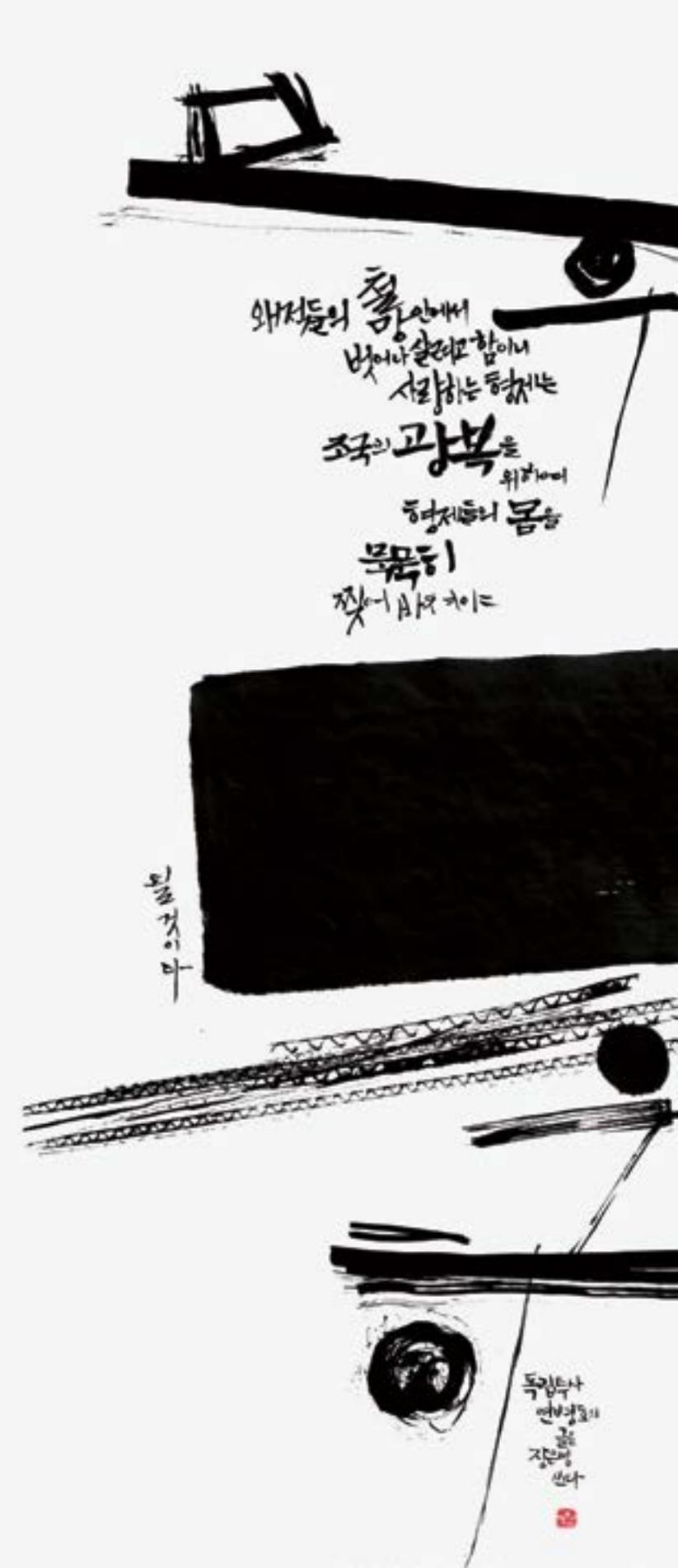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4월 경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활동하다 송세호(宋世浩)와 함께 귀국했다. 이후 국내에서 청년외교단(靑年外交團)을 조직했다. 청년외교단은 국내의 정보를 수집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출옥 후 상해로 다시 건너가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수습책을 강구했지만, 조소앙, 김용철(金容喆)등과 함께 탈퇴하고 이듬해 북경으로 건너갔다.

1925년 한중연합단체인 동서혁명위원회(東西革命委員會)에서 활동하고 만주로 건너가 신민부(新民府)의 군자금 확보에 힘썼다. 1929년 말 만주에서 중국 남경(南京)으로 건너가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을 결성하는 데 참여했다. 1934년 2월에는 한국독립당과 통합해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을 조직했다. 그 해 임시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되어 이듬해 10월까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독립공론(獨立公論)』을 발행했다.

1937년 1월 일제 앞잡이인 상해거류조선인 회장 이갑녕(李甲寧)의 저격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총영사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1944년까지 옥고를 치렀다.

1963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장은영 윤경희글씨작업터 소속 작가 · 2015 어울림 일일달력전 출품
C : 010-5759-1371, E : smileyeppee@naver.com



김공집

1896.10.25–1927.08.31

만주방면_건국훈장 애족장 [애국지사-142]

사랑하는 우리청년 김공집씨여 장래 큰 포부 가슴에 품고 고국을 떠나 나그네 된지 아아 이미 10여년 무심하다 하늘 별이 떠러짐이여 슬픈 소식을 멀리 드르니 괴막히누나 참말이더냐 아아 이웬말인가 모스크의 넓은 별판 하늘 공중에 외롭은 영(靈)은 해매일지니 멀기는 하나 이 강산에 와 아아 깊이 잠들라.

1945년 평북 定州郡農會 주최로 거행된 추도식의 김공집군 추도사(국가보훈처 자료관리과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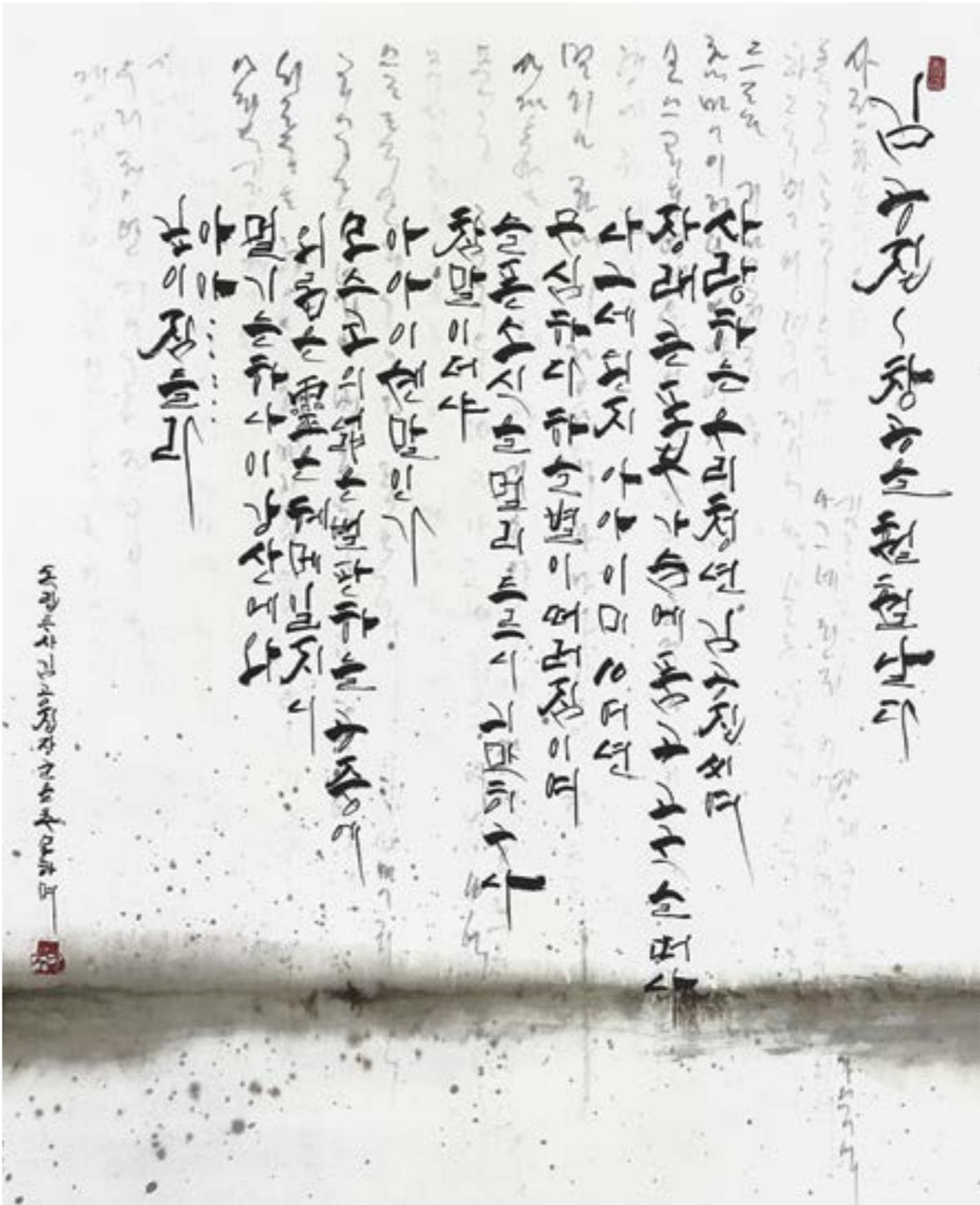
1895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1913년 이승훈(李昇薰)이 설립한 오산학교(五山學校)를 3회로 졸업했다. 이후 여준(呂準) 등이 용인 처인구 원삼면 지역에 설립한 삼악학교(三岳學校)와 만주 통화현(通化縣)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그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동경의 정칙영어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편, 경응의숙(慶應義塾) 이재과(理財科)에서 공부했다.

1918년 귀국하여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의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에서 13도총간부 교통 부장으로 활약하다가 중국 상해로 망명했다. 1919년 9월 중국 동삼성(東三省) 심양(沈陽)의 한 여관에서 전일(田一), 이한산(李韓山) 등과 함께 일제의 주요기관과 고관 등을 살해, 파괴하기 위한 폭탄을 제조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 때 전일의 실수로 폭탄이 폭발한 일이 있었으나, 계속하여 기술자 양성을 위해 활동했으며, 구국모험단장(救國冒險團長) 김성근(金聲根)의 권유에 따라 구국모험단에 가입했다.

1920년 2월 중국 상해로 온 이후 안창호(安昌浩)를 만나 흥사단(興士團) 원동위원부에 입단하여 활동했다. 이후 중국 사천성(四川省) 한단무관학교(邯鄲武官學校)와 광둥무관학교(廣東武官學校)를 졸업하고 한단무관학교 교관으로 재직했다.

1925년 모스크바 비행학교에 입학하여 전투기 조종훈련을 받고 졸업했다. 그 후 1927년 8월 31일 모스크바 근교 세르푸코프(Серпухов)시에서 비행훈련 도중 기계의 고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애족장(1992년)을 추서하였다. 그의 유해는 1994년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김기리아

1892.06.18–1944.03.13

애국부인회_건국훈장 독립장 [무후선열-018]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독립기념관 어록비(2004년)

1892년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가 기독교에 입교한 뒤 교회와 학교를 세워 계몽운동에 참여하였고, 송천리의 만석꾼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1895년 아버지가 세운 소래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1905년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삼촌 김필순의 집에서 살았다. 1906년 이화학당(梨花學堂)에 진학하였으나 연동여학교(延東女學校·정신여학교)로 전학하여 1910년 졸업하였다. 그 후 3년간 전남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1913년에는 정신여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1914년 정신여학교 루이스 교장의 추천과 지원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히로시마의 긴조여학교(錦城女學校)에서 1년간 일어와 영어를 공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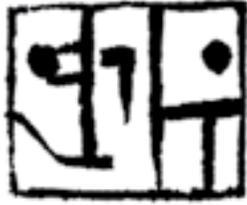
1918년 말경 동경유학생들로 조직된 조선청년독립단에 가입하였다. 1919년 2.8독립선언에 적극 가담하였다가 경찰에 피체되어 조사를 받고서 풀려났다.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졸업을 포기하고 〈독립선언서〉수십 장을 몰래 숨겨 차경신(車敬信)등과 부산으로 귀국하였다. 곧바로 3·1운동 사전 준비를 위해 황해도 지역에서 여성단체의 조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서울 정신여학교에 잠입하였다가 경찰에게 피체되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그 해 8월 석방되어 모교에서 다시 교사로 재직하였다. 9월에는 여성항일운동 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고문 후유증이 심해져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요양 생활을 하다가 상해로 탈출하여 수개월의 치료를 받았다.

1922년 여성 최초로 임시의정원 황해도 의원과 상해애국부인회의 간부로 선출되었다. 이때 중국 난징[南京]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 입학하여 공부를 이어나갔다. 1923년 미국으로 건너가 파크대학 문학부에서 2년간 수학하고, 1928년 시카고대학에 진학하여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30년에는 뉴욕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이곳에서 옛 동지들과 함께 여성 독립운동 단체인 근화회(槿花會)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33년 귀국하여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이때 종교 모임과 강론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44년 고문 후유증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거하였다.

전선주 분당공방휴 서하봇돌 대표·(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지도사 및 정회원·오민준글씨문화연구실 소속 작가
C : 010-2446-4595, E : sj6512@naver.com, H : www.instagram.com/seoha.graphy





출생연도 미상 -1914
의병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07]

**아! 슬프다. 삼천리강토를 보전하지 못하니 너나없이 어찌 애통치 않으리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 차라리 싸워 충혼이 되리라.**

연기우 선생 어록비

생년은 알 수 없으며, 경기도 삭녕(朔寧)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성(積城) 출신의 선비로 전해지기도 한다. 언제부터 강화진위대의 군인으로 복무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부교(副校)로 복무하던 중,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에 8월 9일 해산식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무기고를 점령하고 의병을 일으켰다. 강화도로 출동한 일본군 1개 소대와 격돌해 10여 명을 사살했다. 8월 11일 일본군 사령부가 보병 2개 중대를 증파해 압박하자, 의병을 이끌고 장단(長湍) 덕물포(德物浦)로 이동해 의진을 정비하고 독자적인 의병부대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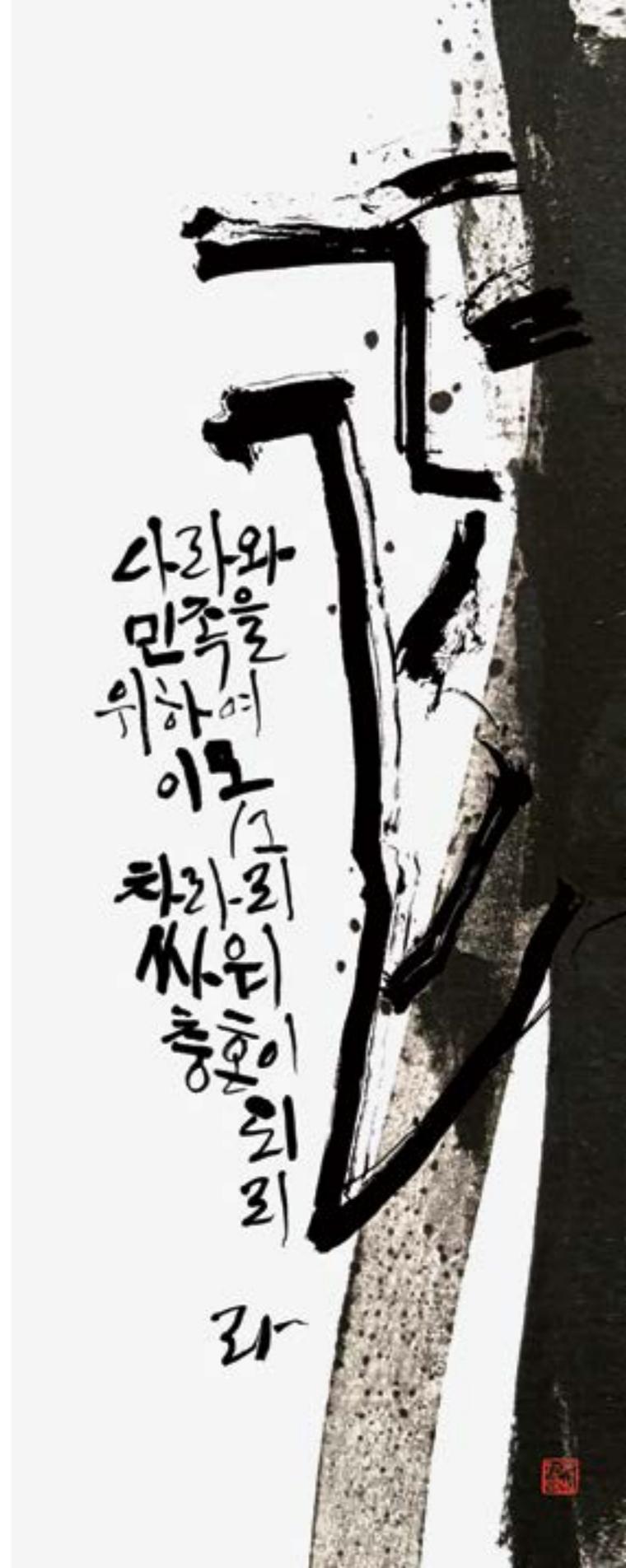
증원된 일본군에게 패한 뒤 부하 60여 명을 이끌고 적성과 삭녕, 철원, 마전, 장단, 도산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을 공격하며 활약했다. 그 해 12월 이인영(李麟榮)을 총대장으로 하여 13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이 조직되자, 이에 참여해 13도창의대진소의 대대장의 직책으로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했다. 1908년 1월 동대문 밖 30리 까지 진격해 일본군과 싸웠으나, 김규식(金奎植)과 같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일본군에 체포되었지만, 곧 탈출했다.

13도창의대진소가 해산되자 경기도 마전과 장단을 중심으로 다시 의병을 재편했다. 3-4백 명으로 구성된 의진을 이끌고 임진강을 넘나들며 경기도 포천과 삭녕, 철원, 연천, 장단 등지를 무대로 강기동(姜基東), 이진룡(李鎭龍) 의진과 함께 일제 군경을 공격했다.

1910년 3-4월 일제는 경기·황해도 지역 의병진압을 위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군장 김중윤과 선봉장 연성철 등이 전사했으며, 자신도 철원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었다가 구출되기도 했다.

1911년 12월 중순 그의 의진 별무관 홍천희(洪天喜)가 연천 헌병대에 체포되었고, 이어 부하 3명과 가평헌병대와 전투 중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1914년 6월 인제분대 암점파견소 헌병들이 그와 아들을 체포해 취조종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연해주에서 간행되는 「권업신문(勸業新聞)」에서도 1913년 중반 이후 그가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순국한 연도가 1911년이 아니라 1914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짐작되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전정 심취글씨 소속 작가·모노디 캘리그래피 작가과정 이수·2013 캘리그래피 전시회 <다들 잘지내나요>(환장전)
C: 010-2678-5845, E: ccm5845@naver.com, H: blog.naver.com/ccm5845



박영준

1915.11.01-2000.03.27

광복군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17]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주체의 이념을 확립해야 통일을 실현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공자협회 차英俊(박영준) 회장 統一(통일)이뤄야 진정한 光復(광복)〉, 〈동아일보〉, 1995년 3월 1일자 7면

경기도 파주(坡州)에서 출생하였다. 1925년 만주 지린성(吉林省) 웅안현(永安縣)의 교포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나자 조상연(趙相淵)과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민필호(閔弼鎬)·연병호(延秉昊) 등과 만나 재만 독립투사를 구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37년 임시정부가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으로 이전한 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및 미주 등지의 대한독립단·동지회·국민회·부인애국회 등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임시정부의 외곽단체로서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이 결성되었는데, 이때 그는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가담하여 항일 강연, 연극, 전단살포 등 선무공작(宣撫工作)을 전개하였다.

1939년 11월 충칭(重慶)에서 중국중앙군관학교 특별훈련반 교통과에 입학하였으며, 재학 중이던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광복군 제3지대에 배속되어 지대장인 김학규(金學奎) 수하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본군에 강제로 징집된 한국사병을 포섭하고 이들을 훈련시켜 광복군총사령부로 보냈다. 1942년 4월 상위(上尉)로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에서 근무하였으며, 1943년 1월에 임시정부 한인청년회 문화부장, 그리고 8월에는 총사령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944년 임시정부 재무부 이재과장(理財科長), 1945년 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장 겸 제3지대 훈련총대장 등을 역임하고, 그후 만주로 가서 대한민국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 동북 총판사처 외무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위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는 육군 제39사단 사단장과 제1군 사령부작전기획 참모부 부장을 역임하고 1963년 소장으로 예편, 1977년 5월부터 1984년 4월까지 한중문화협회 회장, 1985년 독립유공자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정미숙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및 동 대학원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초대작가· 원광대학교 개교70주년 기념전
C : 010-8640-2828, E : jms9640@hanmail.net

스코필드

1889.03.15~1970.04.12

독립운동지원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96]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그럼으로써 일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광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김승태, <한국을 조국처럼 사랑한 캐나다인, 스코필드>, 2016(네이버 캐스트에서 재인용)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1907년 캐나다로 이민간 후 토론토대학 온테리오 수의과를 졸업하였다. 1916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교장으로 있던 에비슨(Avison, O. R.)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영어로 강의를 하면서 1917년 한국어 시험을 보아 합격하고 선교사 자격도 받았다. 한국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성을 음차하여 석호필(石虎弼, 단단하고 무섭고 남을 돕는다는 자신의 철학이 담김)이란 한국어 이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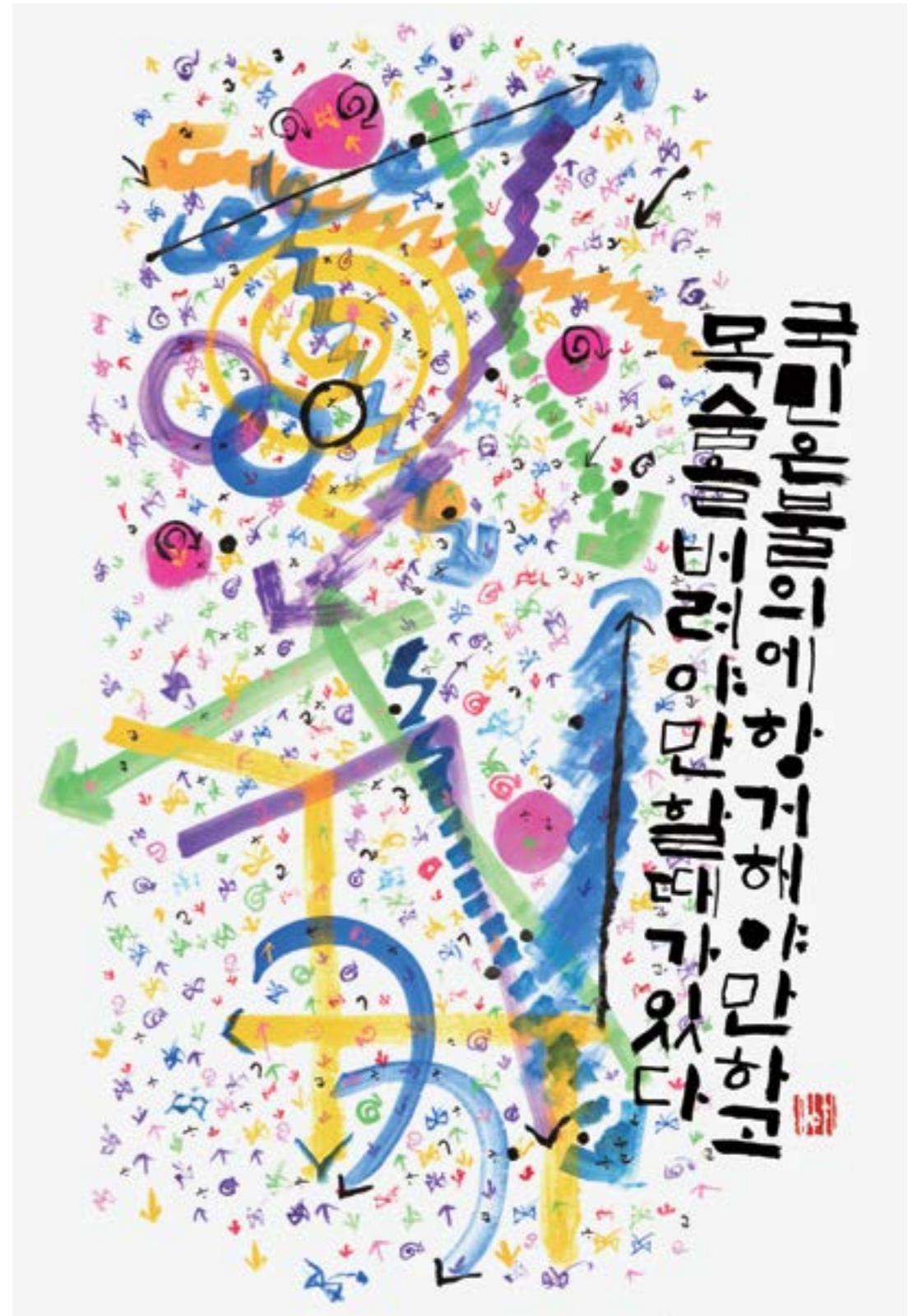
1919년 초 미국에서 온 사록스(Alfred M. Sharrocks)로부터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할 것이라는 소식에 따라, 미국에서 이승만, 안창호 등이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갑성(李甲成)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모종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질을 주어 3·1운동을 지피는데 한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 현장과 실상을 꼼꼼이 기록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을 외국인 신문을 이용하거나 조선총독부 간부와의 친분관계를 도용하여 구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암리 양민학살이 일어나자 스코필드가 몰래 방문하여 총살, 방화 현장을 촬영하였다. 부근의 수촌리(水村里), 화수리(花樹里)의 방화 만행 현장도 둘러보고 귀경하였다. 스코필드는 언론활동 통해 일제의 만행을 해외와 국내에 고발하는 활동을 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을 돕는 스코필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1920년 강제출국 시켰다. 그는 이때에도 총독에게 탄원하여 감옥에 갇히었던 이상재(李商在), 이갑성(李甲成), 오세창(吳世昌) 등을 면회하고 격려하였다.

그는 캐나다로 건너가 대학교수로 활동하다가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며 한국을 잊지 못했다. 그의 3·1운동 역사 기록과 사진을 한국에 기증하여 보도되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하였고, 1969년부터 한국에 영구 정착하여 여생을 한국에서 마쳤다.

외국인 최초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958년 대한민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에 초빙되어 내한하였고, 196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정미애 오민준 글씨문화연구실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C : 010-5357-8767, E : miaj@naver.com, H : www.instagram.com/jeongmiae9803



박열

1902.02.03-1974.01.17
의열투쟁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209]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짓는 달을 보고 짓는 보잘 것 없는 나는 개 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박열 선생의 시

1902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다. 함창보통학교(咸昌普通學校)를 졸업한 뒤 1917년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사범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이후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치욕스럽다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 문경에서 3·1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점차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신문배달과 막노동을 하며 단기어학 전문학원인 세이소쿠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서 수학하였다.

이 무렵 일본의 사회운동가인 오스기(大杉榮)·사카이(堺利彦) 등과 접촉하며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하였다. 1921년 김판국(金判國)·김약수(金若水)·조봉암(曹奉岩)·서상일(徐相日) 등 20여 명과 함께 신인연맹(新人聯盟)과 흑양회(黑洋會)를 통합하여 흑도회(黑濤會)를 창설하여 사회주의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2년에는 김약수 등 공산주의계열과 분리, 무정부주의자들을 규합하여 풍뢰회(風雷會, 일명 黑友會)를 결성하였으며, 이 단체의 기관지로 『흑도 黑濤』, 『불령선인 不逞鮮人』, 『현대사회』 등을 발간하였다. 1923년 비밀결사인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하였다.

9월로 예정된 일본 태자 결혼식을 기하여 일왕을 비롯한 일본 황실요인을 일거에 폭살시키려고 자기의 애인인 가네코(金子文子)와 같이 거사계획을 추진하던 중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가 발생하고 불령사의 조직은 보호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의 취조 도중 일왕 암살을 꾀했다는 것이 발각됨으로써 사건이 확대되었다. 1926년 대역죄로 일본 대심원에서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곧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22년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1946년 일본거류민단의 전신인 신조선건설동맹(新朝鮮建設同盟)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재일거류민단으로 개편되자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귀국하여 장학사업에 종사하던 중 6·25 때 납북되었다. 1974년 1월 17일 평양에서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신조선혁명론』이 있다.

정미화 | 늘품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 · 민주평통서예대전 특선 · 도봉구 문화글판 제작
C : 010-7244-2380, E : tt1324v@naver.com, H : www.instagram.com/mihaw8682





1880.01.13(음력)~1922.09.25(양력)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요인-8]

우리들의 마음이 죽지 않았다면, 비록 그 지도가 빛깔을 달리하고, 역사가 그 칭호를 바꾸어 우리 대한이 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스스로 하나의 대한이 있는 것이니, 우리들의 마음은 곧 대한의 혼인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죽지 않았다면, 혼은 아직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힘쓸지어다. 우리 동포들이여!

〈한국혼〉범우사 2013년도판, 13쪽

1880년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이라 불렸다. 대한제국이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한어학교(漢語學校)와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한제국 군대의 장교가 되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을사늑약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의병을 일으켜 일본에 맞서 싸우고자 하였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분개하여 음독을 시도하였지만,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대신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다. 이후 사시로 즐겨본다 하여 호를 예관(睨觀)이라 지었다.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의 애국계몽운동 단체 참가하는 한편, 중등학교·청동학교(�淸東學校)·문동학교(文東學校) 등을 설립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점당하자, 이듬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중국에서 그는 손문(孫文)과 교우하며, 중국 신해혁명에 참여하였다. 이후 중국의 혁명지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중 우호관계 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을 동지로 삼고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였다. 동제사에는 박은식(朴殷植)·신채호(申采浩)·홍명희(洪命熹)·조소앙(趙素昂)·문일평(文一平)·박찬익(朴贊翊)·조성환(曹成煥)·김규식(金奎植)·신건식(申健植) 등이 참여하였는데, 사원의 수는 약 3백여 명에 달했다.

1918년 미국대통령 윌슨(Wilson, T. W.)이 14개조의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자, 중국 각지의 독립운동가와 연락하여 길림(吉林)에서 독립선언이 이뤄지게 하였고, 동제사의 청년단체로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초대 법무총장 및 임시의정원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921년에는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에 임명되어 중국과의 외교관계 정립에 앞장섰다.

1922년 임시정부가 분열되며 흔들리자, 25일간 먹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악을 쓰지 않다가 9월 25일 순국하였다.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도 한국의 독립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호를 갈망하였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정부! 정부!"였다.

중국 상하이외 만국공묘(萬國公墓)에 70년 넘게 안장되었던 그는 1993년이 돼서야 조국으로 봉환되어 현충원 임시정부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저서로는 『한국혼 韓國魂』과 시집 『아목루 兪目淚』가 있다.

정소희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C : 010-9855-2462, E : write_so@naver.com, H : www.instagram.com/write_so



송진우

1889.05.08-1945.12.30

언론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98]

우리는 조선(朝鮮)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새가 수림(樹林)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도저히 조선을 떠나서는 또한 조선을 잊어버리고서는 일각일초(一刻一秒)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이리하여 자거나 깨거나 듣거나 보거나,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현하(現下) 우리 동포의 심리적 상태(狀態)인가 한다. 그러면 조선을 위하여 웃을 사람도 우리 동포요, 또한 조선을 위하여 곡할 사람도 우리 형제일 것은 물론이다.

송진우,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동아일보》 1925년 8월 28일-9월 6일

1890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송훈(宋勳)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공부하는 한편, 기삼연(奇參衍)에게서 수학했다. 1907년 변산 내소사(來蘇寺)의 청련암(靑蓮庵)에서 공부하던 중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군산 금호학교(金湖學校)에서 공부했다. 그 해 10월 김성수(金性洙)와 함께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1910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입학했다. 그러나 경술국치를 당하자 귀국했고, 이듬해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에 입학해 1915년 졸업했다. 1916년 김성수와 함께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인수하고, 학감으로 취임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 넣는데 힘썼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뒷일을 맡은 48명 중 한사람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김성수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의 3대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총무공 유적 보존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을 전개했다. 1925년 6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汎)태평양회의에 신흥우와 함께 참석해 각국 대표들에게 실상을 알리는데 힘쓰기도 했다. 1940년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동본사(東本社)를 설립해 동아일보사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노력했다.

1945년 8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권 인수 교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해방 직후 여운형(呂運亨)이 주축이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해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이후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로 우익세력의 규합에 앞장서는 한편, 주한미군사령관 J.R.하지의 행정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45년 12월 27일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한국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12월 30일 종로구 원서동 자택에서 한현우에게 암살당했다.

1963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정유진 심뽀글씨디자인연구소 소속 작가·국립서울현충원 캘리그래피 추모글 '6.25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시 참여·제7회 캘리콘서트 '그때 그 사람' 전시 참여
C : 010-5001-2845, E : yujin2539@naver.com, H : www.instagram.com/art_ujin



유동열

1879.03.26-1950.10.18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무후선열-203]

우리 존경하는 동지들… 통일을 못보고 가는 것이 한이야 한… 먼저 가서 미안하네. 꼭 통일을 해야해. 우리 자식놈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고 전해 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야해. 살아서 꼭 통일을 하고 죽어야 하네…

유동열 선생의 유언

1879년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났다. 1894년(고종 31)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쇼학교[成城學校]를 거쳐 190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일본 근위사단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1904년 러일전쟁 때 대한제국 파견 무관 자격으로 일본 군에 종군하였다. 대한제국군 무관학교와 유년학교 교관을 지내고, 1905년 군무국으로 전속된 뒤 참령(參領)으로 승진하여 시위대 기병대장과 참모국 제2과장을 지냈다.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지하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때 안창호(安昌浩) 등이 주도한 신민회의 반일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서북학회(西北學會)를 통해 계몽운동도 전개했다. 1909년 안중근(安重根)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사건과 관련하여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었으나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1911년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10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년 6개월 간 옥고를 치루었다. 1913년 출옥 후 만주로 망명해 주로 길림(吉林)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1917년 노령 연해주 쌍성(雙城)에서 문창범(文昌範) 등과 전로한족회(全露韓族會)를 조직했다. 1918년에는 서일(徐一)의 중광단(重光團)에 가입했고, 1919년 2월 「대한독립선언서」의 39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국내외 임시정부 추진세력으로부터 신망이 높아 한성임시정부에서는 참모부총장, 노령 대한국민회의에서는 참모총장,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군무총장(초대)에 각각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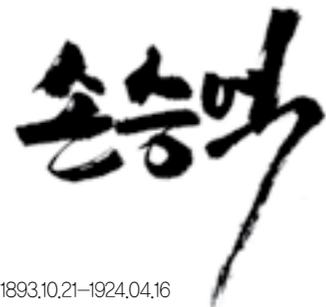
1930년 임시정부로 복귀해 국무위원·군무부장을 지냈다. 1935년 난징(南京)에서 김규식(金奎植)·지청천(池青天) 등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해 통일전선을 구축했다. 1938년 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의 통합을 추진해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임명되었다. 1940년 광복군 창설 후 참모총장으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과 활동을 주관하였다. 1945년 2월 신한민주당을 창당해 홍진(洪震)과 당을 이끌며 광복을 대비했다.

1945년 광복 후 귀국하여 미군정청 초대 통위부장(統衛部長)을 지냈고,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에도 관여하였다. 한국전쟁 때 74세로 납북되었다. 1950년 10월 18일 평안북도 회천의 한 농가에서 사망하였다.

정은정 표시근캘리그래피 회원

E : 982hie03@naver.com





1893.10.21-1924.04.16

3·1운동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22]

나의 평생소원은 대한독립만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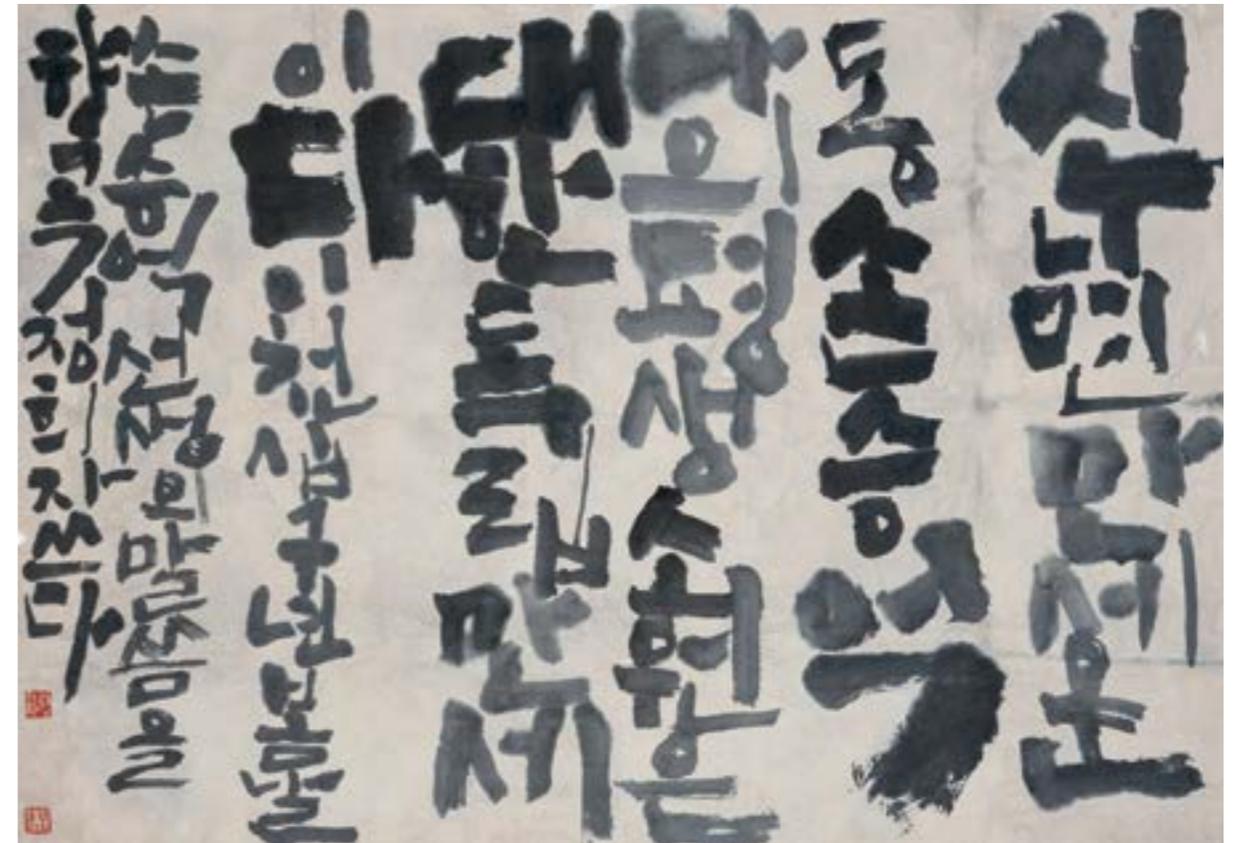
손승익 선생의 유언

1893년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방추마을에서 태어났다.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이었다고 한다. 성균관 박사였던 아버지 손석우(孫錫祐)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한학(漢學)을 공부했다고 전해진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은경옥(殷慶玉)과 이강렴(李康濂) 등 8명의 동지와 결의하여 비밀결사 단체인 독립단(獨立團)을 조직하고,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그리고 3월 31일 이희갑(李喜甲)의 집에 모여 4월 1일의 충북 충주 용원(龍院) 장날을 이용해 장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했다. 4월 1일이 되자 그는 신니면 용원장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시위를 주도한 은경옥, 이희갑 등과 함께 붙잡혀 청주형무소에서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하던 날, 옥문을 나서며 대한 독립만세를 크게 외쳤고, 이로 인해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 동안 옥고를 다시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922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며 몸이 크게 상해 자택에서 투병생활을 했다. 자택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가족들도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다. 항일 의식은 여전했지만, 건강 악화와 일제의 감시로 뜻을 펼치기 힘들자 1934년 4월 16일 자결 순국의 길을 선택했다. 가족들에게 "나의 평생소원은 대한독립만세이다"란 유언을 남기고 자결 순국했다. 방추마을 생가의 뒷산에 묻혔던 그의 묘소는 1973년 10월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8년)을 추서하였다.



정희자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캘리그래피그룹 묵화연 전속 작가 · 가평석봉한호선생전국회호대회 캘리그래피부문 대상
C : 010-4268-4520, E : aju333@naver.com, H : www.instagram.com/heeja_jung

강우규

1855.07.14(음력)-1920.11.29(양력)

의열투쟁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애국지사-040]

단두대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는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단두대상(斷頭台上) 유재춘풍(猶在春風)
유신무국(有身無國) 기무감상(豈無感想)

강우규 선생의 유언 중에서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찬구(燦九), 호는 알우(白愚). 평안남도 덕천 출신. 가난한 농가에서 네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누나집에서 자라면서 얼마동안 서당에서 공부하였다. 1911년 북간도 두도구(頭道溝)로 망명하여 연해주를 넘나들면서 뜻있는 동료들을 만나 조국의 독립을 의논하였다. 1915년부터는 요하현(鎭河縣)으로 옮겨 산 뒤에도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주 내왕하면서 동지들과 독립운동을 꾀하였다. 그리고 농토를 개간하여 신흥촌(新興村)을 건설하고, 1917년에 동광학교(東光學校)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며 독립정신 고취에 노력하였다.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입해 있던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노인단 길림성지부장(新韓村老人團吉林省支部長)이 되어 조직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그 해 5월 노인단원 이발(李撥)·정치윤(鄭致允) 등 5명의 대표단이 서울에 들어와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분개하여 노인단 대표로서 국내에 잠입해 일본총독 등 요인 암살을 결심하였다. 7월에 러시아인으로부터 영국제 수류탄 1개를 구입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산으로 가서 최자남(崔子南)·허형(許炯) 등 동지와 거사계획을 세웠다. 8월에 서울에 잠입해 준비를 계속했다.

9월 2일 총독 사이토(齋藤實)가 부임차 남대문정거장에 도착해 마차에 오를 때, 품에 지니고 있던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신문기자·수행원·일본경찰 등 37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사상자 중에는 총독부 정무총감과 만철이사(滿鐵理事), 미국 뉴욕시장의 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거사에서 총독 사이토는 화를 입지 않았다.

거사 뒤 현장에서 유유히 빠져나와서 오태영(吳泰泳)의 소개로 장익규(張翊奎)·임승화(林昇華) 등의 집을 숨어다니다가, 9월 17일 일제의 앞잡이 김태석(金泰錫)에게 붙잡혔다.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은 있는데,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오”라는 사세시(辭世詩)를 남겼다.

유해는 광복 뒤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지금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옥공동묘지로부터 서울 우이동으로 이장하였다가, 다시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치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조선옥 캘리그래피그림 목화연 전속 작가

C : 010-9904-0311, E : kawa2ssun@naver.com

김광규

1900.11.24–1967.09.20

광복군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50]

자유의 꽃은 피바다 위에 피어나고 있으며, 민족의 광명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다. 뚫하라! 웃으라! 일하라!

〈독립신문〉(중경판) 대한민국 27년(1945) 7월 20일. 〈날로 가열되는 한국의 지하운동〉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백파(白波). 평안남도 평원 출신. 김기섭(金基燮)의 셋째 아들이다. 1927년 유하현 삼원보(三源堡)의 동명중학교(東明中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중, 1931년 1월 조선혁명당에 가입하고 군사령부참모로 임명되어, 봉천성 영릉가전투(永陵街戰鬪)와 통화현전투(通化縣戰鬪)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에 모여든 청년들을 규합하여 대부대로 편성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유동열(柳東說)·최동오(崔東旰)와 함께 조선혁명당 대표로 난징[南京]에 파견되어, 조선 의용대·조선독립당·광복동지회 등의 약 6개 단체 대표들과 회합하여 한국항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여 민족주의자 계열을 상해에 집결시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본래의 계열로 되돌아갔다.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으나 노선을 달리하는 현익철(玄益哲)·유동열·김창환(金昌煥)·양기탁(梁起鐸)·이복원(李復源) 등과 협의하여 전당비상대표자대회(全黨非常代表者大會)를 열고 김원봉(金元鳳) 등과 결별을 선언하였다.

그 뒤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곽에서 독립운동에 온 정열을 쏟았다. 1938년창사(長沙)에서 이청천(李靑天) 등과 함께 임시정부 군무부에 소속되어 군사학을 정리·편수하였고,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충칭(重慶)에서 편성되자 총사령부참모로 취임하였다. 1941년 광복군 제3지대장으로 취임한 뒤, 안후이성[安徽省]의 푸양[阜陽]에 근거지를 두고 대일선전·초모 공작·정보수집을 지도하는 한편, 유격전을 전개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주중미군(駐中美軍)과 합동 작전으로 특수공작반(OSS)을 설치하여 국내진공작전을 도모하던 중 조국 광복을 맞았다. 1945년 8·15광복 뒤에 광복군 총사령부의 주상해판사처처장(駐上海辦事處處長)에 임명되어 교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안전 귀환을 위하여 활동, 3만여 명의 교포를 귀국시켰다.

1946년 9월 한국독립당의 만주특별당 부위원장에 취임하여, 교포 1만 2,000여 명을 미군 비행기로 호송, 텐진[天津]에서 귀국시켰다. 1948년 4월 귀국하고 7월 한국독립당의 조직 부장에 취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조성령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그래피그룹 목화연 전속 작가·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콘텐츠공모전 캘리그래피부문 장려상
C：010-4604-2830, E：cooky124@naver.com, H：www.instagram.com/chozzang_nim

이범윤

1856.12.29(음력)~1940.10.20(양력)
의병, 연해주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55]

청산리 큰 바위 밑에 내 유물이 있으니 광복하면 반드시 찾아오라.

이범윤 선생의 유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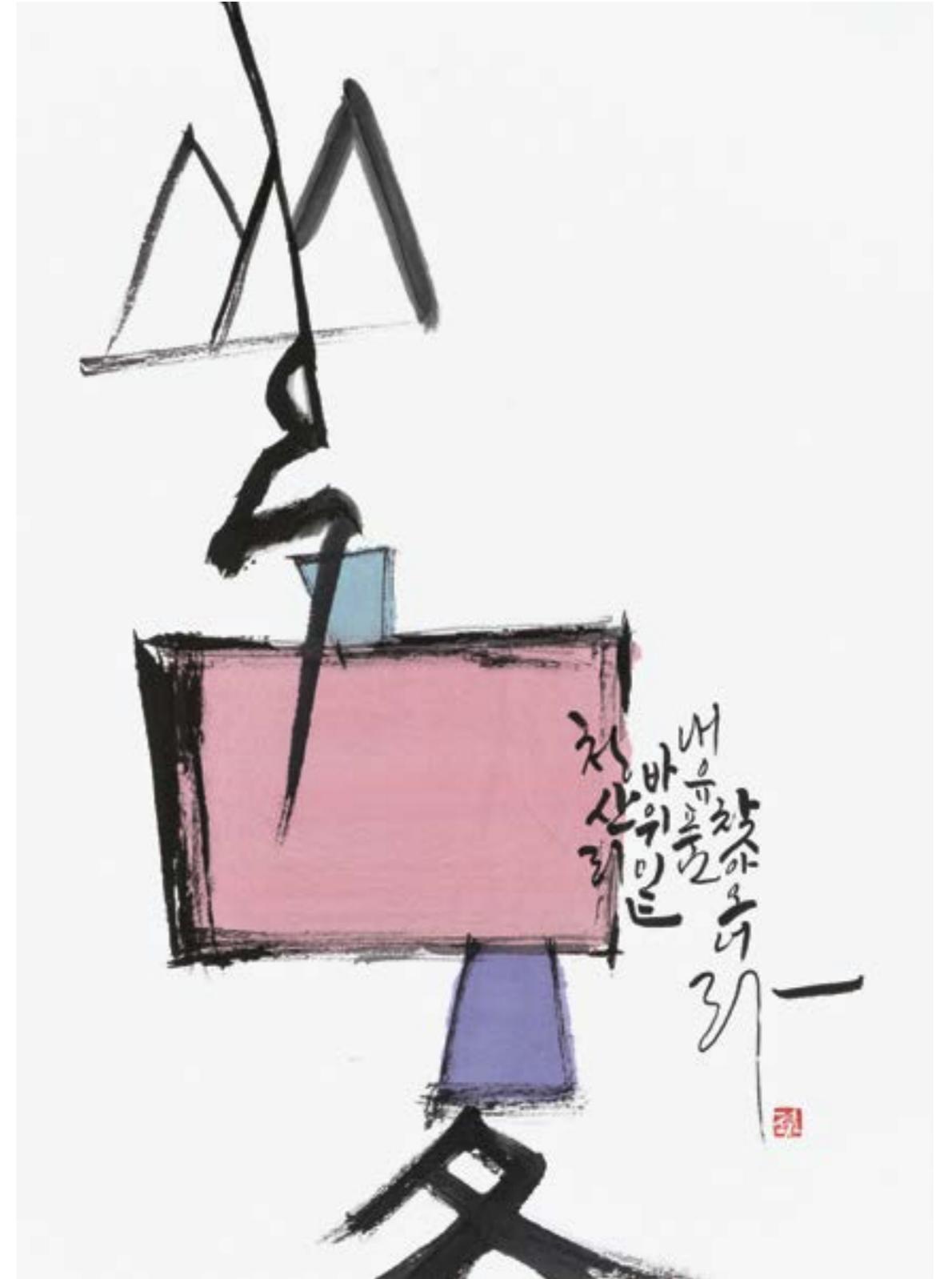
18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말 간도지역 조선인 보호 업무를 맡으며 간도시찰원과 간도관리사가 되었다. 직접 장정을 모집하여 사포대(私砲隊:일명 管理兵)를 조직해 군사훈련을 시키고 두도구 등에 병영을 설치하기도 했다.

1904년 러시아 측에 기담하여 러일전쟁에 참여하였고, 러시아 황제에게 훈장을 받았다. 이후 연해주에서 최재형, 엄인섭(嚴仁燮) 등과 활동하며 동의회(同義會), 창의회 등의 회장을 맡아 이주 조선인들을 위한 활동에 힘썼다. 또한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연해주 지역의 모금활동을 주도하고, 의병 부대를 편성하여 동간도, 두만강 하류, 동해안 방면에서 기습 전투를 치르기도 하였다. 1910년 5월 가쓰라(桂太郎)를 비롯한 요인 암살 계획을 꾸미기도 하였다. 유인석 등 연해주 의병들의 연계를 위해 13도의군(十三道義軍) 결성 당시 창의총재(彰義總裁)가 되었다. 국치 이후 연해주에 조직된 성명회(聲鳴會)에 참여하였으며, 합병무효를 선언하는 전문과 선언서를 각국 정부에 보내고, 국치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후 권민회(勸民會)를 조직하고 총재로 추대되었다.

1918년 신채호(申采浩), 김동삼(金東三), 박용만(朴容萬) 등 38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무오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실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의병부대를 통합하여 조직된 의군부(義軍府) 총재로서 7월 서일(徐一)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동맹을 체결해 합동무장투쟁을 벌였고, 북벽주의 독립군 단체인 대한광복단 단장으로도 추대되었다. 청산리 전투 후 서일, 홍범도 등이 밀산(密山)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자 그가 이끄는 의군부도 함께했다. 대한독립군단이 1921년 6월 자유시침변을 당한 뒤 1922년 8월 재조직되자 서일의 뒤를 이어 총재로 추대되었다. 1924년 9월 문창범(文昌範), 지청천(池靑天), 이동휘 등과 함께 군사연합회의준비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추대되었고, 1925년 3월 신민부(新民府) 고문에 추대되었다. 이후 비밀리에 국내로 들어와 생활하다 숨을 거두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조영진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하유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 캘리그래피그룹 하연 소속 작가 · (사)한국디자인아트협회 순천지사장
C : 010-3070-6569, E : cyjjin306569@naver.com, H : www.instagram.com/cyjjin011



한용운

1879.08.29-1944.06.29

시인, 독립운동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님의 沈黙(침묵)

한용운 선생의 시집

본관 청주(淸州), 호 만해(萬海·衴海), 속명 유천(裕天), 자 정옥(貞玉), 계명 봉완(奉玩)이다.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洪城)에서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으나 실패하자 1896년(건양 1)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들어갔다. 그 뒤 1905년(광무 9) 인제의 백담사(百潭寺)에 가서 연곡(連谷)을 스승으로 승려가 되고 만화(萬化)에게서 법을 받았다.

1908년(융희 2) 전국 사찰대표 52인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元興寺)에서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을 설립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명을 시찰했다. 1910년 국권이 피탈되자 중국에 가서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 이를 격려하고 만주·시베리아 등지를 방랑하다가 1913년 귀국, 불교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해 범어사에 들어가 『불교대전(佛敎大典)』을 저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般若思想)에 입각하여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1918년 서울 계동(桂洞)에서 월간지 『유심(惟心)』을 발간.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沈黙)』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섰고, 이듬해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이듬해 중앙집행위원이 되어 경성지회장(京城支會長)의 일을 맡았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개칭,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이해 월간지 『불교(佛敎)』를 인수. 이후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사상 고취에 힘썼다. 1935년 첫 장편소설 『흑풍(黑風)』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고, 1937년 불교관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卍黨事件)의 배후자로 검거되었다. 그 후에도 불교의 혁신과 작품활동을 계속하다가 서울 성북동(城北洞)에서 증풍으로 죽었다.

시에 있어 퇴폐적인 서정성을 배격하고 불교적인 '님'을 자연(自然)으로 형상화했으며, 고도의 은유법을 구사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과 불교에 의한 중생제도(衆生濟度)를 노래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이 추서되었다.

작품으로는 상기 장편 외에 장편소설인 『박명(薄命)』이 있고, 저서로는 시집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 『불교대전』, 『불교와 고려제왕(高麗諸王)』 등이 있다. 1973년 『한용운전집』(6권)이 간행되었다.



조정옥 목각 대표 ·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전문위원 · 캘리그래피디자인그룹 어울림 기획이사
C : 010-8700-7246, E : mukgak@naver.com, H : www.mukgak.com

박재혁

1895.05.17(양력)~1921.05.11(양력)
의열단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76]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

박재혁의 옥중 진술 중에서(네이버 캐스트 '박재혁'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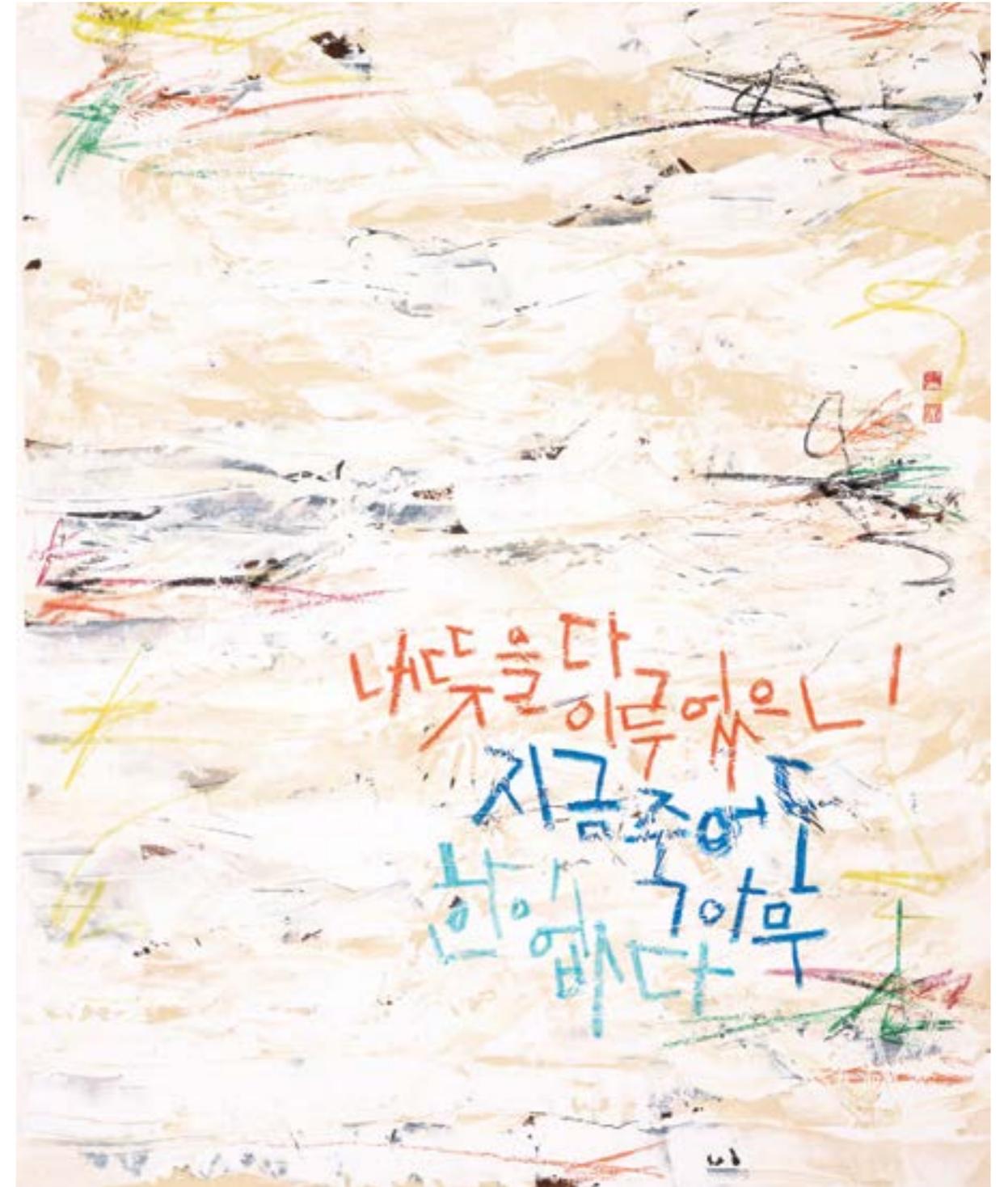
1895년 경상남도 동래에서 태어났다. 부산진보통학교와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했다. 1913년 최천택 등 16명의 동지와 함께 구세단(救世團)을 조직하였다. 구세단은 항일투사의 국내 연락처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비밀결사대로 활동함으로써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활동목적이었다. 매월 한 번씩 등사판 잡지를 발간하여 경남 일대의 청년들에게 비밀리에 나누어주면서 동지를 모았으나 6개월 만에 조직이 탄로나 체포된 뒤 모진 고문을 당했다.

졸업 후 무역상회에서 일한 계기로 1917년 상하이[上海]와 싱가포르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였다. 이 때 김원봉을 만나게 되었고, 1920년 8월 김원봉이 주도하여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9월 13일 부산경찰서 파괴의 임무를 띠고 짐 속에 폭탄을 숨겨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왔다.

9월 14일 부산경찰서를 방문해 서장 하시모토[橋本秀平]에게 고서를 보여준다고 하며 만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서장실에서 짐 속의 폭탄을 꺼내 던졌다. 하시모토 서장은 폭탄을 맞고 쓰러져 목숨은 건졌으나 곧 사망하였고, 자신은 무릎뼈가 손상되면서 곧바로 현장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1921년 3월 경성고등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 고문과 폭탄 파편에 의한 상처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일본놈에 손에 죽을 수 없다며 음식 먹기를 거부하다 그 후유증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조진경 늘품글씨문화연구소 대표 ·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민주평통서예대전 최우수상 · 캘리콘서트·라운제나 등 그룹전 다수 참여
C : 010-9878-4787, E : jinjin303@hanmil.net, H : www.instagram.com/neulpoom_jinkyung

장진홍

1895.06.06–1930.06.05

대구조선은행 투탄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28]

너희들 일본 제국이 한국을 빨리 독립시켜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내 육체는 네놈들의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한국의 독립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하여 지하에 가서라도 싸우겠다.

장진홍이 옥중에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보내는 서한 중 일부

1895년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에서 장성욱(張聖旭)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본관은 인동이고 호는 창여(滄旅)이다.

1914년 3월 조선보병대(朝鮮歩兵隊)에 입교하여 군사지식과 학문을 배운 후 상등병까지 승진했으나, 일제 치하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1916년 제대했다. 그 해 12월 서울로 이사하여 이내성(李乃成)의 권유로 독립운동단체인 광복단(光復團)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일경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1918년 만주 봉천으로 이주했다. 봉천에서 조선광복단(朝鮮光復團) 소속의 이국필(李國弼), 김정묵(金正黻) 등과 만나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한인 청장년 80여 명을 모아 군내 내무서(內務署) 보병조전(歩兵操典)을 설치하고 수개월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러시아내전과 일본군의 시베리아 침공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국내로 귀국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부친의 눈을 팔고 행상을 가장하여 전국을 답사하며 일제 침략의 참상을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그 해 7월 인천에 입항한 미국군함의 하사 김상철(金相哲)에게 작성된 조사서를 주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세계열강에 배포하도록 부탁했다. 그 후 부산에서 조선일보 지국을 경영하고 매약상의 이름을 빌려 각지를 전전했다. 1927년 10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경찰부, 조선은행지점, 식산은행지점을 목표로 정하고 폭탄을 제조했다. 10월 18일 덕흥여관에 투숙하여 폭탄을 선물로 포장하고 조선은행지점에 전달했고, 4개의 폭탄 중 3개가 폭발해 일경 4명과 은행 사환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928년 2월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 해 12월 최후의 거사로 일제의 중의원(衆議院)과 경시청에 폭탄을 던지고 러시아 방면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월 13일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30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사형이 언도되자 돌을 꺼내 재판장을 향해 던지고 “대한독립만세”라고 큰소리로 삼창한 후 다시 의자를 집어 던졌다. 사형이 확정되자 6월 5일 자결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조혜란 캘리그래피그림 목화연 전속 작가
C : 010-3935-2263, E : hrcho2263@naver.com

윤봉길

1908.06.21-1932.12.19

독립운동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한 사람의 무지는 무덤을 잃게 하지만 민족의 무지는 나라를 잃게 한다.

문맹퇴치운동을 결심하게 된 묘표일화 중에서

본관은 파평(坡平). 본명은 윤우의(尹禹儀). 호는 매헌(梅軒). 충청남도 예산 출신.

1918년 덕산보통학교(德山普通學校)에 입학했으나 다음 해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아 식민지 노예교육을 배격하면서 학교를 자퇴하였다. 이어 최병대(崔秉大) 문하에서 동생 윤성의(尹聖儀)와 한학을 공부했으며, 1921년 성주록(成周錄)의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사서삼경 등 중국 고전을 익혔다. 1926년 서숙생활을 마치고 농민계몽·농촌부흥운동·독서회운동 등으로 농촌 부흥에 전력하였다. 다음 해 이를 더욱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독본(農民讀本)』을 저술하고, 야학회를 조직해 향리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다. 1929년 부흥원(復興院)을 설립해 농촌부흥운동을 본격화했으며, 그 해 1월 초부터 1년간 기사일기(己巳日記)를 쓰기 시작하였다.

1930년 “장부(丈夫)가 집을 나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가득찬 편지를 남기고 3월 6일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선천(宣川)에서 미행하던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45일간 옥고를 치렀다. 그 뒤 만주로 탈출, 그 곳에서 김태식(金泰植)·한일진(韓一眞) 등의 동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1932년 한인애국단의 이봉창(李奉昌)이 1월 8일 동경에서 일본왕을 폭살하려다가 실패하자 상해 일대는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 더욱이 일제의 계략으로 1월 28일 일본승려사건이 일어나면서 상해사변이 발발하였다.

윤봉길은 이 해 봄 아채상으로 가장해서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하였다.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해 김구의 주관 하에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조소앙(趙素昂) 등의 협의와 동의 아래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天長節) 겸 전승축하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식장에 참석해 왕웅(王雄, 본명은 金弘一)이 만들어 폭발시험까지 했던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이때 상해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상해의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다[河端貞次] 등은 즉사하고,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野村吉三郎]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重光葵] 등이 중상을 입었다.

거사 직후 현장에서 잡혀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해 11월 18일 일본으로 호송되어 20일 오사카[大阪] 위수형무소에 수감, 가나자와[金澤]에서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주현정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2014-2018 캘리콘서트 외 그룹전 다수
C : 010-6236-7811, E : aiglfe20030701@daum.net, H : www.instagram.com/calliswan

박승환

1869.09.07~1907.08.01

순절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12]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

박승환 선생의 유서

1869년 서울 반촌(泮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외숙 흥태윤으로부터 한학을 익히면서도 무술 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887년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무반직을 역임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국모의 복수를 위해 일본인에게 복수하고자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1896년 '무관학교관제'가 반포되고 사관생도를 모집하자, 그는 근대적 군사교육과 훈련을 습득하기 위해 무관학교에 입학했다. 무관학교에서 약 6개월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1897년 3월 졸업하여 육군 보병 참위(소위)로 임관했다.

1897년 광무황제가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그 해 3월 황실 근위부대인 시위대 장교로 선발 배치되었다. 이후 1899년 11월 육군 부위(중위)로 승진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육군 부위(중위)로 진급했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2월에는 육군 참령(소령)으로 진급하여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장의 중임을 맡으며 국가보위와 황실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1907년 일본이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광무황제를 강제 양위시키자 그는 궁중에서 군사를 일으켜 이를 제지하고자 하였으나, 화가 황제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중단했다. 그리고 8월 1일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 해산 통고를 위해 대대장 이상의 장교를 일본 통감의 관저인 대관정(大觀亭)에 집합시켰으나, 병을 핑계로 불참했다. 그러나 일본이 군대 해산식을 강행하자 크게 분개하여 “군인은 국가를 위하여 경비함 이어늘 이제 외국이 침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히 군대를 해산하니 이는 황제의 뜻이 아니오 적신이 황명을 위조함이니 내 죽을지언정 명을 받을 수 없다”하고 유서를 쓴 후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장병들이 그의 자결 소식을 온 부대에 전하니 부대 장병들이 분노하여 무장 봉기했고,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며 전투에 들어갔다. 전투 후에는 상당수가 의병으로 전환했고, 이는 의병운동이 의병전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최동준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캘리그래피그룹 목화연 전속 작가·님의침묵서예대전 초대 작가
C：010-5364-2050

신익희

1894.06.09–1956.05.05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나라는 반드시 완전 독립되어야 하고(國家須完全獨立)
민족은 반드시 철저히 해방되어야 하며(民族須澈底解放)
사회는 반드시 자유 평등하여야 한다(社會必須平等)

조국광복을 앞둔 1945년 신익희 선생이 중국에서 쓰신 글 중에서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여구(汝耆)이며 호는 해공(海公)이다. 경기 광주(廣州)에서 판서 신단(申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1908년 한성외국어학교(漢城外國語學校) 영어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경학부(政經學部)에 들어가 한국 유학생들과 학우회(學友會)를 조직하고 총무·평의회장·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기관지인 『학자광(學之光)』을 발간하여 학생운동을 하였다. 1913년 졸업과 동시에 귀국, 고향에 동명강습소(東明講習所)를 열었으며, 서울 중등학교(中東學校)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7년 보성법률상업학교(普成法律商業學校) 교수가 되었다.

1918년 최남선(崔南善)·윤홍섭(尹弘燮)·최린(崔麟)·송진우(宋鎭禹) 등과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 1919년 3·1 운동 당시에는 해외연락 등 중요한 임무를 위해 전면에서 빠지기로 하였다. 해외에 있는 문창범(文昌範)과 홍범도(洪範圖)와 연락을 위해 중국에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도중 평양에서 3·1운동을 목격하였다. 그 해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수립과 동시에 내무차장·외무차장·국무원 비서장(國務院秘書長)·외무총장 대리·문교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광복과 더불어 1945년 12월 1일 임시정부 내무부장 자격으로 환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김구(金九) 등 임시정부 계통과는 노선을 달리하여 정치공작대(政治工作隊)·정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이승만(李承晩)과 접근하고, 19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부위원장, 자유신문사(自由新聞社) 사장, 국민대학교(國民大學校) 초대학장 등을 겸하다가 그 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대의원에 피선, 1947년 의장이 되었다.

지청천(池青天)의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과 합작해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을 결성하고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부의장이 되었다가 의장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 의장에 피선, 정부수립 후 이승만과 멀어지기 시작한 한민당(韓民黨)의 김성수(金性洙)의 제의를 받아들여 1949년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 다시 국회의장에 피선되고 1955년 민주국민당을 민주당(民主黨)으로 확대·발전시켜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1956년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 자유당의 이승만과 맞서 호남지방으로 유세가던 중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급사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최민숙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순천지부장·하유글씨문화연구실 대표·캘리그래피그룹 하연 소속 작가
C：010-3087-7876, E：kelly9979@hanmail.net, H：www.instagram.com/ha_yu_cms

이득완

1885.12.27(음력)–1941.02.23(양력)
3·1운동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023]

살을 에이고 저미는듯하던 울렬(漂烈)하던 겨울바람도 이제는 부드럽고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온다. …동칩(冬蟄)하였던 개구리 소리지르고 보금자리에 숨었던 종달새 노래 부르며 중천에 높이 떠 펄펄 날른다. 아침 군생만물이 다 기뻐하는 희망의 때가 돌아온다. 인생인들 슬픔에서 기쁨에, 고통에서 쾌락에, 놀림에서 자유에 기쁜 때가 이르지 아니할까 보냐.

〈신생명〉 제20호(1925년 2월) 권두언 중에서

감리교 목사이자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 본관은 함양(咸陽), 호는 근곡(槿谷)이다. 1919년 2월 중순 조선기독교청년회(YMCA) 간사 박희도(朴熙道)를 만나 조선의 독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2월 27일 다시 박희도로부터 3·1운동 참여를 권유받고 당일 이필주(李弼柱)의 집과 28일 손병희(孫秉熙)의 집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배포식에 참석하여 일행들과 함께 헌병대에 연행, 구금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박동완은 일본이 동양평화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민족자결에 의한 자주독립을 주장하였다. 2년 형을 선고받아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1년 11월 만기출소하였다.

이후 기독교 언론활동의 일환으로 1923년 7월 『신생명(新生命)』을 창간하였다. 또한 『기독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 등에 활발히 기고하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모순의 해결과 민족정신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기독교중앙청년회 소년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25년 3월 조직된 기독교계 비밀결사인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에도 참여하였다. 1926년에는 천도교 구파와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강달영(姜達永)과 함께 민족협동전선 단체로서 국민당(國民黨) 결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신간회 창립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민족유일당운동(民族唯一黨運動)에도 노력하였다. 1927년 12월 미국북감리회에서 조직된 임시재만동포위문회(臨時在滿同胞慰問會)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어 결성된 재만한인옹호동맹(在滿韓人擁護同盟)의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재만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자 박동완은 1928년 8월 하와이로 이주하여 와히아와섬 한국기독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31년 하와이학생 모국방문단을 인솔하고 잠시 귀국하였고, 1934년 『한인기독교보(韓人基督教報)』를 창간하였다. 아울러 미주지역에서 이승만(李承晩)이 주도하는 동지회(同志會)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으며, 1938년 5월 국내조직이 일제에 발각되기까지 흥업구락부와 회원들과의 연락을 계속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최선옥 씨나이트공방대표 · 2016은평구초대전 · 2017동대문구초대전, 평택시초대전
C : 010-5464-4213, E : some4042@naver.com, H : www.instagram.com/sunny.art_031



지청천

1888.01.25~1957.01.15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요인-15]

잊은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군. 잊어버렸다와 잃어버렸다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가. 군인은 생각이 바로 되어야 하고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에서 나온다.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모르는 군인이 어떻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겠는가.

지청천장군의 딸 지복영의 증언

지청천 장군(左)과 지복영(右)의 사진

본관 충주(忠州). 호 백산(白山). 본명 대형(大亨). 일명 이청천(李靑天). 1888년 1월 5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정부유학생으로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陸軍中央幼年學校)를 졸업, 191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중위로 있다가 1919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교성대장(敎成隊長)이 되어 독립군 간부양성에 진력하였으며, 1920년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가 조직되자 그 간부에 취임하였다.

청산리(靑山里)전투 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보복을 피하여 신흥무관학교를 폐쇄, 병력을 이끌고 간도(間島) 안도현(安圖縣) 밀림으로 이동하였다. 서일(徐一)·김좌진(金佐鎭) 등과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여단장으로 있다가 만주를 벗어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자유시(自由市)에 집결하였다. 1921년 흑하사변(黑河事變, 자유시사변)이 발발하자 다시 이르쿠츠크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고려혁명군관학교의 교장직을 맡았다. 이듬해 군관학교의 방침과 소련 당국의 규정이 대립되어 체포되었다가 임시정부의 노력으로 석방되었다.

1925년 양기탁(梁起鐸)·오동진(吳東振) 등과 정의부(正義府)를 조직, 군사위원장 겸 사령장이 되고, 그 해 군민의회(軍民議會)가 설치되자 군무위원에 선출되었다. 1930년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 군사위원장이 되었으며, 별도로 한국독립군을 만들어 총사령관이 되고, 1932년 동아혈성동맹(東亞血成同盟)의 간부로서 각지의 항일단체를 규합하는 데 힘썼다.

1933년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잠입하여 항일지하운동을 지휘, 한·중연합군(韓中聯合軍)의 총참모장이 되었으나, 중국공산당의 압력을 받아 무장해제당한 후 그 해 재만독립군(在滿獨立軍)을 산하이관(山海關)으로 이동시키고 뤼양[洛陽]군관학교에 한국인특별반을 설치하여 그 총책임자가 되었다.

1940년 충칭[重慶]으로 옮긴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항일전을 수행하다가 1945년 광복 후 귀국,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을 창설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정부수립 후 초대 무임소장관을 역임하고, 제2대 국회의원, 민주국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최은정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소속 작가·(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사)한국서가협회 초대 작가
C : 010-4111-8808, E : webchoiej@gmail.com



이회영

1867.03.17~1932.11.17
만주방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50]

독립이 될 한민족의 내부구조도 반드시 이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분권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서 중앙 정치 기구를 구성하며, 경제 건설에 있어서는 재산의 사회성에 비추어 일체의 재산은 사회적 자유 평등의 원리에 모순이 없도록 민주적인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기념관 이회영 어록비 중에서 (1925년 11월 중국 천진에서 김종진과의 담론중에 하신 이회영 선생의 말씀)

1867년 서울 저동(苧洞)에서 이조판서 이유승(李裕承)의 4남으로 태어났다.

1895년 봄부터 8개월 동안 이상설(李相高), 여준(呂準) 등과 함께 신학문을 공부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상설과 함께 학생과 군중을 종로 거리에 모아 분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을사오적 암살을 꾀하기도 했다. 1906년 국내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권회복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위해 만주 용정촌(龍井村)에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결심했다. 이를 위해 이상설을 용정촌으로 보내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하고, 자신은 국내에 남아 상동청년학원의 학감을 맡아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에 힘썼다. 1907년 4월 신민회(新民會)를 창립하고, 교육활동과 강연, 출판활동 등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며 국권회복 운동에 힘썼다. 1910년 12월 6형제와 상의하여 전 가족이 만주로 망명한 후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매진했다. 1911년 4월 최초의 재만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1912년 경학사를 모체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해 독립군 지도자 양성에 매진했다.

1918년 고종의 국외망명을 계획하고, 고종에게 승낙을 얻었으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패했다.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방향을 논의하고 임시정부 조직문제에 대해 인물 중심으로 단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반대했다. 이에 상해를 떠나 북경에 체류했다. 1920년부터 무정부주의를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1921년 신채호 등과 함께 아나키즘 선전지 『천고』를 창간하는 한편, 독립운동가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1924년 4월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고 『정의공보(正義公報)』를 간행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상해에서 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聯盟)을 조직하고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1932년 '상해사변'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을 찾아가 교섭하여 자금과 무기지원을 약속받았다. 그 해 11월 만주에 연락근거지를 마련하고 주만일본군사령관 암살 등을 목적으로 만주로 가던 중, 밀정 연총렬과 이규서의 밀고로 대련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65세라는 노령으로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고 끝내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최정화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오민준글씨문화연구실 소속 작가·캘리콘서트외 다수 전시 참여
E : jjukflower@naver.com



민필호

1898.02.27(음력)-1963.04.14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56]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존의 길은 우리나라가 왜 이국의 병탄(併呑)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원인을 똑똑히 깨달아야 하고 주의사상(主義思想)이나 집권야욕(執權野慾)만 운운(云云)하는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앞세워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다.

민필호 선생, 임시정부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1945. 임시정부 주석 판공실장 재임 시

1898년 서울 호동(壺洞)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법무총장과 외무총장을 맡은 신규식의 비서로서 임시정부의 법무, 외교 실무를 담당했는데, 특히 중국 인사들과의 교섭을 주로 맡았다. 1920년 7월에는 신규식의 딸 신명호와 결혼하여 스승을 넘어 장서관계로 인연맺게 되었다.

1921년 10월에는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인 신규식 선생의 비서이자 사위로서 광둥(廣東) 중국호법정부에 특사로 파견하여 임정 승인외교 협상을 담당하였다. 1921년 11월 신규식은 중국 국민정주 총통 손문과 회담하여 한중외교관계 수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22년 임시정부가 내분을 겪으면서 신규식은 심신이 상하여 순국하게 되었다. 장인이자 스승인, 한편으로 임시정부의 큰어른인 신규식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이시영, 이동녕, 김구 등을 보좌하며 임시정부를 지키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중국 교통부 상해진 보국에 있던 그는 중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비밀통신연락을 담당하였다. 1937년에는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장 장개석 시종실(侍從室)의 직속기관인 암전연구소(暗電研究所) 총무(대령급)로 근무하였으며, 이어 군사위원회 기술연구실 제3조장(소장급)에 이르기도 하였다. 중경 임시정부 시절 김구 주석의 비서실장(辦公室長)과 외무부 차장을 역임했으며, 의정원 의원까지 겸임하였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 김구 주석과 중국 국민정부의 장개석 주석의 회담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11월말에야 환국하게 되자 중국에 남아 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1948년에는 중국의 내전으로 정세가 혼란해지자 주화대표단 및 교민들을 대만으로 피신시켰으며, 1949년 8월 중화민국 대만주재 대한민국 초대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1957년 7월 조국으로 귀환하여 한중문화협회를 재건하며 한중우호관계 수립에 힘쓰다 1963년 4월 14일 서거하였다.

최혜진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하유골씨문화연구실 소속 작가 · '임들을 잊지않겠습니다'展 참여
C : 010-2652-2294, E : yuligip@hanmail.net



신돌석

1878.11.03–1908.11.18
의병_건국훈장 대통령장 [애국지사-131]

**누(樓)에 오른 나그네 갈 길을 잊고, 낙목이 가로놓인 조국을 탄식하네.
남아 27세에 이룬 일이 무엇인가, 문득 가을바람이 부니 감개만 이는구나.**

1905년 신돌석 선생이 평해 월송정에 올라 읊은 시

1878년 경상북도 영해군 남면 북평리(현재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에서 신석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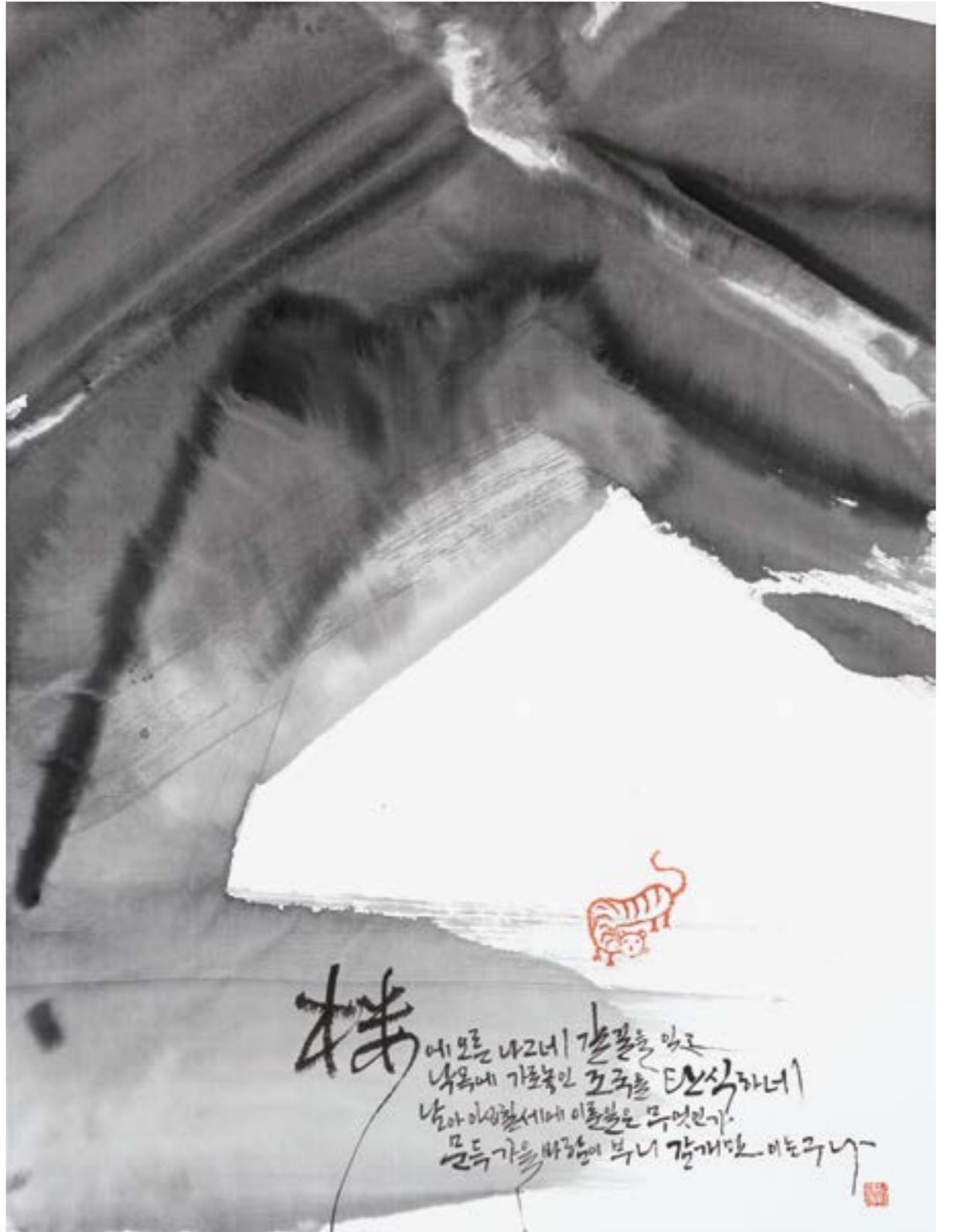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1896년 3월 영해의병에 가담하여 중군장(中軍將)이 되어 의병 100여 명을 이끌었다. 그 해 7월 초 남한산성에서 용맹을 떨친 김하락(金河洛)의 의진(義陳)이 경주를 거쳐 영덕방면으로 이동해오자 연합했다. 7월 14일 일본군의 기습으로 영덕에서 격전을 치렀지만,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패배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전국 각지로 지사, 의사 등을 찾아다니며 구국 방안을 논의하고 재기 항전을 준비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1906년 3월 영해 북평리에서 '영릉의병장(寧陵義兵將)이란 기호를 내걸고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이 때 신석주는 전담 등 가산을 처분하여 무기와 군량을 구입하는 등 의병활동을 지원했다. 의병부대를 이끌고 영해 부근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을 격파한 뒤, 그 해 4월에는 울진 장흥관으로 이동하여 정박 중이던 일본 선박 9척을 격침시켰다. 6월에는 평해 부근에서 대구, 원주 진위대 관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삼척과 강릉, 양양 등 동해안 일대, 영양, 청송 등 경북 내륙지방, 정선, 원주 등 강원도 내륙지방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여러 차례 격전을 벌여 크게 승리했다. 11월에는 경북 일월산과 백암산 등지로 남하하여 활동하는 한편, 문경 일대에서 활약하던 이강년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순흥을 공격하기도 했다.

1907년 봄에는 영덕 일대의 일진회 등 친일세력을 대거 처단하여 기세를 높였고, 8월에는 경북 영양읍을 공격하여 일본군 헌병분파소와 관아를 소각하는 전과를 올렸다. 같은 해 12월 의병장 이인영(李麟榮)을 중심으로 13도의 의병이 연합해 서울 공격을 목적으로 양주로 모여 들자, 경상도 의병을 대표하여 의병 1,000여 명을 이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부대 편성에서 제외되면서 영해로 돌아왔다.

1908년 1월에는 평해 독곡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3월에는 대구모로 투입된 적군에 맞서기 위해 안동, 울진, 삼척 등지의 의병과 연합하여 군세를 강화해 춘양·황지·소봉동 등지에서 적을 격파했다. 11월에 겨울을 맞아 다음해 봄에 활동을 재개할 것을 기약하고 해산한 후 놀곡에 있는 부하 김상렬(金相烈)의 집에 은신했다. 그러나 현상금을 노리던 김상렬, 김상근 형제에게 살해당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탁혜진 하유글씨문화연구실 소속 작가·캘리그래피그룹 하연 소속 작가·'임들을 잊지않겠습니다'展 참여
C : 010-712-5330, E : thj8349@hanmail.net



노복선

1912.02.13~1997.11.17

광복군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207]

독립투사는 민족정기의 상징이다.

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록 나라는 강탈당했지만 민족혼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독립기념관 노복선 선생 어록비

평안남도 진만포 출신으로, 이명은 노원일(盧元一)이다.

중국으로 망명해 광둥성광주(廣州)에 있는 중앙육군군관학교 광둥분교(廣東分校)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1936년 보병과 12기생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중국군 장교가 되어 중앙유격간부훈련단에서 복무하였다. 1939년 2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유주(柳州)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를 결성하였을 때, 그 대원이 되었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를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결성한 연합체였고,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는 그것의 무장조직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에 참여하였고, 이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1939년 11월 임시정부 군무부로부터 군사특파단(軍事特派團)의 청년공작원으로 임명되어,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으로 파견되었다. 단장 조성환(曹成煥)을 비롯하여 황학수(黃學秀)·나태섭(羅泰燮)·이준식(李俊植) 등과 서안에 거점을 마련하고, 화북지역의 한인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전 및 초모활동을 전개 하였다.

1940년 9월 17일 중경(重慶)에서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총사령부 부관에 임명되었다. 광복군은 창설 직후 인 11월에 총사령부를 서안으로 옮기고 단위부대로 4개 지대(支隊)를 편성하였다. 이미 군사특파단으로 파견되어 서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노복선은 제1지대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이 때 편성된 지대는 지대장과 10여 명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체적으로 병력을 모집하여 병력을 증강해야 했다. 1941년 3월 대원들과 함께 산서성(山西省)대동(大同)으로 가서, 그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병력을 초모하는 활동을 전개 하였다. 1942년 7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가 광복군에 편입해 오면서 광복군의 단위부대도 새롭게 편제되었다. 기존의 제1·2·5지대를 통합하여 새로이 제2지대를 편성하였다. 지대장으로 참모장 이범석(李範奭)이 부임하였다. 노복선은 제2지대의 총무조장으로, 또 제3구대장에 임명되어 해방 때까지 서안에 근거를 둔 광복군 제2지대에서 활동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하여 육군 연대장을 역임하고, 1954년 전역하였다. 1977년 노환으로 작고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탄공스님 오민준글씨문화연구실 소속 작가 · 서양화가 · 개인전 3회
E : dharna3@naver.com

독인서

1859.09.30–1925.11.01

임시정부_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요인-]

국훈(國魂)의 됴됨은 국백(國魄)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훈은 살아 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한국통사〉(1915년)

1859년 9월 30일 황해도 황주군 남면에서 태어났다.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한 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지식인들과 함께 만민공동회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장지연 등과 함께 『황성신문』 주필로 활동하며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된 후,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대한자강회의 『대한자강회월보』, 서우학회의 『서우』 발행을 맡는 등 활발하게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에는 비밀결사 신민회를 결성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으나 1911년 일제에 의해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해서 『동명성왕실기』, 『발해태조건국지』 등에 이어 1915년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완성하였다. 1912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중국 관내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同濟社)를 결성하였다. 동제사를 통한 인연으로 한중간의 우호관계가 구축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1915년 북경에서 신한혁명당을 결성한 그는 1917년 7월 신규식, 조소앙 등과 함께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단결을 통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독립신문』 발행에 참여하고, 임정사료편찬회를 주도하며 독립운동사료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그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정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921년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을 간행하였다.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으로 면직된 후,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할 어른으로 추앙되어 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바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임시대통령제를 개정하여 국무령체제 수립에 앞장섰다. 그리고는 만주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인 석주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추천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70세에 가까운 고령에도 임시정부의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힘쓰던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1925년 11월 1일 이역만리 중국 상해에서 숨을 거뒀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민족의 통일'을 촉구하였다.

상해 만국공묘에 70여년간 안장되어 있던 유해는 1993년 8월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충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묘역이 조성되었다.



표시근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 표시근캘리그래피 회원전 기획 전시_2018 '사랑'전·2015–2018 캘리콘서트 외 다수의 전시 참여
C : 010–5249–4852, E : taeyeon2mo@naver.com, H : www.instagram.com/pyossi_gul

남영득

1897.12.22-1967.01.29

의열단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34]

나는 의열단원ियो. 검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직업적이라 하나 우리는 절대 로 그렇지 않소. 나는 경술국치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의열단에 가입한 후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소이다. 나는 군자금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열단은 군자금을 모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민족에게 각성을 주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살았은 즉 나의 형벌에 대해서는 사형도 좋소이다. 더 말하지 않겠소.

남정각의 경성지방법원 판결 최후 진술 중에서 (1923년 8월 12일, 공훈록에서 재인용)

1897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1913년 3월까지 한학을 수학하고, 서울기독교청년회 공업과에 입학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중퇴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수원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는 한편 수원, 안성, 용인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배부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만세 운동에 나설 것을 권유하였다.

1920년 3월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망명하여 그 곳에서 중국청년회(中國青年會) 어학과(語學科)를 다니다 중퇴한 후 창춘[長春],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등지를 순회하며 독립운동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1921년 겨울 베이징에서 의열단장 김원봉(金元鳳)을 만난 후 1922년 6월 최용덕(崔用德), 이종암(李鍾岩)의 소개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그는 국내의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폭탄을 국내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금 모금을 위해 경성 황금정2정목 정목여관(正木旅館)에서 동지 권동산(權東山) [일명 正弼], 유병하(柳秉夏), 유시태(柳時泰) 등과 의논하고, 그들에게 권총을 주며 내자동 이인희(李麟熙)에게 자금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는 상하이에서 온 임시정부 군무총장 '정(丁)모'라 가칭하고 유시태와 함께 이인희의 집에 가서 5,000원을 요구하였다가 그의 고발로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고, 1928년 출옥하였다.

출옥 후 텐진에서 교민회 조직에 힘쓰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고려동지회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1967년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한지혜 원광대학교 서예과 졸업·충북서예가협회 초대작가·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상(전각, 캘리그래피)
C : 010-8848-6722, E : jhhan6722@hanmail.net, H : jhhan6722.blog.me

오직

1877.12.23(음력)-1942.02.25(양력)
임시정부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12]

오직 처음의 뜻을 굳게 잡아 더욱 분투할 따름이외다.

임시의정원 제28회 개원식 식사 중에서(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3, 2005에서 재인용)

1877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 기독교에 입교한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기독교와 독립사상을 알리는데 힘썼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용천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모아 만세시위에 참여토록 독려했다. 10월 2일 평양에서 각 도 대표 24명이 모여 조직한 대한국민총회에서 양석진(梁錫鎭), 채필근(蔡弼根) 등과 함께 평의원에 선출되어 운동계획 수립과 활동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했다.

이후 안동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부 참사로 활동하였고, 1921년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를 설립하였다. 손정도(孫貞道), 김병조(金秉祚) 등과 대한야소교진정회(大韓耶蘇敎陳情會)를 조직하여 국내외 각 교회에 한국의 실정과 독립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1922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자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1년 뒤 윤해(尹海), 신숙(申肅) 등이 국민대표회의의 명의로 일방적인 활동을 하자 신한청년단 대표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1925년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으며, 1926년 8월에는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임시정부가 자금난을 겪자 안창호, 엄항섭 등과 임정경제후원회를 설립했다. 1931년 1월 엄항섭, 선우혁(鮮于赫)과 함께 흥사단에서 경제자활과 자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평사(公平社)의 감사에 선임되었으며, 10월 대한교민단의 임시모연위원(臨時募捐委員)에 임명되었다. 1932년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공원(虹口公園) 투탄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항저우(杭州) 등을 거쳐 충칭에 당도하기까지 차리석과 함께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인물이다.

1937년 임시정부가 난징(南京)에 있을 때 중일전쟁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한국국민당 간부로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와 협의하여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결성했다. 1940년 충칭[重慶]에 도착한 뒤 에도 광복군 창설, 건국강령 제정,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교섭 등에 노력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허지혜 표시근캘리그래피 기획전시 2018 '사랑'전 참여·2018 의왕시 평생학습축제 전시 및 아트 마켓 참여
C : 010-4221-5567, E : www.eett@hanmail.net, H : www.instagram.com/h.jihye5567

송학선

1897.02.19(음력)-1927.05.19(양력)
의열투쟁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09]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우리민족을 압박하는 놈들은 백 번 죽어도 마땅하다.

송학선 예심조서 중에서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7, 586쪽에서 재인용)

초명은 송인수(宋仁壽)·송학선(宋學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아현북리(阿峴北里: 지금의 서울 아현동)로 이주. 그 곳에서 성장하였다. 인쇄직공 송성진(宋聖振)의 아들이다. 성품이 과묵하고, 남과 언쟁을 하지 않았으며, 청결한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보통학교를 중퇴하였다. 13세 때 가족이 흩어져 거리를 헤매는 방랑자가 되기도 하였다. 1909년 남대문로에 있는 일본인 경영의 오쿠다농구회사[奥田農具會社]의 고용인으로 일하게 되고, 아버지 역시 인쇄공으로 일하게 되어 한가족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나 7년 뒤 각기병으로 실직하였다. 일본인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며 일제에 대한 원한이 쌓였고, 사회적·민족적으로 항일의식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토(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安重根)을 숭배하고, 자기도 총독 사이토[齋藤實]를 사살하기로 결심하였다.

1926년 3월 잡지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양식도(洋食刀)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 칼을 품고 과자행상을 가장해 사이토를 노렸다. 그 해 4월 26일 손종이 죽자, 사이토가 조문하기 위해 창덕궁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4월 28일 금호문(金虎門) 앞에 나아가 대기하였다. 오후 1시 30분경 일본인 3명이 탄 자동차가 금호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호같이 자동차에 뛰어올라 이들을 찔렀다.

그러나 이들은 총독 일행이 아니라 경성부회 평의원인 다카야마[高山孝行]·사토[佐藤虎次郎]·이케다[池田長次郎] 등이었다. 현장에서 붙잡혀 1926년 11월 10일 사형이 확정,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홍예빈 국립서울현충원 추모글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시·도봉문화재단 평화기원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시·대국민통합 통일을 위한 캘리그래피대전 입상
C : 010-8403-2625, E : houndis@naver.com



이수홍

1905.09.11~1929.02.27

만주방면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66]

나는 일제 재판부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기필코 대한독립을 성취하려 했더니 원수들의 손에 잡혀 일의 열매를 못 맺고 감이 원통할 따름이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끝까지 싸워 우리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수홍 선생 최후 진술 중에서

1905년 경기도 이천에서 이일영(李日馨)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이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13세에 자퇴하고 14세 되던 해 입산하여 수 년 간의 승려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1922년 18세가 되던 해 아버지의 만류로 하산한 뒤, 1923년 3월 말 만주로 건너가 김좌진(金佐鎭)이 사관양성을 목적으로 길림성에 설립한 신명학교(新明學校)에 들어갔다.

1923년 신명학교를 졸업한 뒤 7월 말경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에 가담하여 무장투쟁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통의부가 의군부(義軍府)로 확대 개편되자 의군부 총재 채상덕(蔡相德)의 부하로서 무장항일운동을 펼쳐 나갔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에 가담하여 활동했다.

1926년 5월 육군주만참의부 특무정사(特務正士)로 임명되어 그 해 총독 및 일제 고관을 처형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그 해 7월 10일 서울 동소문파출소를 습격하여 일본경찰에게 중상을 입혔다. 9월에는 유택수(柳澤秀)와 함께 군자금 요청을 거절하는 안성의 부호 박승육(朴承六)의 아들 박태병(朴泰秉)을 처형했다. 10월 20일 이천군 현방주재소를 습격하고, 다시 백사면사무소를 습격했다. 10월 말 아버지의 부음(訃音)을 듣고 수원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다. 이때 이천경찰서장 하기(河岐)는 그의 신장이 5척이라는 말을 듣고 관내에 거주하는 신장이 5척 되는 사람을 모조리 조사하게 했고, 11월 6일 유택수와 함께 체포되었다.

3년여에 걸친 예심 끝에 1928년 7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자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다. 사형을 언도받고 공소권을 포기한 사람은 경성지방법원이 생긴 이래로 허위(許鵲)와 강우규(姜宇奎)에 이어 3번째였다. 1929년 2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홍지영 램다공방 대표 · 캘리그래피그룹 목화연 전속 작가 · 캘리그래피디자인그룹 어울림 회원
C : 010-8811-5339, E : ramdari@naver.com, H : ramdari.blog.me

대한 국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100인

초판 1쇄 2019년 3월 1일

역은이 |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편집 | 윤경희·이우진

디자인 | 인준철

타이틀 | 오민준

인쇄 | 웨스트블루

발행처 | 국립서울현충원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전화 | 02-815-3625

발간등록번호 | 11-1291060-000021-01

ISBN | 979-11-958403-4-2-03600

•국립서울현충원의 『독립·국가유공자 공훈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를 참고하여 독립운동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오묘준 글씨문화연구소



ISBN 979-11-958403-4-2